KLIPS 1~15차년도 User's Guide 2014

한국노동패널 1~15차년도 조사자료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User's Guide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KLIPS 1~15차년도 User's Guide 2014

한국노동패널 1~15차년도 조사자료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User's Guide

KLIPS

목 차

Ⅰ. 한국노동패널(KLIPS) 소개 ····· 1
1. KLIPS 조사개요 ····· 1
2. 현장실사 및 면접방식 ····· 4

Ⅱ. 표본설계 및 가중치 ····· 12
1. 표본설계방법 및 표본추출과정 ····· 12
2. 가중치 부여방식 및 사용방법 ····· 15

Ⅲ. 자료의 주요 특성 ····· 25
1. 설문지 구성 ····· 25
2. 자료 구성 ····· 28
3. 조사내용 ····· 31

Ⅳ. 변수 가이드 ····· 34
1. key변수의 이해와 이용 ····· 35
2. 오픈 코드(open code) ····· 46
3. 무응답 대체 데이터 ····· 49
4. 직업코드 및 산업코드 ····· 50

Ⅴ. 주제별 가이드 ····· 53
1. 가구자료 ····· 53
2. 개인자료 ····· 65
3. 직업력 자료 ····· 81
4. 부가조사자료 ····· 87

〈부록 1〉 KLIPS 자료를 이용한 문헌 목록 ····· 98

〈부록 2〉 FAQ ····· 117

찾아보기 ····· 184

표 목 차

<표 Ⅰ-1>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 6
<표 Ⅰ-2> 1～15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 8
<표 Ⅰ-3> 표본가구 구성 ····· 10

<표 Ⅱ-1> 최종 추출된 조사구와 조사가구 ····· 14
<표 Ⅱ-2> KLIPS 1차년도 조사가구 개요 ····· 15
<표 Ⅱ-3> 98표본 가구 가중치 특성 ····· 17
<표 Ⅱ-4> 98표본 개인 가중치 특성 ····· 18
<표 Ⅱ-5> 통합표본 가구 가중치 특성 ····· 21
<표 Ⅱ-6> 통합표본 개인 가중치 특성 ····· 22
<표 Ⅱ-7> 가중치 변수명 ····· 23

<표 Ⅲ-1> 15차년도 KLIPS 설문지의 구성 ····· 26
<표 Ⅲ-2> 1-15차년도 KLIPS 응답자용 설문지의 구성 ····· 27
<표 Ⅲ-3> 일자리 지속을 통한 유형설문의 판별 ····· 28
<표 Ⅲ-4> 1-15차년도 KLIPS 자료의 구성 ····· 30
<표 Ⅲ-5> 1차년도～15차년도 조사 내용 (공통) - 응답자용 설문 기준 ····· 31
<표 Ⅲ-6> 개인별 한번만 조사하는 내용 - 응답자용 설문 기준 ····· 32
<표 Ⅲ-7> 각 차수별 차별된 조사 내용 - 변수명 일치 자료 기준 ····· 33

<표 Ⅳ-1> 가구의 고유번호 ····· 37
<표 Ⅳ-2> 1-15차년도 연령 변수 ····· 40
<표 Ⅳ-3> 각 연도별 학력 변수 ····· 41
<표 Ⅳ-4> 각 연도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구분변수 ····· 44
<표 Ⅳ-5> 1-15차년도 종사상 지위 변수 ····· 45
<표 Ⅳ-6> 현재(최종) 일자리의 직업・산업코드 변수 ····· 52

<표 Ⅴ-1> 1-15차년도 가구원 정보 변수 ····· 54
<표 Ⅴ-2> 1-15차 가구소득 관련 변수 ····· 56

<표 Ⅴ-3> 1-15차년도 가구소득 세부항목 ····· 58
<표 Ⅴ-4> 1-15차년도 가구소비 관련 변수 ····· 59
<표 Ⅴ-5> 2-15차년도 부동산 관련 변수 ····· 60
<표 Ⅴ-6> 2-15년도 금융자산 관련 변수 ····· 61
<표 Ⅴ-7> 2-15차년도 가구부채 관련 변수 ····· 61
<표 Ⅴ-8> 1-15차년도 주거지 관련 변수 ····· 62
<표 Ⅴ-9>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실태 조사내용 ····· 64
<표 Ⅴ-10> 평소의 경제활동관련 변수 ····· 67
<표 Ⅴ-11> 1-15차년도 구직활동 관련 변수 ····· 68
<표 Ⅴ-12> 1-11차년도 근로계약 관련 변수 ····· 68
<표 Ⅴ-13> 비정규직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 ····· 69
<표 Ⅴ-14> 고용형태 자료의 변수 ····· 70
<표 Ⅴ-15> 1-15차 근로시간 관련 변수 ····· 72
<표 Ⅴ-16> 1-15차년도 임금근로자의 임금관련 변수 ····· 73
<표 Ⅴ-17> 1-15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관련 변수 ····· 74
<표 Ⅴ-18> 1-15차년도 사회보험 관련 변수 ····· 76
<표 Ⅴ-19> 1-15차년도 요인별 직무만족도(facet measure) 변수 ····· 77
<표 Ⅴ-20> 단일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변수 ····· 78
<표 Ⅴ-21>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변수 ····· 78
<표 Ⅴ-22> 조직몰입도의 측정 변수 ····· 79
<표 Ⅴ-23> 1-15차년도 기타 변수 ····· 80
<표 Ⅴ-24> 1-15차년도 신규조사자 관련 변수 ····· 81
<표 Ⅴ-25> 직업력 자료의 변수 ····· 85
<표 Ⅴ-26> 3차년도 부가조사 - 청년용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 88
<표 Ⅴ-27> 4차년도 부가조사 -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 90
<표 Ⅴ-28> 6차년도 부가조사 -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 91
<표 Ⅴ-29> 7차년도 부가조사 -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 93
<표 Ⅴ-30> 8차년도 부가조사 -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 94
<표 Ⅴ-31> 9차년도 부가조사 -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 95
<표 Ⅴ-32> 고용형태 자료의 변수 ····· 96
<표 Ⅴ-33> 11차년도 부가조사 - 교육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 97

그림목차

[그림 Ⅰ-1] 통합표본의 개요 ····· 10
[그림 Ⅱ-1] 통합표본에서의 가중치 산출 과정 ····· 22
[그림 Ⅳ-1] 경제활동상태의 구분 ····· 44
[그림 Ⅴ-1] 직업력 자료의 구조 ····· 85

[그림] KLIPS 표본 구조 개요 ····· 126

Ⅰ. 한국노동패널(KLIPS) 소개

1. KLIPS 조사개요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과 함께 노동시장도 질적·양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올바른 노동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노동관련 통계 조사만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지속적인 것도 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 및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을 관찰할 필요성이 생긴다.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국내유일의 노동관련 가구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이다.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12차 조사(2009년)까지 완료되었다. 패널 조사는 매년 동일한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해 동일한 조사를 반복 실시하기 때문에 원표본가구 유지율이 매우 중요하다. KLIPS의 각 조사년도별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살펴보면, 2차년도(1999년) 88%, 3차년도(2000년) 81%, 4차년도(2001년) 77% 이후 표본 유지율은 안정화되어 11차년도(2008년)에 74.2%였으며, 이후 감소폭이 약간 커지긴 했으나 여전히 15차년도(2012년)에 70.3%의 표본유지율을 나타냈다.

KLIPS 자료는 크게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된다. 가구용 자료의 내용은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 관련 사항, 가족관계와 세대간 경제적 자원 교류, 주거상태,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

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 이동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노동패널 표본에 처음으로 편입된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한 신규 조사자용 자료는 개인용 자료의 모든 정보와 함께 1차 조사 당시 파악했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추가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회고적(retrospective) 일자리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토대로 구성된 직업력 자료는 기업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 취업시기 및 퇴직시기, 업종과 직종,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임금 및 소득 등 개인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부가조사는 3차, 4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년도에 각각 실시되었다. 3차년도에는 만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하였고, 4차년도에는 만4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5차년도에는 별도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6차년도에는 만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 및 노후생활과 관련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7차년도에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라 응답자들의 근로시간 변화와 여가사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8차년도 조사에서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9차년도 조사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성장과정, 학업 및 학교생활을 조사하는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차년도 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일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계약 형태 등을 심층 조사하는 고용형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11차년도 조사에서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경험과 사교육 등을 심층 조사하는 교육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12차년도(2009년)에는 표본의 전국대표성 확보를 위해 1,415가구 표본을 추가하였다. 1998년 추출된 표본(이하 KLIPS 98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전국을 아우르는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12차년도(2009년)에 1,415개의 가구 표본을 추가하여, 이러한 문제를 보완코자 하였다.

KLIPS 자료를 통하여 기대되는 바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고용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KLIPS의 등장 이전에 노동시장 분석 및 정책 결정에 주로 사용되어 왔던 자료는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 또는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였다. 횡단면 자료란 일정한 시점에서 각각의 표본들이 어떤 값을 갖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로 미시적인 경제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반면 시계열 자료는 주어진 표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값을 갖는지에 대한 동태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반면 패널 자료는

노동시장의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횡단면 자료의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더불어 횡단면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 관측할 수 없는 개인효과(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s)를 통제함으로써 시간의 경과 혹은 정부정책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또는 가구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화해나가는지에 관한 동태적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횡단면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 간 변이과정(transition between states)을 분석할 수 있다. 특정기간효과(period specific effect), 특정연령효과(age specific effect), 그리고 동시생태효과(cohort effect)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패널 자료의 장점으로 꼽힌다.

KLIPS 자료는 가구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KLIPS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예로는 학교를 졸업한 개인이 최초의 직장에서부터 전직·이직 과정을 거쳐 은퇴하기까지 생애에 걸친 직업경로에 대한 이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 개인이 교육, 훈련, 연수 등을 통하여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쌓아가는 과정과 이것이 일자리 진입에 미치는 영향, 실업자 재취업훈련 등 정부의 고용정책이 인적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가구 경제의 동태적 변화와 세대 변화 연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주제들은 KLIPS 자료와 같은 패널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KLIPS는 다른 일회성 조사들과는 달리 전국의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13,000여명의 개인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조사과정과 자료생산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우선, 표본 추출, 설문지의 구성 등과 같은 조사설계(survey design)가 결정되면 조사가 진행되는 한 이를 변경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본추출, 설문 설계 등과 같은 사전 준비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본 조사 이전에 철저한 예비조사(pilot survey)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조사 대상인 표본이 결정되면 패널 조사가 진행되는 한 동일한 표본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즉 매년 동일한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이들이 응답거부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이사 또는 분가 등의 이유로 표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표본유지 및 관리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셋째, 설문 내용이 방대하며 내용 또한 개인의 소득, 고용상태 등 민감한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사과정에서 면접원들이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넷째, 매년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조사된 자료는 클리닝(cleaning)과정과 가공과정을 거쳐서 제공되기 때문에 KLIPS 1개년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KLIPS 자료의 학문적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 현장실사 및 면접방식

2.1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2.1.1 가구용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 KLIPS는 가구패널 조사로 기본적으로 가구를 기준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 KLIPS 원가구(혹은 가구 표본)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1998년 최초 조사 당시 표본가구로 구성된 98원표본과 2009년(12차년도) 당시 응답가구를 원표본으로 보는 통합표본이다.

□ 따라서, KLIPS의 가구 조사 대상은 첫째, 98원표본 가구인 5,000가구와 원가구에서 분가한 신규분가가구이며, 둘째, 12차년도(2009년) 당시 응답가구를 원표본으로 하는 통합표본 원가구와 분가가구이다.

□ 설문은 반드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면접원은 주로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중 1차년도 조사당시 원가구원들이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추적조사한다.

- 분가가구의 조사추적 원칙
  - 반드시 추적해야 하는 가구원인 원가구원(98표본 원가구원과 그 자녀, 통합표

본 원가구원과 그 자녀)이 있는 가구는 모두 조사대상이다.

예) 1998년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원가구로 선정되어 조사됨

→ 2000년 12월 형과 아우가 같이 대전으로 분가하여 나왔음

→ 2001년 3월(4차년도 조사일 이전) 형이 또 부산으로 분가하여 나감

→ 이 경우 대전에 살고 있는 동생은 물론 부산으로 분가한 형이 살고 있는 가구도 추적조사해야 함

• 추적하지 않아도 되는 가구원 즉, 원가구원이 한명도 없는 가구는 조사대상이 아니다.

예) 1998년 서울에서 사는 한 가구가 원가구로 선정되어 조사됨

→ 2001년 12월 가구주의 아들과 며느리가 잠시 함께 살게 됨(1998년 당시 따로 살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가구원이 아님)

→ 2002년 3월 가구주의 아들과 며느리가 분가하여 나감

→ 이 경우 아들과 며느리는 원가구원이 아니므로 이 가구는 추적조사하지 않음

2.1.2 개인용 설문의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 개인용 설문 대상은 각 연도별 조사대상 가구에 소속된 만15세 이상의 개인이다.

□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구성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 → 직접조사
-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 → 전화조사
- 면접이나 전화조사가 어려우면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 → 대리응답
-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 → 대리 응답
- 면접이나 전화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
  • 예 : 영내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 소년원, 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

→ 개인용 설문지의 응답대상에서 제외 (단, 이들의 인적사항은 가구용 설문지 에서 질문함)

□ 질문형태는 면접원이 설문문항을 응답자에게 구두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심야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치조사방법을 사용한다.

□ <표 Ⅰ-1>은 이러한 조사원칙이 각 연도별로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치고 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5차년도에는 93.6%에 이르렀다.
-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8%나 되었지만, 11차년도에는 0.4%로 그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표 Ⅰ-1〉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 명, %)

	개인 응답자수	전체 비중	면접	유치	전화	면접+전화	유치+전화	면접+유치	면접+유치+전화
1차년도	13,321	100.0	64.4	21.8	1.5	2.6	3.7	2.6	0.1
2차년도	12,037	100.0	77.8	7.6	7.4	4.7	2.5	0.1	0.0
3차년도	11,205	100.0	83.0	5.1	5.3	3.9	1.5	0.9	0.2
4차년도	11,051	100.0	83.7	3.4	4.6	4.9	1.2	1.8	0.5
5차년도	10,966	100.0	83.8	2.6	3.9	6.4	1.0	1.0	1.3
6차년도	11,541	100.0	86.3	1.7	3.8	5.7	0.9	1.3	0.4
7차년도	11,661	100.0	88.0	1.8	4.1	3.7	0.4	1.6	0.5
8차년도	11,580	100.0	85.4	1.6	2.8	6.1	1.4	1.7	1.0
9차년도	11,756	100.0	89.7	1.5	2.9	2.8	0.7	2.3	0.3
10차년도	11,855	100.0	91.3	1.1	3.2	3.1	0.6	0.6	0.1
11차년도	11,734	100.0	95.7	0.6	1.8	1.3	0.3	0.2	0.1
12차년도	11,739	100.0	92.4	1.7	2.7	2.2	0.6	0.3	0.1
13차년도	11,582	100.0	94.0	0.5	2.7	2.4	0.3	0.1	0.1
14차년도	11,377	100.0	93.0	0.8	3.2	2.2	0.4	0.3	0.1
15차년도	11,444	100.0	93.6	0.4	4.5	1.3	0.1	0.0	0.0

2.1.3 신규조사자용 설문대상과 조사방법

□ 신규조사자란, KLIPS에 처음으로 조사된 개인을 의미한다. 신규조사자의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조사방법은 개인용과 동일하다.

- 대상 1 : 기존가구원 중 작년까지는 만14세였다가 올해 만15세가 된 개인
- 대상 2 : 조사대상이었는데 군복무 등의 이유로 한번도 조사를 하지 못한 개인
- 대상 3 : 분가로 발생하게 된 신규가구원 중 만15세 이상인 개인
- 대상 4 : 기존 가구에 새롭게 추가된 만15세 이상의 개인

2.2 실사 개요

□ 한국노동패널의 현장 실사는 전문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가 1차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연인원 100여명 정도의 전문 면접원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된다. 면접원 교육은 매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지역별로 설문지의 내용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 투입되는 면접원의 수는 실질적으로 조사수행에 필요한 면접원수보다 20-30%가량 많은데, 그 이유는 교육을 받은 면접원 중에서 20-30%가량의 면접원이 패널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에 탈락하기 때문이다.

□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차년도부터 11차년도까지 매년 설문지 재검토과정을 통해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지나친 무응답, 응답 간 논리적인 오류 등이 있는지를 체크하여 담당 면접자에게 다시 재설문하도록 하였다.

2.3 조사결과

2.3.1 조사결과 개요

□ 15차년도 조사결과

- 2012년 15차 조사에 성공한 총 가구수는 6,753가구이며, 이중 98원표본가구는

3,517가구로 70.3%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 한편, 15차 조사에 총 응답 개인은 14,000명이며, 이중 98원표본은 11,444명, 통합 원표본은 13,425명이다.

〈표 Ⅰ-2〉 1~15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98원표본					09원표본					실사 기간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수[1]	원표본 가구수[2]	원표본 유지율[3]	가구원 응답자수[4]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수[1]	원표본 가구수[2]	원표본 유지율[3]	가구원 응답자수[4]	
1차('98)	5,000	5,000	5,000	100.0	13,321						6~10월
2차('99)	5,000	4,508	4,378	87.6	12,037						7~12월
3차('00)	5,000	4,266	4,044	80.9	11,205						5~10월
4차('01)	5,000	4,248	3,866	77.3	11,051						5~10월
5차('02)	5,000	4,298	3,798	76.0	10,966						4~ 9월
6차('03)	4,993	4,592	3,862	77.2	11,541						4~ 9월
7차('04)	4,950	4,762	3,863	77.3	11,661						4~ 9월
8차('05)	4,935	4,849	3,822	76.4	11,580						4~10월
9차('06)	4,926	5,001	3,820	76.4	11,756						4~10월
10차('07)	4,899	5,069	3,775	75.5	11,855						4~10월
11차('08)	4,862	5,116	3,709	74.2	11,734						4~10월
12차('09)	4,832	5,306	3,657	73.1	11,739	6,721	6,721	6,721	100.0	14,489	4~10월
13차('10)	4,802	5,379	3,606	72.1	11,582	6,694	6,398	6,232	92.7	13,641	7~12월
14차('11)	4,786	5,403	3,528	70.6	11,377	6,676	6,386	6,082	90.5	13,409	7~12월
15차('12)	4,770	5,469	3,517	70.3	11,444	6,641	6,432	6,016	89.5	13,425	6~12월

주 :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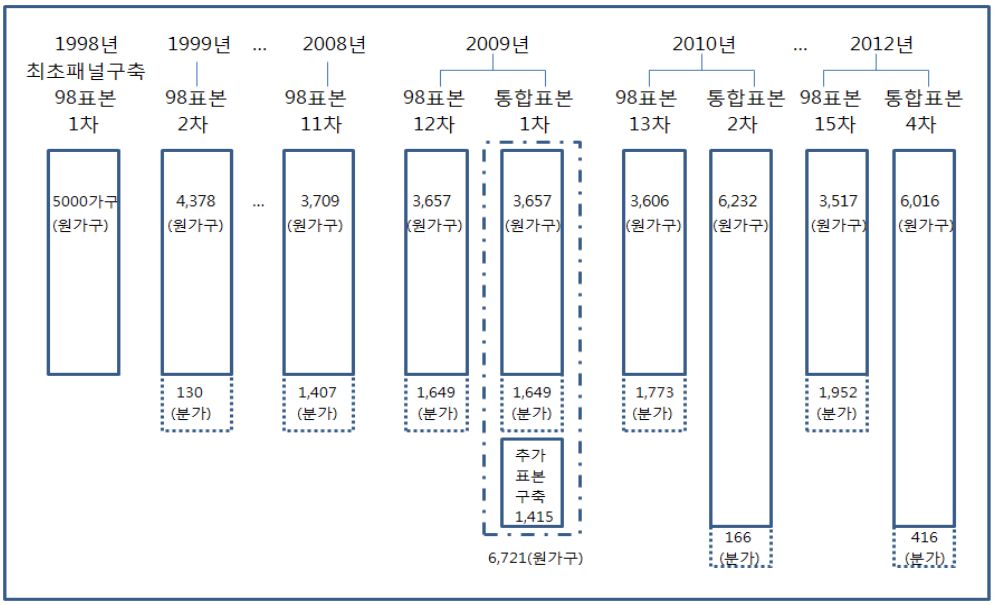
2.3.2 통합표본 개요

□ [그림 Ⅰ-1]은 KLIPS 원표본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한 것이다.

- 통합표본은 2009년 조사 당시 추가표집된 1,415가구를 포함하여, 당해연도 응답가구 전체를 원가구로 하는 표본을 의미한다.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최초 패널구축당시 응답된 5,000가구는 '98표본이며, 해당 표본은 지속적 추적조사를 통해 2012년까지 총 15차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다.
- 한편, 통합표본은 2009년(12차년도)에 기존 조사대상가구('98원표본+ '98표본 분가가구) 중 당해연도 응답가구인 5,306가구와 추가 표집된 가구인 1,415가구를 원가구로 하는 표본이다. 통합표본의 추적원칙 등은 '98표본과 동일하다.
- 통합표본가구에는 '98원표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요구된다.

〔그림 Ⅰ-1〕 통합표본의 개요

(단위 : 가구)



주 : 98표본 원가구 중, 2009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원가구가 다음해인 2010년에 조사된다면, 98표본에는 포함되지만, 통합표본의 원가구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통합표본에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통합표본은 2009년도에 조사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임에 유의해야 함.

□ 15차년도 기준 KLIPS 가구 데이터의 표본가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 ‘98원가구이면서 통합표본 원가구인 경우는 3,657였으며, ‘98원표본이지만, 12차년도 당시 비응답가구로 통합표본이 아닌 경우가 1,343가구였다.
- 98표본 분가가구 중 12차년도에 응답하여 통합표본 원표본이 된 가구는 1,649가구였다.
- 2009년~2012년까지 총 4차에 걸친 조사에서 통합표본에서 분가한 가구는 453가구인데, 이중 379가구는 ‘98표본 분가가구이기도 하다.
- 한편, 2009년 당시 추가표집된 1,415가구와 이들 가구에서 분가한 74가구는 ‘98표본에는 속하지 않는다.

〈표 Ⅰ-3〉 표본가구 구성

		통합표본			전체
		원가구	분가가구	조사대상아님	
‘98표본	원가구	3,657	0	1,343	5,000
	분가가구	1,649	379	672	2,700
	조사대상아님	1,415	74	0	1,489
전체		6,721	453	2,015	9,189

2.3.3 분가가구 및 신규조사자

□ 분가가구란 원표본가구에 속한 가구원이 혼인 등의 사유로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신생 가구를 의미한다.

- 분가가구는 원표본가구원이 1인이라도 포함된 경우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KLIPS의 경우 분가가구는 두가지 형태로, ‘98원표본가구에서 분가한 경우와 통합표본에서 분가한 경우이다. 물론 ’98원표본가구이면서 통합표본가구인 가구가 존재하므로, 이들 가구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의 분가가구가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분가가구 실사 결과

- 먼저, '98원표본을 기준으로 할 때, KLIPS 15차년도 조사성공가구(5,469가구) 중 2차년도 이후 분가하여 새롭게 조사에 진입한 비원표본가구는 1,952가구였다.
- 이들 분가가구는 매해 100가구 내외 증가하고 있으며, 15차년도 '98표본 조사성공가구의 35.7%에 달한다.
- 한편, 통합표본의 경우에는 15차년도 조사성공가구 6,432가구 중 분가가구가 41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조사자란 KLIPS에 처음으로 조사되는 개인으로서, 만15세가 되어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되었거나 전년도까지 조사되지 못하여 처음으로 조사된 개인 혹은 분가 등의 사유로 처음으로 조사된 개인을 의미한다.

- 15차년도 신규조사자는 총 422명으로, 주된 사유는 만 15세가 되어 처음 개인조사에 응답하는 경우와 혼인이나 합가로 인해 15차년도에 새롭게 조사대상자로 추가되는 경우이다.

Ⅱ. 표본설계 및 가중치

1. 표본설계방법 및 표본추출과정

1.1 표본틀과 모집단

□ 표본틀

- KLIPS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표본조사구인 전국의 21,938조사구 중에서 제주도의 263조사구와 군부지역 2,650조사구를 제외한 전국 도시지역(시의 동부 17,353조사구와 시의 읍면부 1,672조사구) 19,025조사구를 표본틀로 삼았다.

□ 모집단

- KLIPS표본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도시 거주 가구와 15세 이상 개인이다.
- 제주도와 병역의무이행자, 시설거주가구(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2 표본추출과정

□ KLIPS의 표본추출방법은 1단계에서 조사구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가구를 선정하는 2단계 층화집락계통추출법을 사용하였다.

- 이를 위해 먼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부만을 대상으로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조사구 내에서는 5가구를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하는 원칙을 정하였다.
- 예산제약의 문제로 말미암아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해 최종 조사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997년 통계청이 수행한 고용구조조사의 조사가구가 선정되도록 매칭하였다.

□ 표본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을 기준으로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층(strata)을 구분하였다. 97고특의 층화방법을 따르지만, 시부로 구성된 층만 포함된다.
- 둘째, 각 층에서 조사할 조사구수는 97고특을 따르지 않고,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에서의 전국도시조사구(19,025개) 대비 해당 지역의 도시조사구의 비율을 이용하여 추출할 도시조사구수를 결정하였다. 97고특은 인구크기비례, 실업자수의 상대오차, 예산 등을 고려한 보다 복잡한 절차에 따라 층별 조사구수를 할당하였으므로, 인구크기비례만 고려한 셈인 KLIPS와는 각 층별로 필요한 조사구수가 다르다. 이를테면, 서울지역의 경우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수보다 더 많은 조사구수가 필요하였다.
- 각 층 안에서 조사구를 추출할 때에는 집락추출의 원리가 이용되었다. 이를테면, 한 층에 100개의 조사구가 있다면 모든 조사구에서 한두가구씩 최종 조사가구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조사구만 선택해 그 안에 있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조사비용의 절감을 위해 통계청 등 대부분의 가구조사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 셋째, 각 층에서 조사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계통추출법(systemic sampling)을 이용하였다. 계통추출법은 조사구를 줄세운 다음 등간격으로 일정한 수의 조사구를 표집하는 방식이다. 조사구를 줄세우려면 번호를 할당해야 하는데, 이 번호할당방식도 97고특을 그대로 따랐다. 추출된 조사구가 97고특의 조사구였으면 조사 대상 조사구로 선정했고, 97고특의 조사구가 아닌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97고특의 조사구로 조사 대상 조사구를 대체 선정하였다.
- 넷째, 추출된 조사구 중에서 97고특에서 조사에 성공한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도의 읍면부 지역에서는 6가구, 기타지역은 5가구를 임의추출(random sampling)하였다.
  - 서울 및 경기도의 경우에는 추출하여야 할 조사구수보다 97고특에서 사용한 조사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다른 조사구에 비해 1가구를 더 추출하였으며, 추가하여 경기도의 동부의 4개 지역에서 5가구 대신 6가구를 추출하였다.
  - 참고로, 97고특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조사구의 총 가구수가 40가구

이하인 경우 40가구 전체를 모두 조사하였고, 총 가구수가 40가구 이상인 경우 약 10개 정도의 가구를 하나의 집락으로 묶어 평균 6개 정도의 집락으로 한 조사구를 분할한 후 임의추출로 1개 집락을 선택해 그 집락 북쪽에 있는 세 집락 전체를 조사했다. 나머지 지역은 한 조사구당 50가구 기준으로 위와 같이 했다.

□ 최종적으로 추출된 KLIPS의 5,000가구는 시의 동부 4,582가구 + 시의 읍면부 416가구로 구성된다.

〈표 II-1〉 최종 추출된 조사구와 조사가구

	전체 모집단		10%표본조사구		표본		추출률(%)	
	조사구	가구수	조사구	가구수	조사구	가구수	조사구	가구수
전국 시부	190,250	11,100,320	19,025	1,110,032	951	5,000	0.4999	0.0450
시의 동부	173,530	10,098,910	17,353	1,009,891	871	4,582	0.5019	0.0454
시의 읍면부	16,720	1,001,410	1,672	100,141	80	418	0.4785	0.0417

□ 2단계에서 추출한 목표표본가구 5,000가구 중 11.3%인 563가구는 이사를 하였으며, 이중 40.1%는 추적 조사에 성공하였다.

※ 최초 표본 추출 단계에서 군부는 제외되었으나, 이후 이사가구 추적 조사 과정에서 군부로의 이주 가구가 발생하여 최종 표본에는 군부지역 가구가 포함되었다.

□ 5,000가구 중 75.5%인 3,773가구를 조사 성공하였다. 강력거절, 이사 후 추적불가 등의 사유에 따라 대체된 가구는 1,227가구인데, 대체를 위해 1,976가구를 접촉하였다. 대체가구 성공률은 62.1%였다. <표 Ⅱ-2>는 대체과정을 거친 조사구별 최종 응답가구의 가구수와 가구비율이다.

〈표 II-2〉 KLIPS 1차년도 조사가구 개요

	총접촉 가구수	최초접촉 가구수	최초성공 가구수	대체가구 접촉수	대체성공 가구수	최초성공 가구비율	대체성공 가구비율
서울	2,109	1,362	954	747	408	70.0	30.0
부산	600	485	391	115	94	80.6	19.4
대구	452	320	239	132	81	74.7	25.3
인천	414	295	226	119	69	76.6	23.4
광주	197	160	134	37	26	83.8	16.3
대전	188	155	127	33	28	81.9	18.1
울산	150	120	100	30	20	83.3	16.7
경기	1,217	853	617	364	236	72.3	27.7
강원	200	130	94	70	36	72.3	27.7
충북	145	110	86	35	24	78.2	21.8
충남	152	125	107	27	18	85.6	14.4
전북	273	200	151	73	49	75.5	24.5
전남	164	125	101	39	24	80.8	19.2
경북	356	270	205	86	65	75.9	24.1
경남	359	290	241	69	49	83.1	16.9
전국	6,976	5,000	3,773	1,976	1,227	75.5	24.5

2. 가중치 부여방식 및 사용방법

2.1 98표본 가중치 산출

2.1.1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응답모형 설정

□ t차 년도에 가구원의 응답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응답과 무응답의 가능한 두 범주를 갖는 이항 확률 변수로 정의하고, 응답의 예측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고려한다. t시점의 가구원의 응답확률은 전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된다. 이는 t시점에 종단면 가중치가 원칙적으로 부여되는 대상은 t시점까지 모두 조사가 된 가구원이다. 각 조건부 응답확률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합하여 예측된다.

- 성별, 지역, 학력, 주된 활동, 만 나이의 변수들이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2.1.2 98표본 가중치 산출과정

□ t차년도의 원패널 가중치 산출은 총 3 단계(1단계 : 종단면 가구원 가중치 산출 → 2단계 : 가구 가중치 산출 → 3단계 : 횡단면 가구원 가중치 산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종단면 가구원 가중치 산출
  - 무응답 보정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가중치를 기초가중치로 정의하며 이를 이용하여 스케일 조정전의 종단면 가중치를 생성한다. 여기서 산출된 종단면 가중치에 추계인구증가율을 이용한 스케일 조정을 통해 최종 종단면 가중치가 산출된다.
- 2단계 : 가구 가중치 산출
  -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산출된 기초 가중치들의 각 가구별 평균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산출된 가구 가중치에 추계 가구 수 정보를 이용한 스케일 조정 지수를 적용하여 최종 가구 가중치가 산출된다.
- 3단계 : 횡단면 가구원 가중치 산출
  - 횡단면 가구원 가중치는 t시점에 원가구원을 한 명이상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에게 부여된다.
  - 먼저 스케일 보정 전의 가구 가중치를 각 가구원에게 부여한 다음, 이 값에 스케일 조정을 적용하여 최종 횡단면 가구원 가중치를 산출한다. 여기서 스케일 조정은 추계인구증가율이 고려된 종단면 가구원 가중치를 이용하였다.

□ 이러한 계산과정을 거친 최종 가중치 값은 <표 Ⅱ-3> 및 <표 Ⅱ-4>와 같다.

- <표 Ⅱ-3>을 통해 가구 가중치의 특성을 살펴보면, 1차년도 당시 가구당 평균적으로 2,255가구 정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5차년도는 약 2,638가구를 대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조사차수가 늘어날수록 표준편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표 II-3〉 98표본 가구 가중치 특성

차수	사례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98표본 1차	5,000	11,276,899.40	2,255.40	415.1
98표본 2차	4,503	11,453,518.50	2,543.50	561.2
98표본 3차	4,260	11,632,900.50	2,730.70	702.5
98표본 4차	4,230	11,903,117.60	2,814.00	839.6
98표본 5차	4,275	12,164,563.00	2,845.50	960.2
98표본 6차	4,571	12,401,225.50	2,713.00	1,028.10
98표본 7차	4,756	12,605,924.10	2,650.50	1,115.30
98표본 8차	4,840	12,806,854.70	2,646.00	1,228.80
98표본 9차	4,990	13,062,000.50	2,617.60	1,318.50
98표본 10차	5,059	13,265,282.30	2,622.10	1,428.40
98표본 11차	5,105	13,464,517.70	2,637.50	1,588.30
98표본 12차	5,289	13,673,811.90	2,585.30	1,721.10
98표본 13차	5,361	13,920,125.00	2,596.60	1,868.90
98표본 14차	5,380	14,182,875.90	2,636.20	2,044.00
98표본 15차	5,456	14,394,311.10	2,638.30	2,427.40

- <표 Ⅱ-4>에서는 개인 가중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 각각의 가중치가 복원하는 모집단의 수(아래 표에서의 합계치)는 동일하다.
  - • 가구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개인 가중치의 표준편차 역시 조사차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표 II-4〉 98표본 개인 가중치 특성

차수	라벨	사례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98표본 1차	가구원	13,321	30,039,370.60	2,255.00	416.8
98표본 2차	종단면	11,708	30,253,649.50	2,584.00	516.6
	횡단면	12,031	30,253,649.50	2,514.60	562.6
98표본 3차	종단면	10,797	30,507,685.30	2,825.60	683.2
	횡단면	11,194	30,507,685.30	2,725.40	699.7
98표본 4차	종단면	10,500	30,734,344.90	2,927.10	827.9
	횡단면	11,021	30,734,344.90	2,788.70	824.2
98표본 5차	종단면	10,296	30,906,207.90	3,001.80	972.5
	횡단면	10,924	30,906,207.90	2,829.20	935.9
98표본 6차	종단면	10,658	31,060,103.60	2,914.30	1,052.40
	횡단면	11,501	31,060,103.60	2,700.60	998.1
98표본 7차	종단면	10,695	31,176,988.90	2,915.10	1,187.20
	횡단면	11,654	31,176,988.90	2,675.20	1,093.90
98표본 8차	종단면	10,522	31,241,019.30	2,969.10	1,368.50
	횡단면	11,570	31,241,019.30	2,700.20	1,216.80
98표본 9차	종단면	10,591	31,392,797.40	2,964.10	1,501.50
	횡단면	11,741	31,392,797.40	2,673.80	1,299.40
98표본 10차	종단면	10,590	31,539,277.80	2,978.20	1,612.20
	횡단면	11,840	31,539,277.80	2,663.80	1,384.10
98표본 11차	종단면	10,411	31,767,102.40	3,051.30	1,909.40
	횡단면	11,720	31,767,102.40	2,710.50	1,562.60
98표본 12차	종단면	10,356	31,918,537.20	3,082.10	2,165.70
	횡단면	11,719	31,918,537.20	2,723.70	1,731.30
98표본 13차	종단면	10,133	32,066,719.20	3,164.60	2,482.90
	횡단면	11,560	32,066,719.20	2,773.90	1,923.90
98표본 14차	종단면	9,877	32,306,243.70	3,270.90	2,836.40
	횡단면	11,347	32,306,243.70	2,847.10	2,146.50
98표본 15차	종단면	9,861	32,452,266.60	3,291.00	3,552.40
	횡단면	11,428	32,452,266.60	2,839.70	2,541.70

2.2. 통합표본 가중치 산출

2.2.1. 통합표본 구축 현황

□ 종단적 조사가 진행되면서 표본탈락(panel attrition)이 발생한다. 표본탈락은 가구차원에서 발생하거나 개인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도 발생할 수 있다. 항목무응답의 경우는 가중치부여 방법보다는 보정(imputation)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 결혼, 이민 등으로 인해 표본가구에 새로운 개인이 포함되거나 탈락하기도 하며, 표본가구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구원인 비표본가구원(nonsample household)이 탄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종단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가구원 구성이 달라지게 되어 종단면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구의 개념이 모호해진다.

2.2.2 통합표본의 1차 가중치 산출 결과

□ 통합표본 가중치 산출 과정은 2.1에서 설명된 98표본 가중치 산출 방안과 그 순서와 구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 통합표본은 98표본과 달리 전국 모집단을 대표하므로 98표본에서의 스케일 조정 대신에 인구수 및 가구수에 대한 추계자료를 활용한 사후층화가 고려되었다.

□ 통합표본 구축 시점인 1차년도에는 개인의 종단가중치와 횡단가중치가 같다고 가정한다. 2009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사후조정된 값을 통합표본 1차 개인 종단가중치로 정의한다. 또한 통합표본의 가구가중치도 2009년 추계가구로 사후조정한다.

2.2.3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응답 모형 설정

□ 통합표본에서의 응답모형도 98표본과 동일하므로 기본적인 응답 모형 형태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 응답 모형에 대한 설명변수로 성별, 지역, 학력, 주된 활동, 만나이, 추가패널여부(통합표본 구축 시 1998년 패널인지 2009년 패널인 여부)를 분석에 이용한다.
- 일부 차수에서 응답자의 학력, 주된 활동, 만나이에 대해 무응답이 존재한다. 응답 모형 설정 과정에서 설명변수의 무응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응답이 속한 다른 설명변수의 평균 응답률로 대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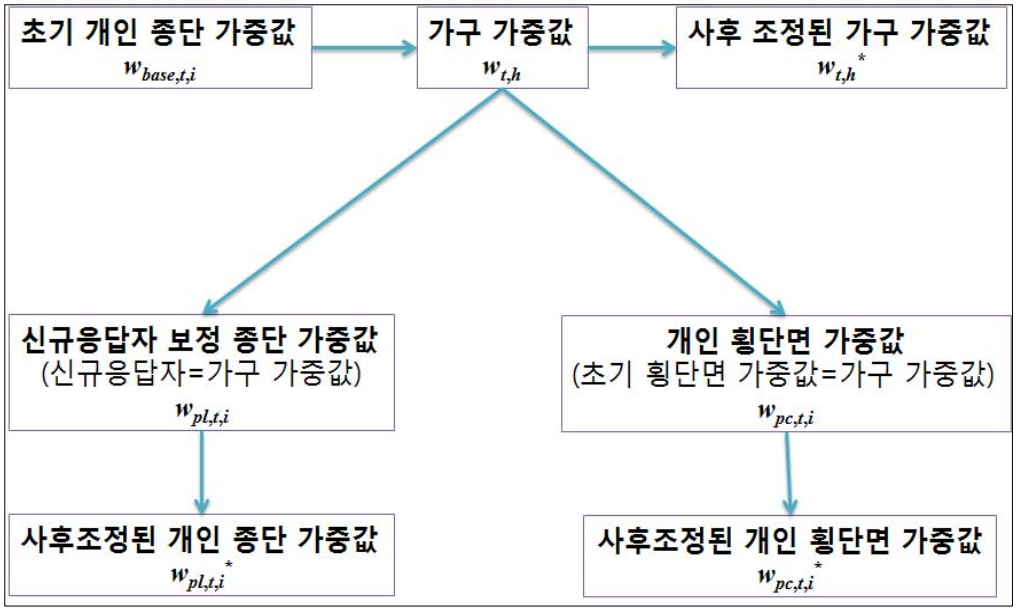
2.2.4 통합표본 가중치 산출과정

□ 통합표본의 가중치 산출은 기본적으로 3단계(1단계 : 종단면 가구원 가중치 산출 → 2단계 : 가구 가중치 산출 → 3단계 : 횡단면 가구원 가중치 산출)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 1단계 : 종단면 가구원 가중치 산출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가중치를 기초가중치로 정의하며 이를 이용하여 종단면 가구원 가중치를 생성한다. 여기서 산출된 종단면 가중치를 최종적으로 통합년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혹은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사후조정하며 이를 최종 개인 종단면 가중값으로 정의한다.
- 2단계 : 가구 가중치 산출
  - 가구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산출된 기초 가중치들의 각 가구별 평균으로 정의된다. 이 가중치에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가구수 및 추계기구수 정보를 이용하여 사후조정한 가구 가중치를 최종적으로 계산한다.
- 3단계 : 횡단면 가구원 가중치 산출
  - 횡단면 가구원 가중치는 t시점에 원가구원을 한 명이상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에게 부여된다.
  - 먼저 사후조정전의 가구가중치를 각 가구원에게 부여한 다음, 이 값에 사후조정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사후조정은 통합표본 2차, 3차 및 4차의 횡단면 가구원 가중치에 적용되는데, 사후조정의 경우 2차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수이며 3차와 4차의 경우에는 각 년도의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 다음은 통합표본에서의 가중치 산출 과정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그림 II-1〕 통합표본에서의 가중치 산출 과정



□ 이러한 계산과정을 거친 최종 가중치 값은 <표 Ⅱ-5> 및 <표 Ⅱ-6>과 같다.

- <표 Ⅱ-5>를 통해 가구 가중치의 특성을 살펴보면, 1차년도 당시 가구당 평균적으로 2,537가구 정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5차년도는 약 2,685가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조사차수가 늘어날수록 표준편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표 II-5〉 통합표본 가구 가중치 특성

차수	사례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통합표본 1차	6,721	17,048,965	2,536.67	1,519.62
통합표본 2차	6,630	17,339,422	2,615.30	1,780.80
통합표본 3차	6,618	17,687,001	2,672.56	1,918.55
통합표본 4차	6,686	17,950,675	2,684.82	2,006.57

- <표 Ⅱ-6>에서는 개인 가중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통합표본 2차와 3차의 종단면 가중치와 횡단면 가중치가 차이가 나타는데, 이는 통합표본 2차에서는 제주도에 15~19세 조사대상자가 없어서 사후조정에 반영을 못한 결과 이며, 통합표본 3차에서는 응답자 중 연령이 결측으로 사후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설명 변수의 자료가 완전한 경우인 통합 4차는 종단면 가중치와 횡단면 가중치가 일치한다.
  - 가구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개인 가중치의 표준편차 역시 조사차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표 II-6〉 통합표본 개인 가중치 특성

차수	라벨	사례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통합표본 1차	횡단면[1]	14,489	40,077,120	2,766.04	1,694.66
통합표본 2차	종단면	14,064	40,172,409	2,856.40	2,013.43
	횡단면	14,064	40,203,788	2,858.63	1,998.12
통합표본 3차	종단면	13,831	41,975,159	3,034.86	2,301.58
	횡단면	13,831	42,008,528	3,037.27	2,225.72
통합표본 4차	종단면	13,929	42,445,378	3,047.27	2,486.67
	횡단면	13,929	42,445,378	3,047.27	2,340.61

1) 2009년 시도 연령별 추계인구로 조정한 통합 1차 종단면-횡단면 가중치(종단면과 횡단면 같음으로 가정)

2.3. 가중치 변수명 및 제공형태

□ 98표본 및 통합표본 가중치의 변수명은 다음과 같다.

〈표 II-7〉 가중치 변수명

자료명	가중치	
	98표본	통합표본
개인용	w__p_l(종단면가중치) w__p_c(횡단면가중치) 단, 1차 98표본에는 w01p라는 하나의 가중치만 있음에 주의	sw__p_l(종단면가중치) sw__p_c(횡단면가중치) 단, 12차 통합표본에는 sw12p라는 하나의 가중치만 있음에 주의
가구용	w__h	sw__h

2.4. 가중치 사용 방안

□ 기본적으로 종단면 가구원 가중치는 종단면 가구원 단위 분석을 위해서, 횡단면 가구원 가중치는 횡단면 가구원 단위 분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구 가중치는 가구 단위 분석을 위해 사용한다.

- 종단면 가구원 단위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첫 번째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되는 경우이다. 혼합선형모형이 해당되며, 이 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각 연도별 자료는 세로 결합을 통해 병합되고 병합된 자료를 통해 고려된 모형이 적합될 수 있다.
  - 두 번째는 각 가구원 단위 연도별 변화의 평균 추정과 같은 net change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이다. 이 경우 분석 대상이 되는 가구원은 분석 대상 연도에 모두 응답한 가구원이며 이 경우 제공된 종단면 가중치에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한 한 방법은 고려되는 연차들의 가중치 중 최근 생성된

종단면 가중치를 분석 대상이 되는 가구원 수에 맞추어서 스케일 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매번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차별 자료에 따라 새로운 가중치를 생성해야 한다.

- 횡단면 가구원 가중치 및 가구 가중치의 사용여부는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와는 달리 직관적이며 이는 각 연도별 모집단 총합, 모비율, 모평균과 같은 관심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기본적으로는 종·횡단면 가구원 가중치 그리고 가구 가중치는 분석의 목적, 특별히 분석 결과를 적용하게 되는 추론의 대상 모집단의 정의에 따라 타당하게 사용되어져야 하고 실제 패널 자료는 확률 표본 추출법에 의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가중치의 사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자료의 주요 특성

1. 설문지 구성

□ KLIPS의 설문지는 크게 가구용과 개인용으로 나뉘어진다. 개인용 설문은 취업자와 미취업자용 설문지로 나뉘어지며, 취업자용 설문은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용 설문으로 나뉘어진다.

□ 10차년도 자료부터는 이전차수 변수명을 일치시킨 자료가 제공됨에 따라, 설문지 또한 통합설문지 형태로 제공된다. 통합설문지는 1차년도부터 11차년도까지 설문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는 하나의 설문지로, 각 설문문항별로 해당 변수명과 응답차수가 표시되어 있다. 통합설문은 크게 가구용 설문과 개인용 설문, 부가조사 설문으로 구분되며, 개인용설문은 유형1~유형8, 취업자용 설문과 미취업자용 설문으로 구성된다. 통합설문지는 데이터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설문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실사에서 사용하는 설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실제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은 1998년 1차년도에는 가구용,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설문이었다. 1999년 2차년도 조사는 가구용 설문과 개인용 설문, 신규용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용 설문은 유형설문과 개인공통 설문으로 구성됐다. 2000년 3차년도에는 가구용, 개인용, 신규용, 부가조사(청년층)가 실시되었으며, 개인용 설문은 유형설문과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설문으로 구성됐다. 2001년 4차년도 이후로는 가구용, 개인용(유형설문, 취업자, 미취업자용), 신규용, 부가조사 설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차수별 부가조사는 4차년도에는 건강과 은퇴, 6차년도 중고령자, 7차년도 근로시간과 여가, 8차년도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9차년도 청년용, 10차년도 고용형태, 11차년도 교육에 관한 내용이었다.

□ 1999년 2차년도 조사부터 개인의 노동시장의 진입과 탈퇴 및 이동을 면밀하게 관

찰할 수 있는 일자리별 유형 설문을 개발하였다. 유형설문은 지난 조사시의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지속여부를 토대로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가구설문이 가구에 관한 정보를 담고 개인설문이 개인 정보를 담고 있다면 유형설문은 개인이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응답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일자리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

〈표 III-1〉 15차년도 KLIPS 설문지의 구성

가구용 설문		
개인용 설문 (기존응답자 및 신규조사자)		유형 ①~⑧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부가조사 설문	4차년도	건강과은퇴
	5차년도	-
	6차년도	중고령자
	7차년도	근로시간과 여가
	8차년도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9차년도	청년용
	10차년도	고용형태
	11차년도	교육

〈표 III-2〉 1-15차년도 KLIPS 응답자용 설문지의 구성

<table>
<tr><th></th><th colspan="3">구 성</th></tr>
<tr><td rowspan="2">1차년도(1998)</td><td colspan="3">가구용 설문</td></tr>
<tr><td colspan="2">개인용 설문</td><td>임금근로자 개인
비임금근로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td></tr>
<tr><td rowspan="3">2차년도(1999)</td><td colspan="3">가구용 설문</td></tr>
<tr><td colspan="2">개인용 설문</td><td>유형 ①~⑧
개인공통</td></tr>
<tr><td colspan="3">신규용 설문</td></tr>
<tr><td rowspan="4">3차년도(2000)</td><td colspan="3">가구용 설문</td></tr>
<tr><td colspan="2">개인용 설문</td><td>유형 ①~⑧
임금근로자 개인
비임금근로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td></tr>
<tr><td colspan="3">신규용 설문</td></tr>
<tr><td colspan="3">부가조사 설문(청년층)</td></tr>
<tr><td rowspan="12">4차년도(2001)
~
15차년도(2012)</td><td colspan="3">가구용 설문</td></tr>
<tr><td colspan="2">개인용 설문</td><td>유형 ①~⑧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td></tr>
<tr><td colspan="3">신규용 설문</td></tr>
<tr><td rowspan="8">부가조사
설문</td><td>4차년도</td><td>건강과은퇴</td></tr>
<tr><td>5차년도</td><td>없음</td></tr>
<tr><td>6차년도</td><td>중고령자</td></tr>
<tr><td>7차년도</td><td>근로시간과 여가</td></tr>
<tr><td>8차년도</td><td>노동조합과 노사관계</td></tr>
<tr><td>9차년도</td><td>청년용</td></tr>
<tr><td>10차년도</td><td>고용형태</td></tr>
<tr><td>11차년도</td><td>교육</td></tr>
</table>

□ <표 Ⅲ-3>은 일자리 지속을 통한 유형설문의 판별 방법이다.

- 지난 조사시 보유했고 현재에도 지속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는 유형 ①, 비임금근로자는 유형③의 설문을 받는다.
- 지난 조사시 보유했고 현재는 지속되지 않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는

유형②, 비임금근로자는 유형④의 설문을 받는다.

- 지난 조사 이후 시작되었고 현재도 지속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는 유형⑤, 비임금근로자는 유형⑦의 설문을 받으며,
- 지난 조사 이후 시작되었고 현재 조사 이전에 끝난 일자리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는 유형⑥, 비임금근로자는 유형⑧의 설문을 받는다.

〈표 III-3〉 일자리 지속을 통한 유형설문의 판별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여부	종사상 지위	현재 계속 여부	유형
있었다	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①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②
	비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③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④
없었다	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⑤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⑥
	비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⑦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⑧

⊙User notes : 유형 설문지는 개인단위가 아닌 일자리 단위로 성립되는 설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일자리 경력에 따라 복수의 유형 설문이 가능하다. 유형설문의 내용 중 현재 지속되는 주된 일자리의 정보는 개인 데이터의 "주된 일자리'에 수록되며, 유형설문의 모든 내용은 직업력 자료에 수록된다.

2. 자료 구성

□ KLIPS 조사는 설문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그 구성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구성(가공)하였다. 이중 가구용 설문과 부가조사 설문은 각각 가구용 자료, 부가조사 자료와 그 구조가 거의 일치한다. 신규용설문과 개인용 설문 -유형설문과 개인공통(취업자용, 미취업자용)

설문-의 내용은 개인용 자료와 직업력 자료로 구성된다.

□ KLIPS의 각 연도별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가구자료 : 모든 조사년도별로 만들어지며 가구조사용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된다.
- 개인자료 : 모든 조사년도별로 만들어지며, 유형설문지,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설문지, 신규조사자용 설문지 등을 토대로 구성된다.
- 부가조사자료 : 3차~4차년도 자료와 6차~11차년도 자료에 포함되며, 부가조사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된다.
- 직업력자료 : 직업력 자료는 유형 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개인의 모든 직업력(work history)를 누적한 형태의 자료이므로 다른 자료들과는 달리 연도별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자료만이 존재한다.

※ 1-11차년도 Release 자료부터는 개인자료에 신규설문의 응답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개인응답자의 회고적 자료, 즉 부모의 학력, 14세 당시의 성장지 등과 같은 변수들은 1차년도에는 모든 응답자의 값이 존재하지만, 2차년도 이후로는 신규응답자들에 한해서 응답내용이 존재한다.

〈표 III-4〉 1-15차년도 KLIPS 자료의 구성

			1차 (1998)	2차 (1999)	3차 (2000)	4차 (2001)	5차 (2002)	6차 (2003)	7차 (2004)	8차 (2005)	9차 (2006)	10차 (2007)	11차 (2008)	12차 (2009)	13차 (2010)	14차 (2011)	15차 (2012)
가구용 자료			KLIPS 01H	KLIPS 02H	KLIPS 03H	KLIPS 04H	KLIPS 05H	KLIPS 06H	KLIPS 07H	KLIPS 08H	KLIPS 09H	KLIPS 10H	KLIPS 11H	KLIPS 12H	KLIPS 13H	KLIPS 14H	KLIPS 15H
개인용 자료			KLIPS 01P	KLIPS 02P	KLIPS 03P	KLIPS 04P	KLIPS 05P	KLIPS 06P	KLIPS 07P	KLIPS 08P	KLIPS 09P	KLIPS 10P	KLIPS 11P	KLIPS 12P	KLIPS 13P	KLIPS 14P	KLIPS 15P
개인공통	유형 ①~⑧		×	○	○	○	○	○	○	○	○	○	○	○	○	○	○
	취업자	임금근로	○	○	○	○	○	○	○	○	○	○	○	○	○	○	○
		비임금근로	○		○												
	미취업자		○		○	○	○	○	○	○	○	○	○	○	○	○	○
	신규조사자		×	○	○	○	○	○	○	○	○	○	○	○	○	○	○
부가조사 자료			×	×	KLIPS 03A	KLIPS 04A	×	KLIPS 06A	KLIPS 07A	KLIPS 08A	KLIPS 09A	KLIPS 10A	KLIPS 11A	×	×	×	×
직업력 자료			KLIPS15W														

3. 조사내용

3.1 조사내용

□ KLIPS는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설계된 조사이므로 기본적으로 매년 동일한 내용의 설문이 반복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조사년도별로 조사 내용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 <표 Ⅲ-5>는 1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된 설문 내용이다.

〈표 Ⅲ-5〉 1차년도~15차년도 조사 내용 (공통) - 응답자용 설문 기준

설문지 구성	내 용
가구용	▪ 가구원의 인적 사항 / ▪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사항 ▪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사항 ▪ 주거 관련 사항 / ▪ 자녀교육 및 자녀 보육 관련 사항 ▪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과 부채 ▪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예비조사	▪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여부 ▪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여부
유형①, 유형② 유형⑤, 유형⑥	▪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 ▪ 일자리 형태 및 규모 ▪ 일자리의 노동조합 ▪ 근로계약관련 사항 ▪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 근로시간관련 사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임금관련 사항 ▪ 구직활동 관련 사항
유형③, 유형④ 유형⑦, 유형⑧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 일자리의 근로시간 ▪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 구직활동관련 사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창업과정의 어려움
취업자 개인	▪ 경제활동상태 ▪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근로시간관련 사항 ▪ 직무만족도 ▪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 정규교육 관련 사항 ▪ 혼인상태 ▪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 고용형태
미취업자 개인	▪ 경제활동상태 ▪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 정규교육 관련 문항 ▪ 혼인상태 ▪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신규	▪ 개인 설문의 모든 내용 + 회고적 일자리

□ <표 Ⅲ-6>은 모든 응답차수에 걸쳐 각 개인별로 한번만 응답하도록 한 설문을 정리한 것이다. 즉 특정년도에 모든 개인응답자에게 질문한 후, 이후 신규응답자만 조사한 문항들이다.[2)]

〈표 III-6〉 개인별 한번만 조사하는 내용 - 응답자용 설문 기준

설문 내용	응답 차수 및 응답대상
▪ 교육력	1차년도, 4차년도는 모든 개인응답자 다른 차수는 신규응답자
▪ 혼인력	1차년도, 2차년도는 모든 응답자의 생애 전체 혼인력 3차이후 모든 응답자 변화를 중심으로 조사 3차이후 신규응답자 최초결혼이후 혼인력을 모두 조사
▪ 출산력	1차년도 모든 응답자 2차 이후 신규응답자
▪ 출생지 ▪ 성장지 ▪ 성장기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 종교 ▪ 군복무	1차년도 모든 응답자 2차 이후 신규응답자 ▪ 종교(11차년도까지는 신규응답자, 12차 이후는 모든응답자)
▪ 형제자매	6차년도 모든 응답자 7차 이후 신규응답자
▪ 성장기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4차년도 모든 응답자 5차 이후 신규응답자
▪ 성장기 경제적형편	8차년도 모든 응답자 9차 이후 신규응답자
▪ 만 15세 이후 일자리 경력	1차년도 모든 응답자 2차년도 이후 신규응답자

□ <표 Ⅲ-7>은 각 차수별로 부가조사와는 별도로 가구용 혹은 개인용 설문에서 한시적으로 질문한 문항들이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응답자에게 재질문을 실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표 III-7〉 각 차수별 차별된 조사 내용 - 변수명 일치 자료 기준

조사차수	해당자료	조사내용
1차년도	가구용	▪ 최근의 경제위기(IMF)에 관한 견해 ▪ (가구원) 전공분야 ▪ 탁아모관련문항 ▪ 사회보험 수급관련문항
	개인용	▪ 부업관련 문항 ▪ 취업 중 구직활동 ▪ 경제위기 후 변화사항 ▪ 취업 중 구직어려움
2차년도	가구용	▪ (가구원) 전공분야 ▪ (가구원) 건강상태
	개인용	▪ 취업 중 구직활동 ▪ 취업 중 구직어려움
3차년도	가구용	▪ 탁아모관련문항
	개인용	▪ 고용계약 관련문항 ▪ 이직 관련문항 ▪ 사회적 지위 및 인맥 ▪ 취업중 구직활동 ▪ 취업 중 구직어려움
4차년도	가구용	▪ 탁아모관련문항
	개인용	▪ 취업 중 구직어려움 ▪ 창업훈련 관련 문항 ▪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운영관련 문항
5차년도	개인용	▪ 취업 중 구직어려움 ▪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장 가치 관련 문항 ▪ 입시성적 관련 문항
6차년도	개인용	▪ 학업성취 관련 문항 ▪ 질병관련 문항
7차년도	개인용	▪ 차별관련 문항 ▪ 리스크 관련문항
8차년도	개인용	▪ 근로시간 단축 (8차이후 지속)
9차년도	개인용	▪ 장애관련문항
10차년도	가구용	▪ 자녀의 영어교육관련문항 ▪ 유동성제약관련문항 ▪ 자동차 구입 및 가치
	개인용	▪ 어학연수 및 영어능력관련문항
11차년도	가구용	▪ 현재 거주지 이사 동기 문항
	개인용	▪ 사업체 주된장소 ▪ 사업자 등록증 여부 ▪ 산재보험가입여부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 국민연금 가입형태 ▪ 금연, 금주 일자 ▪ 고용형태
12차년도~15차년도	가구용	▪ 농림업 가구 해당 여부 ▪ 근로장려세제 지원여부 및 금액
	개인용	▪ 농립업 종사 여부 ▪ 농림업 관련 문항 ▪ 부가급여/복리후생 문항 중 본인 휴가사용일수

Ⅳ. 변수 가이드

□ KLIPS 11차년도 자료부터는 변수명이 차수에 걸쳐 일치된 형태로 제공된다.

□ 예를들어, 기존 자료의 경우에는 '개인응답자의 종사상지위' 변수가 다음과 같이 차수별로 조금씩 달랐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p01026	p02351	p03363	p04746	p05748	p06741	p07736	p08736	p09736

□ 그러나, 10차년도 자료 이후로는 이들 변수명이 각 차수별로 모두 p_ _0314 로 일치되어 제공된다. 이때 중간의 _ _에는 해당 차수가 들어가므로, 15차년도의 경우 개인응답자의 종사상 지위는 p150314이며, 1차년도의 경우에는 p010314이다.

□ 변수명이 부여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예: h 15 01 41

설문종류 조사차수 SET번호 변수번호

- 설문종류 : 가구용의 경우 h, 개인용의 경우 p, 부가조사의 경우 A이며, 직업력 데이터는 j로 시작한다. 단, 10차년도 자료 이후로는 별도의 신규용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개인용에 포함되어 제공된다.
- 조사차수 : 설문종류 다음 두 자리는 해당하는 조사 차수를 의미한다.
- set 번호 : 여러 개의 관련 문항을 하나의 set으로 구성하여, 관련 문항들은 동일한 set 번호를 갖는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과 관련된 문항은 set 번호가 21~22번이므로, 해당 set을 찾으신 후 해당변수를 찾으시면 된다. (set번호 리스트는 노동패널 홈페이지를 참조.)
- 변수번호 : 해당하는 변수의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 KLIPS 자료의 변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키(key)변수 : KLIPS는 매년 동일 가구와 동일 개인을 반복 추적조사하기 때문에 패널구성원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key변수가 부여된다. KLIPS 자료는 여러 가지 자료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간 연결을 할 때 key변수는 유용하게 사용된다. key변수의 예로 hhid, pid 등을 들 수 있다.
- 그 외의 주제별 변수 : 키변수와 구성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로 설문지의 내용을 반영한 변수들이다.

⊙User notes : KLIPS 자료의 변수명은 자료별로 다음과 같은 고유의 영문 이니셜을 갖고 있으며, 영문 이니셜 뒤에는 일련의 숫자로 구성된다.

h___ : 가구자료 p____ : 개인자료
j____ : 직업력 자료 a___ : 부가조사자료

1. key변수의 이해와 이용

□ KLIPS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ey변수를 포함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각 자료별 key변수를 고유번호와 그 외의 key변수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그 외의 key변수들로는 자료를 사용할 때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구성변수와 인구학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KLIPS의 key변수들은 해당 년도마다 동일한 형태를 띠는 것도 있지만, 조사 년도에 따라 약간씩 다른 형태를 띠는 변수들도 있다. 따라서 주요한 인구학적 key변수들의 1-15차년도 변수명을 정리하고 이 변수들의 이용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1 가구용 key변수

1.1.1 가구의 고유번호

□ KLIPS 가구용 자료에 담겨 있는 가구의 고유번호는 15차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차수별로 hhid01 ~ hhid15이며, 또한 orghid98, orghid09는 패널고유가구번호가 있다.

- orghid98(98표본)는 1998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년도의 가구 번호를 의미하며, orghid09(통합표본)은 2009년에 표본추가로 구축된 1,415가구를 포함하여 2009년 당시 응답 가구 전체의 원가구번호를 의미한다. 나머지 가구의 고유번호인 hhid01 ~ hhid15는 해당 년도의 가구번호를 의미한다.
- KLIPS 조사의 응답 가구는 매년 고정적이지 않으며, 분가 혹은 합가 등의 이유로 새로운 가구가 생성되거나 혹은 기존의 가구가 소멸되는 등의 변화를 보인다.
- 따라서, 당해연도 가구번호가 missing인 경우는 당해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가구를 의미한다. 단, hhid의 경우에는 분가가구가 분가이전에 어떤 원가구에 소속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응답여부에 관계없이 값이 입력되어 있다.

〈표 Ⅳ-1〉 가구의 고유번호

KLIPS01H	orghid98		hhid01														
KLIPS02H	orghid98		hhid01	hhid02													
KLIPS03H	orghid98		hhid01	hhid02	hhid03												
KLIPS04H	orghid98		hhid01	hhid02	hhid03	hhid04											
KLIPS05H	orghid98		hhid01	hhid02	hhid03	hhid04	hhid05										
KLIPS06H	orghid98		hhid01	hhid02	hhid03	hhid04	hhid05	hhid06									
KLIPS07H	orghid98		hhid01	hhid02	hhid03	hhid04	hhid05	hhid06	hhid07								
KLIPS08H	orghid98		hhid01	hhid02	hhid03	hhid04	hhid05	hhid06	hhid07	hhid08							
KLIPS09H	orghid98		hhid01	hhid02	hhid03	hhid04	hhid05	hhid06	hhid07	hhid08	hhid09						
KLIPS10H	orghid98		hhid01	hhid02	hhid03	hhid04	hhid06	hhid06	hhid07	hhid08	hhid09	hhid10					
KLIPS11H	orghid98		hhid01	hhid02	hhid03	hhid04	hhid06	hhid06	hhid07	hhid08	hhid09	hhid10	hhid11				
KLIPS12H	orghid98	orghid09	hhid01	hhid02	hhid03	hhid04	hhid06	hhid06	hhid07	hhid08	hhid09	hhid10	hhid11	hhid12			
KLIPS13H	orghid98	orghid09	hhid01	hhid02	hhid03	hhid04	hhid06	hhid06	hhid07	hhid08	hhid09	hhid10	hhid11	hhid12	hhid13		
KLIPS14H	orghid98	orghid09	hhid01	hhid02	hhid03	hhid04	hhid06	hhid06	hhid07	hhid08	hhid09	hhid10	hhid11	hhid12	hhid13	hhid14	
KLIPS15H	orghid98	orghid09	hhid01	hhid02	hhid03	hhid04	hhid06	hhid06	hhid07	hhid08	hhid09	hhid10	hhid11	hhid12	hhid13	hhid14	hhid15

1.1.2. 그 외의 key 변수

□ KLIPS의 가구용 자료에는 가구의 고유번호 외에 key가 되는 구성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유번호 외에 key가 되는 변수는 hwave01 ~ hwave15, hwaveent, sample98, sample09 등이다.

- 여기서 hwave는 각 해당년도의 응답여부를 의미한다. 즉 hwave01은 KLIPS 1차년도(1998년) 가구의 응답여부이며 hwave02는 KLIPS 2차년도(1999년) 가구의 응답 여부이다. sample98(98표본) 및 sample09(통합표본)는 원가구 여부를 의미한다.

□ KLIPS 가구용 자료는 당해년도 응답여부와 관계없이 한번이라도 응답한 적이 있는 가구라면 가구용 자료상에 하나의 case로 입력된다.

- 예컨대, 15차년도 가구용 자료는 총 9,189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15차년도에 응답한 가구는 6,753가구(hwave15=1)이다.

1.2 개인용 key변수

1.2.1 개인의 고유번호

□ KLIPS 개인용 자료에 담겨 있는 개인의 고유번호관련 변수는 다음의 <표Ⅳ-1>과 같다. 개인용 자료에서는 key변수로 개인의 고유번호인 PID와 각 해당년도의 가구번호와 가구원 번호가 있다. PID는 KLIPS 응답 대상인 개인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년도와 상관없이 불변하는 번호이다.

- PID는 개인이 처음으로 응답한 해의 가구번호와 그 가구에서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즉,

  PID = 개인이 처음으로 응답한 해의 가구번호*100 + 몇 번째 가구원

  이다.

⦿User notes : 가구 및 개인의 고유번호는 자료간 연결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KLIPS자료의 자료간 연결은 다음의 네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자료간의 연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구자료와 개인자료의 연결 : 해당년도의 가구번호를 통해서 두 자료를 연결한다.

ex) 15차년도 가구와 개인 자료의 연결시 hhid15을 이용

나. 가구자료의 시계열 연결 : hhid**를 이용하여 두 자료를 연결한다.

ex) 15차년도 가구와 14차년도 가구 자료의 연결시 hhid15과 hhid14를 이용.

다. 개인자료의 시계열 연결 : pid를 이용하여 두 자료를 연결한다.

라. 개인자료와 개인자료(부가자료)의 연결 : pid를 이용하여 두 자료를 연결한다.

자세한 사항은 FAQ Q3, Q4, Q5, Q7참조 .

1.2.2 그 외의 key 변수

□ 개인용 자료의 고유번호 외의 key가 되는 변수로는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학력, 1차 원가구원 여부, 취업상태, 고용형태, 근로시간형태, 종사상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자료의 사용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변수들이다. 이 변수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변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구자료에서 파악되지만 자료상으로는 개인자료에도 key변수로 들어가 있다.
- 이때 가구주란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가구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다른 가구원이 가구주로 대체된다. 따라서 가구주와의 관계의 변수값은 조사 년도에 따라 동일개인에 대하여 고정적이지 않다.
- KLIPS자료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변수를 통하여 한 가구의 가족 구성형태 및 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는 p**0102이며, 응답항목 값은 코드북의 open code를 참조하면 된다.

◉ 연령

- KLIPS 자료에서 연령을 구성할 수 있는 변수로는 생년월일을 이용하는 방법과 만나이를 이용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생년월일은 지난 조사시 응답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을 거쳐 자료가 구성된다. 연령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생년월일과 만나이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각 차수 변수명은 <표 Ⅳ-2>와 같다.

〈표 Ⅳ-2〉 1-15차년도 연령 변수

		변수명
생년월일	양(음)력여부	P**0103
	생년	P**0104
	생월	P**0105
	생일	P**0106
만나이		P**0107

◉ 혼인상태

- 혼인상태는 개인 및 신규설문 모두에서 조사되었다. 다만, 조사설계시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는 혼인과 관련한 문항에 변동이 많았다. 1차년도와 2차년도에는 혼인력 형태의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3차년도의 경우에는 신규응답자에게만 물어보았고, 개인용 설문의 경우에는 변경여부만을 확인하였다. 또한 4차년도에는 혼인상태를 가구용 설문에 질문하였다. 그러나, 데이터 상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차수별로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된 혼인상태 변수가 들어있다. 또한 혼인상태의 변화내용과 변화시기가 보정된 변수가 제공된다.
- 혼인상태 변수는 P**5501이며, 응답항목은 (1) 미혼, (2) 기혼유배우, (3) 별거, (4)이혼, (5) 사별을 의미한다.
- 3차년도와 4차년도의 혼인상태는 이전차수 응답내용이나 다음차수 응답내용을 끌어와 붙여서 생성시킨 값으로, missing 값이 다소 존재한다.

◉ 학력

- KLIPS의 학력 변수는 설문지상 가구용 조사에서 질문되고 있으며 자료상으로는 가구자료와 개인자료에서 모두 제공된다. 학력변수는 학교, 이수여부, 학년 변수로 구성되므로 범주형과 연속형 변수로의 구성이 모두 가능하다.
- 학력 관련 변수는 년도별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1, 2차년도에는 학교, 이수여부, 학년, 전공계열의 네 가지 변수로 구성되었으나 3차년도 이후로는, 전공계열 변수는 삭제되었다. 대신 4차년도 개인용 자료부터는 개인의 정규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 1, 2차의 전공 계열의 자료 구성은 약간 다르다. 1차년도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개인에 한하여 고등학교 전공계열을 조사했으며, 2차년도에는 고등학교와 전문대 이상에 재학중인 개인을 대상으로 전공계열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1, 2차년도의 전공계열의 변수값은 다르다. 또한 1차년도 자료의 학력은 최고 대학원 석사까지 조사하였으나 2차년도부터는 대학원 박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 '학년'은 졸업을 제외한 수료, 중퇴, 재학중, 휴학중인 개인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였다.
- 한편 졸업・수료・중퇴 시기를 묻는 질문이 5차년도부터 가구용 설문에 추가되었다.

〈표 Ⅳ-3〉 각 연도별 학력 변수

	변수명	응답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15차
학교	p**0110	○				
이수 여부	p**0111	○				
학년	p**0112	○				
전공계열	p**0113	○	○	-	-	-
졸업・수료・중퇴 시기(년)	p**0114	-	-	-	-	○
졸업・수료・중퇴 시기(월)	p**0115	-	-	-		○

⦿User notes : 학력변수의 구성 예는 다음과 같다.(11차년도 기준)

예1) 연속형(교육년수)

p0110(학력)=5, p**0111(이수여부)=4, p**0112(학년)=2**의 값을 갖는 개인의 학력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따라서 이 개인의 교육년수는 9+2=11이 된다.

예2) 범주형

p0110(학력)=4, p**0111(이수여부)=1**의 값을 갖는 개인의 학력은 중졸로 연구자가 임의의 값을 부여하면 된다.

◉ 1차 원가구원 여부(98표본)

- 1차 원가구원이라 함은 1차년도 표본으로 지정된 가구에 속한 개인을 뜻한다. KLIPS는 원가구로 선정된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개인을 기본적인 조사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분가 혹은 혼인 등의 이유로 개인이 탈락 혹은 진입하기 때문에 '비원가구원'이 개인 조사 대상으로 편입된다.
- '원가구원'은 신규용 자료에 응답한 개인 중에도 존재한다. 즉, 1차 원가구원이면서 1차 조사 당시 개인용 조사가 누락된 개인 혹은 만15세가 되어 새로 조사된 개인은 원가구원에 속한다.
- 변수명은 p**orig98이다.

◉ 1차 원가구원 여부(통합표본)

- 변수명은 p**orig09이다.

⦿User notes : KLIPS는 표본의 대표성을 갖는 동일 가구, 동일 개인을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상의 이유로 원가구원 여부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분석대상을 원가구원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다. 다만 가중치를 사용할 경우 이런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된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비원가구원에 대해 '0'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한편, 횡단면 가중치의 경우에도 비원가구원은 동일한 가구내의 원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가중치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 취업/미취업 상태

- KLIPS 자료에서는 다음의 정의에 따라 개인의 취업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 취업자 : (1) 조사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2)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 가족종사자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3)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사고, 휴가 또는 연가, 노사분규, 조업 중단 등으로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휴직자
  - 미취업자 :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일거리나 직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경우, 또는 가족이나 친지가 사업주인 사업체에서 평소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으로 일을 도운 경우를 말한다.
- 각 차수별로 설문의 형태는 조금씩 달랐지만, 11차년도 자료에서는 모두 동일한 형태를 갖도록 변수명이 조정되었다. 해당 변수는 p**0201이다.

◉ 경제활동상태

□ KLIPS의 개인용 설문문항 중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관련된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먼저 경제활동인구분류와 경제활동상태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1〕 경제활동상태의 구분

<table>
<tr><th colspan="3">15세 이상 인구</th></tr>
<tr><th colspan="2">경제활동인구</th><th>비경제활동인구</th></tr>
<tr><th>취업자</th><td rowspan="2">실업자</td><td rowspan="2">-가사 혹은 육아
-학업
-연로
-심신장애
-기타</td></tr>
<tr><td>-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일시휴직자</td></tr>
</table>

- 경제활동인구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하여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 비경제활동인구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지가 없거나(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 실업자 : 현재 미취업자이면서,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고 지난주에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지난 1주 동안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고, 지난 1주 동안 적당한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KLIPS 자료를 통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과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될 수 있다. <표 Ⅳ-4>는 각 조사년도별 경제활동상태 구분과 관련된 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별 취업상태 변수를 통해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한 다음, 미취업자의 해당 변수를 통해 실업자를 구분하면 된다.

〈표 Ⅳ-4〉 각 연도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구분변수

미취업자			P**0201
	실업자	지난 1주간 구직여부	P**2801
		지난 1개월간 구직여부	P**2802
		취업 가능성 여부	P**2806
	비경제활동인구		미취업자에서 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된다. 1차년도 자료에는 종사상 지위변수가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차년도 이후

자료부터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변수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변수 값이 5가지로 구성된다.

- 1차 자료를 이용하여 굳이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구성하려면 p010402(종업원 수)와 p013121(사업체 대표) 변수를 이용하면 된다.

〈표 Ⅳ-5〉 1-15차년도 종사상 지위 변수

	1차년도	2차년도 이후
종사상 지위	P**0314	
응답항목	1=상용직 2=임시직 3=일용직	1=상용직 2=임시직 3=일용직 4=고용주/자영업자 5=무급가족종사자

◉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여부)

-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여부) 변수는 응답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하는 변수이다. 이 항목은 설문지상에는 1차년도에는 존재했고, 2차년도에는 전년도와 비교한 변경여부만 물었으며, 3차년도에는 삭제되었다가 4차년도에 다시 조사되었다.
- 자료상에는 3차년도를 제외한 모든 차수에 존재한다. 따라서 3차년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구성할 때는 전년도 자료에서 해당 변수를 연결(merge)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단, 6차년도 정규/비정규 여부 변수는 missing 값이 다른 연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6차년도 조사 당시 새로 시작한 임금일자리, 즉 '유형5'에 해당하는 응답 대상자들에게 정규/비정규의 변화여부만 질문한 후 고용형태가 변하지 않은 응답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들의 고용형태 7차년도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여 사후적으로 코딩한 것이다. 따라서, 7차년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응답자의 고용형태는 복원하지 못했으며, 이들의 정규/비정규 여부는 missing으로 처리되었다.

-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여부 변수는 p**0317이다.

◉ 근로시간 형태

- 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형태를 묻고 있다. 근로시간 형태는 시간제, 전일제로 구분하였다.
- 근로시간 형태 변수는 p**0315이며, (1)시간제 (2) 전일제를 의미한다.

2. 오픈 코드(open code)

□ 각 변수의 변수값이 너무 많은 경우 모두 코드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픈코드로 처리하였다. 자료별 오픈코드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가구용 자료의 오픈 코드

□ 가구용 자료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오픈 코드로 처리했다. 가구주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구조사에서 파악되며 개인용 자료에도 포함된다. 가구주를 기준으로 (코드값 '10')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를 통한 고유 코드값이 지정되고 이 값들을 각 가구원에게 부여된다.

2.2 개인용 자료의 오픈 코드

□ 각 연도별 개인용 자료의 오픈 코드는 다음과 같다.

- 1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산업, 직업, 직위, 직업훈련종류, 학과, 설문지 거절이유
- 2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산업, 직업, 직업훈련기관, 대리이유, 직위, 자격증종류, 자격증급수
- 3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산업, 직업, 대리이유, 직위
- 4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직업훈련분야, 자격증종류, 직위, 지병종류(병명), 산업,

직업, 대리이유

- 5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직업훈련분야, 자격증종류, 직위, 산업, 직업, 대리이유, 고등학교명
- 6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직업훈련분야,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외 교육, 자격증종류, 자격증급수, 기타질병, 직위, 산업, 직업, 대리이유, 고등학교명
- 7~15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직업훈련분야,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외 교육, 자격증종류, 자격증급수, 직위, 산업, 직업, 대리이유

□ 15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문자변수로 제공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직위, 직업훈련이름, 자격증종류, 고등학교명,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 취업내용, (신규조사자)부모-14세 무렵 경활상태(직위)
- 직위는 1차부터 15차년도까지 문자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 자격증 종류는 1차, 3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2차, 4차, 5차, 6차년도에는 코드변수로 7차년도 이후에는 문자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 고등학교명은 5차, 6차년도에는 코드변수이며, 7차년도 이후에는 문자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 직업훈련이름은 5차년도부터 문자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 각 연도별 개인용 자료에 공통으로 담긴 오픈 코드는 가구주와의 관계, 산업, 직업, 직위, 대학교명, 시군구코드이다.

2.2.1 직업 훈련 및 자격증 코드

◉ 직업훈련 코드

□ 직업훈련 종류(분야)는 1차년도와 4~11차년도에 조사되었다. 그러나 직업훈련 종류(분야) 오픈코드의 구성은 1차년도와 4, 5차년도가 다른 코드로 구성되었다.

- 1차년도의 직업훈련종류는 707종류로 구성되며 모름/무응답은 '999'로 처리하였다.
- 4~11차년도의 직업훈련분야는 최대 163번까지의 코드를 부여하였으며, 모름/무응답은 '999'로 처리하였다.

□ 직업훈련 기관은 2차년도에 조사되었으며, 46종류로 구성된다.

□ 자격증 종류는 2차, 4~11차에 조사되었으며 800종류로 구성된다.

2.2.2 학과 코드

□ 정규교육 관련 문항은 1-11차년도 자료에 모두 산재해 있으나 학과는 1차년도 개인조사, 2차년도 신규조사자, 3차년도 신규조사자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였다.

- 해당 변수명은 p**5245, P**5265, p**5285, p**5305이다.

⦿User notes : 학과 코드의 이용
노동패널의 학과코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학과분류코드와 연계시킬 수 있다. 교육개발원의 학과 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다섯자리로 구성되며, 노동패널 자료에서 전환가능한 분류는 소분류(2-3자리)까지이다. 학과코드를 전환하는 프로그램은 직업 및 산업전환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에서 '패치파일'매뉴로 들어가면 SAS program file 및 SPSS syntex file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 패치파일 주소 : http://www.kli.re.kr/klips/

2.2.3 대학교명 코드

□ 대학교명은 1차~6차년도에는 구코드를, 7차~15차년도에서는 신코드로 제공하며,

통합코드북에서 신코드와 구코드 매칭된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 해당 변수명은 p**5241, P**5261, p**5281, p**5301, p**5321이다.

2.2.4 시군구명 코드

□ 1-10차년도 release용 자료부터 시군구코드를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다. 각 연도별로 행정구역분류 변경이 된 곳도 있으므로 통합코드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마산시는 2010년 창원시와 통합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로 분구되었다.

- 해당 변수명은 h**0142이다.

2.3 부가자료의 오픈 코드

□ 3, 4차년도에 실시된 부가조사 자료의 오픈 코드는 다음과 같다.

- 청년용 자료(3차) : 가구주와의 관계, 자격증 종류, 산업, 직업, 직위
- 건강과 은퇴 자료(4차) : 가구주와의 관계, 병명

□ 청년용 자료(3차)의 오픈 코드 중 가구주와의 관계, 자격증 종류, 산업, 직업, 직위는 개인용 자료의 오픈 코드와 동일하다.

□ 건강과 은퇴(4차)의 오픈코드는 중 가구주와의 관계는 개인용과 동일하며 병명 오픈코드는 지병 종류(a04061)와 병명(a04095)변수에 대한 오픈코드이다.

3. 무응답 대체 데이터

□ 11차년도부터는 가구, 개인, 및 직업력 데이터의 항목 무응답(item nonresponse)에 대한 무응답 대체가 적용된 데이터가 추가로 제공된다. 무응답 대체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와 동일한 변수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원본에서 무응답이었던 케이스들의 대체치가 들어가 있으며, 무응답 대체 대상이 되었던 변수들에 대해서는 각

변수에 해당하는 대체여부 표시변수가 추가된다. 대체여부 표시변수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따로 열 필요 없이 대체 적용/미적용 비교를 간단히 수행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11차년도 가구데이터 원본파일인 klips11h 에서 '연건평' 변수인 h111409는 '모름/무응답'에 해당하는 코드인 '9999'가 5 케이스 있다. 동일한 변수를 11차년도 가구데이터 무응답 대체 파일인 klips11h_i에서 살펴보면 '9999'가 하나도 없으며, 그 대신 대체여부 표시변수인 i_h111409를 보면 원본 자료에서 대체된 케이스만 '1'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직업코드 및 산업코드

□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입력시 1~15차년도 조사자료의 경우 산업과 직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8차; 2000년)와 한국표준직업분류(5차; 2000년)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3자리로 코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모름/무응답은 '-1'로 처리하였다.

□ 한국노동패널 12～15차는 2000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8차, 2000년), 한국표준직업분류(5차, 2000년)과 함께 2007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2007년), 한국직업분류(6차, 2007년)도 3자리수로 코드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 직업・산업 분류 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산업과 직업 코딩 작업은 실사 과정에서 산업과 직업을 전문가가 판별할 수 있게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산업과 직업 코딩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 첫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원을 대상으로 통계청의 표준분류 전문가가 직・산업 분류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가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 둘째, 실사가 진행되면 면접원은 사업체의 이름, 사업체의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직위・직책을 Open Code로 상세히 조사한다.

- 셋째, 조사가 완료된 뒤 통계청에서 오랫동안 해당 업무 경험이 있으며 노동패널 직·산업코딩 작업을 계속 수행한 전문가가 Open Code의 내용을 보고 코딩을 부여한다.
- 마지막으로 전문가에 의해 코딩된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부분을 확인한 후 입력한다.

□ 산업과 직업 코딩 작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년)와 한국표준직업분류(제5차 개정, 2000년)에 따라 이루어 졌다. 노동패널 12차 데이터(2009년)부터는 최근 개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년)와 한국표준직업류(제6차 개정, 2007년)도 함께 제공하여 연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산업 코드 : 6 5 1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직업 코드 : 5 2 1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 산업과 직업 코드가 990번 미만의 3자리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3-digit)와 동일한 값이 입력되어 있다.
- 다만 산업의 경우에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은 다른 대분류와는 달리 두 자리가 아닌 한 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앞자리는 0) 자료상으로는 유일하게 2자리 소분류로 구성된다.

□ 직·산업 코딩 과정에서 제공된 Open Code의 정보만으로 소분류(3-digit)까지 분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분류(2-digit)에 해당되는 값에 0을 붙여 세자리 숫자로 맞추었다.

산업 코드 : 6 5 0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직업 코드 : 5 2 0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 노동패널 각 연도별 개인자료에서 직업 및 산업코드를 부여받는 변수들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최종 일자리의 직업산업 코드, 최초 혹은 변경전 코드, 희망하는 일자리의 코드 등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료상에서도 개인자료, 부가조사 자료, 직업력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에 분포되어 있다.

- 여기서는 자료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재(최종)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코드 변수를 소개한다.

〈표 Ⅳ-6〉 현재(최종) 일자리의 직업·산업코드 변수

산업코드				직업코드			
개인자료		직업력자료		개인자료		직업력자료	
구분류	신분류	구분류	신분류	구분류	신분류	구분류	신분류
8차개정 (2000년 code)	9차개정 (2007년 code)	8차개정 (2000년 code)	9차개정 (2007년 code)	5차개정 (2000년 code)	6차개정 (2007년 code)	5차개정 (2000년 code)	6차개정 (2007년 code)
p**0330	p**0331	j630	j631	p**0332	p**0333	j632	j633

Ⅴ. 주제별 가이드

1. 가구자료

1.1 가구자료의 구조

□ KLIPS는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로 구성되며, 가구자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패널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가 된다. 가구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가구자료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가구자료의 주된 내용을 주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Ⅳ. 변수 가이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KLIPS 자료는 key변수, 구성변수, 그 외의 주제별 변수로 구성되며, 15차년도를 기준으로 가구 자료의 key변수와 주제별 변수는 다음과 같다.

- key 변수 : orghid98, orghid09, hhid01～hhid15, hwave01～hwave15, hwaveent, sample98, sample09
- 주제별 변수 : key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 15차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자료의 전체적인 구조는 key변수, 구성변수, 그 외의 주제별 변수의 순서대로 구성된다. key변수와 구성변수 다음에 위치하는 주제별 변수는 우선 가구원 모두에 대한 인구학적 정보가 제시되고 설문지의 흐름에 따라 주제별 변수들이 제시된다.

□ 가구용 자료를 분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가구자료는 가구가 기본 분석 단위이기 때문에 가구원에 관한 정보는 한 가지 주제에 관하여 변수1에서 변수15까지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5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성별변수는 1번부터 15번가구원까지의 정보를 담은 h**0241 - h**0255의 15개의 변수로 구성되며,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 3명이라면 가구원의 성별변수는 h**0241 - h**0255 중 해당되는 세 개의 변수에 유효한 값이 들어있다. 그러나 가구원 정보가 아닌 가구단위의 변수(예를 들어 가구소득, 생활비 등)는 한 가구당 하나의 변수로 구성된다.

⊙User notes : KLIPS 가구용 자료는 조사된 개인을 모두 자료에 포함하는 개인자료와는 달리 해당 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포함한다. 따라서 각 연도의 가구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hwave**변수를 이용하여 해당년도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1.2 가구자료의 내용

1.2.1 가구원 기본정보

□ 가구자료는 가구원들의 개인고유번호(PID), 성별, 연령, 학력, 분가시기 등의 기본적인 인적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각 년도별 한 가구당 최대 가구원수는 1차년도 10명, 2차년도 11명, 3~15차년도 15명이다.

□ <표 Ⅴ-1>은 각 조사년도별 가구원 기본 정보 변수이다.

〈표 Ⅴ-1〉 1-15차년도 가구원 정보 변수

	변수명	1차	2차	3차	4차	5차~15차
성별	h**0241～h**0255	○				
가구주와의 관계	h**0261～h**0275					
양/음력	h**0281～h**0295					
생년	h**0301～h**0315					
생월	h**0321～h**0335					
생일	h**0341～h**0355					
만나이	h**0361～h**0375					
동거여부	h**0381～h**0395					
비동거이유	h**0401～h**0415					
학력(학교)	h**0661～h**0675					
학력(이수여부)	h**0681～h**0695					
학력(학년)	h**0701～h**0715					
학력(전공계열)	h**0721～h**0731	○	○	-	-	-
졸업/수료/중퇴시기(년)	h**0741～h**0755	-	-	-	-	○
졸업/수료/중퇴시기(월)	h**0761～h**0775	-	-	-	-	○
혼인상태	h**0781～h**0795	-	-	-	○	-
건강상태	h**0801～h**0815	-	○	○	-	-

1.2.2 가구소득

□ KLIPS에서 가구소득은 다음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작년한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4차년도 조사부터는 '지난 한달간 가구소득'이 추가되었다.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봉급, 자영업 소득 등을 포함한다.
-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는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소득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는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회보험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와 같은 사회보험 수급액을 포함한다.
- 이전소득 :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는 보조금(현물 포함)을 포함한다. 재해나 재난 등으로 인해 1회적으로 정부기관에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 기타소득 : 보험금 지급(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을 들었다가 중도해약하고 받은 돈)이나 퇴직금(위의 사회보험에서 받은 연금 제외), 복권 탄 돈, 증여 또는 상속, 축의금, 부의금, 분실물 찾아주고 받은 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폐품매각대금 등과 같이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다.

□ 1-15차 가구소득 항목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난 한 해 동안의 총 근로소득은 1차년도에는 **지난 1년간 월평균소득**으로, 2-3

차년도 까지는 '<u>작년 한해의 월평균소득</u>'으로 조사되었으나 4~10차년도에는 '<u>작년 한해의 연간총소득'</u>으로 단위가 변경되었다.

- 사회보험은 1차년도에는 가구원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가구원 각각의 1회 수급액을 조사했으나, 2,3차년도에는 가구원 최대 3명까지 조사되었으며, 4차와 5차년도에는 4명까지, 6~11차년도 자료상에는 최대 5명의 가구원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전소득은 1차년도에는 지난 1년간의 월평균으로 조사되었으며, 2~8차 조사에서는 작년 한해동안의 연평균으로 조사되었다. 9차년도 이후 친척/친지보조금 항목을 '따로 사는 부모님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세분화시켰으며, 각 항목에 대해 유무 여부로 설문 구조를 변경하였다.
- 기타소득 역시 1차년도에는 지난 1년간의 월평균으로 조사되었으며, 2~9차 조사에서는 연평균으로 조사되었다. 9차년도에는 보험금 항목을 '손해보험, 저축성보험, 종신보험'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축의금, 조의금, 복권/경마 등, 교통사고 보상금 등'의 기타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조사하도록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 유무 여부를 묻는 것으로 설문구조를 변경하였다.

□ <표Ⅴ-2>는 1-15차 가구소득 관련변수이다.

〈표 Ⅴ-2〉 1-15차 가구소득 관련 변수

		변수명	1차~15차
지난해소득	총근로소득	h**2101~h**2102	○
	금융소득	h**2111~h**2117	
	부동산소득	h**2121~h**2127	
	사회보험	h**2131~h**2142	
	이전소득	h**2151~h**2161	
	기타	h**2181~h**2192	
지난달소득	근로소득	h**2102	4차~15차
	금융소득	h**2104	
	부동산소득	h**2106	
	사회보험	h**2108	
	이전소득	h**2110	
	기타	h**2112	

□ 가구소득 관련 변수 사용 시에는 다음의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 KLIPS의 모든 소득항목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가구소득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국내의 통계조사로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가 있다. 이 조사의 경우 소득을 '세전소득'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반해 KLIPS는 '조세'를 제외한 '세후소득'을 측정한다.

◉ KLIPS 가구소득의 추정기간은 이전 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KLIPS의 가구소득은 조사 년도의 이전 한해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단 1차년도 조사의 경우 응답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 각 연도별 측정의 기간이 동일하지 않다.

- 가구 근로소득은 1-3차년도에는 월평균 소득을 조사하였으나 4~10차년도에는 '연간총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이전소득과 기타소득 또한 1차년도에는 월평균으로 조사하였으나 2~15차년도에는 '작년 한해'의 소득으로 조사되었다.

◉ 각 연도별 기구소득의 세부 항목은 차이가 있다.

- 1차년도 가구소득은 세부 항목이 없이 한달 평균 액수만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2차년도 조사부터 가구소득은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각각의 세부 항목 중 부동산 소득의 '토지를 도지 준 것'은 3차년도에 추가되었고, 이전소득의 '친척/친지 보조금'은 9차년도에 '따로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기타 소득의 '증여 및 상속'은 4차년도에 추가되었으며, 부동산 소득의 '권리금'은 5차년도 추가되었으며, '보험금'은 '손해보험, 저축성보험, 종신보험'으로 9차년도에 세분화시켰으며, '축의금/조의금, 당첨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재해보상금'은 9차년도에 추가되었다.

〈표 Ⅴ-3〉 1-15차년도 가구소득 세부항목

	세부항목
금융소득	은행 및 금융기관 이자소득, 사채이자수입,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배당금, 기타
부동산소득	월세 등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토지를 도지 준 것(3차 추가), 권리금, 기타
사회보험	1회 수급액
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기타정부보조금,(6차 항목세분) 사회단체 보조금, 친척/친지 보조금(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도움, 따로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천척/친지 보조금: 9차 항목세분), 기타 보조금
기타소득	보험금(손해보험, 저축성보험, 종신보험: 9차 항목세분), 퇴직금, 증여 및 상속(4차 추가), 축의금/조의금, 당첨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재해보상금(9차 추가), 기타 근로장려세제 지원금(12차부터 추가)

⊙User notes :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총소득을 산출할 때는 가구소득의 각각의 항목을 합하면 된다. 단 가구소득 각각의 항목을 합할 때는 우선 해당 항목의 소득 유무를 파악하고 소득이 있는 가구만 선택하여 소득액을 합한다. 또한 가구총소득 산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각각의 변수마다 'missing'값이 다르므로 코드북을 참조하여 각각의 missing값을 통제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FAQ Q13 참조

1.2.3 가구소비

□ KLIPS의 가구소비는 생활비 항목과 저축으로 구성된다. <표Ⅴ-4>는 1-15차 가구소비 관련 변수이다. 연도별 가구소비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 1, 3차년도에는 생활비를 세부항목으로 조사하지 않고 월평균 총액만 조사하였고 2, 4, 5~10차년도에는 총액과 함께 세부항목별 생활비를 조사하였다.
- 또한 세부항목 중 '통신비' 항목은 4차년도에, '용돈' 항목은 5차년도에, '피복비' 항목은 6차년도에 각각 추가되었다. 그리고 7차년도에는 '헌금 및 각종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등이 추가되었다. 9차년도에는 '문화비' 는 '교양오락비'로 항목 변경되었고, '용돈' 은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으로 항목을 세분화시켰고, '생필품 구입비'는 추가되었다.
- 저축은 1, 2, 3차년도에는 월평균 총액만 조사하였고 4~8차년도에는 월평균 총액과 함께 세부항목별로 조사하였다. 9차년도에는 보장성 보험을 '보장성 보험과 종신보험'으로 세분하였다. 10차년도에는 '적립식펀드'가 추가되었다.
-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11차년도에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항목을 세분화하여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항목이 추가되었다.

□ 가구소비는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작년 한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단 1차년도의 경우 응답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조사했다.

〈표 Ⅴ-4〉 1-15차년도 가구소비 관련 변수

		변수명	1차	2차	3차	4차~15차
월평균 생활비	식비 (주식비와 부식비)	h**2311	-	○	-	4차~15차
	외식비	h**2312		○		4차~15차
	공교육비(학교등록금,납입금 등)	h**2313		○		4차~15차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h**2314		○		4차~15차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h**2315		○		4차~15차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h**2316		○		4차~15차
	경조사비	h**2317		○		4차~15차
	보건의료비	h**2318		○		4차~15차
	문화비(TV시청료, 취미·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h**2319		○		4차~15차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구입비)	h**2320		○		4차~15차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h**2321		-		4차~15차
	용돈	h**2322		-		5차~8차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h**2323		-		10차~15차
	자녀용돈	h**2324		-		10차~15차
	그 외 가구원 용돈	h**2325		-		10차~15차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h**2326		-		7차~15차
	헌금 및 각종기부금	h**2327		-		8차~15차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h**2328		-		8차~15차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h**2332		-		11차~15차
	대중교통비	h**2329		-		8차~15차
	생필품 구입비	h**2330		-		10차~15차
	기타	h**2331		-		4차~15차
	월평균 총액	h**2301	1차~15차			
저축	예·적금(주택청약부금 포함)	h**2412	-	-	-	4차~15차
	개인연금	h**2414				4차~15차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h**2416				4차~15차
	종신보험	h**2418				9차~15차
	적립식펀드	h**2426				10차~15차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h**2420				4차~15차
	계(→곗돈 불입금)	h**2422				4차~15차
	기타	h**2424				4차~15차
	월평균 총액	h**2402	1차~15차			

1.2.4. 자산

□ 자산과 관련된 항목은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된다. 자산 항목은 1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2-15차에 조사되었다. 자산의 측정은 가구 소비와 가구소득과는 달리 지난 한해가 아닌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10차년도부터 기타자산 항목인 '자동차 소유 여부' 및 '구매 여부와 금액'에 대하여 추가 조사되었다. 자동차 자산의 측정은 '작년 한해'를 기준으로 한다. 11차년도에는 자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기타자산 보유 여부' 및 '기타자산의 현재시가'에 대하여 추가되었다.

□ <표Ⅴ-5>는 자산 항목 중 2-15차년도 부동산 관련 변수들이다.

〈표 Ⅴ-5〉 2-15차년도 부동산 관련 변수

	변수명	2차~15차
거주주택 외 부동산	h**2501~h**2513	○
부동산 타인 임대	h**2521~h**2524	
부동산 임차	h**2531~h**2543	

□ 부동산 관련 변수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다른 자산 항목들과는 달리 시가 총액 또는 보증금 총액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연속형으로 우선 측정한 다음 '잘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가구에 대하여 범주형으로 다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범주형의 응답 범주는 차수마다 응답항목이 달랐으나 변수통합 자료에는 응답항목도 10차년도 기준으로 맞추었다.

□ <표Ⅴ-6>은 자산항목 중 2-15차년도 금융자산 관련 변수이다. 금융자산 관련 변수 중 기타 금융자산종류는 1, 2차년도에는 별도로 코드화하지 않았지만 3-15차년도에는 별도로 코드화하여 하나의 변수로 포함되었다.

〈표 Ⅴ-6〉 2-15년도 금융자산 관련 변수

	변수명	2차~15차
은행예금	h**2561~h**2562	○
주식, 채권, 신탁	h**2563~h**2564	
저축성 보험	h**2565~h**2566	
아직 타지 않은 계	h**2567~h**2568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돈	h**2569~h**2570	
기타	h**2571~h**2572	

1.2.5 부채

□ 2-15차년도 가구부채 관련 변수는 <표Ⅴ-7>과 같다. 가구 부채에 대한 조사는 조사 연도별로 변동이 있다.

- 1차년도에는 부채의 세부 항목의 구분 없이 부채여부, 총 부채액, 월평균 부채 상환금만을 조사했으나, 2차년도부터는 다음의 총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부채액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표 Ⅴ-7〉 2-15차년도 가구부채 관련 변수

	변수명	1차~15차
금융기관 부채	h**2601~h**2603	○
비금융기관 부채	h**2604~h**2606	
개인적으로 빌린 돈	h**2607~h**2609	
전세금 임대보증금	h**2610~h**2612	
부어야 할 계	h**2613~h**2615	
기타	h**2616~h**2618	

1.2.6 주거지

□ 주거지는 이사여부, 주거지 변동사항, 입주형태,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거주시작 시기 등에 관하여 조사되었다. 15차년도를 기준으로 주거지의 세부적인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입주형태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 주택종류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상가주택, 기타
- 주택의 평수 : 대지면적, 연건평, 실제사용평수
- 거주시작시기 : 거주시작 년, 월
- 거주지의 시가, 임대보증금 혹은 전(월)세금

〈표 Ⅴ-8〉 1-15차년도 주거지 관련 변수

	변수명	1차~15차
현재 거주지 이사 동기	h**1420	11차~15차
이사여부	h**1401	2차~15차
변동사항	h**1402~h**1405	
입주형태	h**1406	1차~15차
주택종류	h**1407	
대지면적, 연건평, 평수	h**1408~h**1411	
시가	h**1412	
보증금, 월세	h**1413~h**1414	
거주 시작시기	h**1415~h**1416	

□ 1-15차 주거지 항목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사여부와 주거지 변동 사항은 2차년도부터 추가되었다.
- 주택의 평수는 1-3차년도에는 대지면적과 연건평을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4차년도 이후에는 대지면적, 연건평, 실제평수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주택 종류는 2차에는 5개의 항목, 3차에는 9개의 항목, 4차-7차에는 5개의 항목, 8차부터는 6개의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각각의 항목의 내용에도 변동이 있다.

- 11차년도에는 지역 노동시장의 이동을 살피고자 현재 거주지 이사 동기 문항을 추가하였다.

⊙User notes : KLIPS 가구용 자료의 주거지 관련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2차와 3차 자료에서 입주형태,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거주시기는 전년도 조사 이후 이사하였거나 이사하지 않았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2, 3차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관한 분석을 할 때에는 전년도 자료에서 해당 변수를 연결하여 사용해야했다. 그러나 8차자료부터는 해당변수를 가공하여 붙여두었으므로,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고 해당변수를 사용하면 된다.(FAQ Q18참조).

1.2.7 자녀교육

□ 자녀교육은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실태와 비용'과 '탁아모 이용실태와 비용'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고, 2차년도를 제외한 모든 년도에 조사되었다.

□ <표Ⅴ-9>는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실태 조사 내용이다. 조사 내용은 차수별로 차이가 있다.

- 1차에는 조사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로 한정하였으나 3차 이후로는 0세 - 고등학생 이하(재수생 포함)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한편 7차년도 조사부터는 대학생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조사하였다.
- 이용기관 종류의 항목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는 3차년도 이후에 조사되었다.

⊙User notes :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과 관련하여 6차년도 조사 이후 가장 큰 변동사항은 사교육 이용기관 종류별로 조사되었던 항목들이 자녀 당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5차년도 조사에서는 자녀가 2명이고 두 명이 각각 3개씩의 학원에 다닐 경우 그 가구에 대해서는 총 6개의 사교육종류별로 이용횟수와 이용시간, 월평균 수업료 등을 질문하게 된다. 그러나, 6차년도 조사이후에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 총 2개의 월평균수업료만을 파악하게 된다.

한편 7차년도 조사의 큰 변화로는 대학생이상 자녀의 사교육비를 조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학생 이상 자녀의 수, 정규학교 등록금, 그 외 지출 비용 등이 조사되었다.

〈표 Ⅴ-9〉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실태 조사내용

조사년도	조사 대상	조사 내용
1차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이용기관 종류 이용횟수와 이용시간 월평균 수업료
3차 4차 5차	0세 ~ 고등학생이하(재수생포함)	이용기관 종류 종류별 이용횟수와 이용시간 종류별 월평균 수업료 가구 전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
6차		자녀당 이용여부 자녀당 월평균 수업료 가구 전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
7차~11차	0세 ~ 고등학생이하(재수생포함) 대학생 이상 자녀(휴학 중인 자녀 포함)	고등학교이하 자녀당 이용갯수 고등학교이하 자녀당 월평균 수업료 대학생이상 자녀당 정규학교 등록금 대학생이상 자녀당 그 외 지출 비용 가구 전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

□ 탁아모 이용실태의 조사 내용은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유사하며, 그 내용은 탁아모 종류, 탁아모 이용 횟수와 시간, 비용, 경제적 부담정도 등이다.

□ 탁아모 이용실태는 1차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만을 조사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3, 4차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조사대상으로 확대하였다. 탁아모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정도는 3, 4차년도에만 조사되었다. 그러나, 5차년도 조사부터는 탁아모 이용실태와 관련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 자녀교육 분석에서 유의할 점은 변수구성에 있어서 한 자녀가 이용하는 하나의 기관(혹은 탁아모)단위로 변수가 구성된다는 점이다. 또한 자녀교육 문항에는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자녀의 번호와 엄마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자녀번호와 엄마번호는 자녀와 엄마의 가구내 개인번호를 의미한다.

- <u>자녀번호를 가구원 정보와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가구번호와 자녀(엄마)번호를 조합하여 merge한다. - FAQ Q11 참조</u>

2. 개인자료

2.1 개인자료의 구조

□ KLIPS 가구용 자료가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고 있다면 개인용 자료는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분석단위로 한다. 개인자료는 가구자료와 동일하게 key변수와 주제별 변수로 구성된다.

□ 15차년도를 기준으로 개인용 자료의 key변수와 구성변수, 그 외의 주제별 변수는 다음과 같다.

- key변수 : pid, hhid01~hhid15, hmem15
- 주제별 변수 : key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 주제별 변수는 그 변수가 어떤 설문지에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변수레이블 앞에 '(가구정보)', '(주된 일자리)', '(모든 응답자)', '(취업)', '(미취업)', '(신규조사자)'라는 라벨이 붙는다.

◉ 주제별 변수의 구성

- (가구정보) : 가구자료에서 조사된 가구원 정보를 개인자료에 연결한 변수이다. 개인의 주된 인구학적 특성을 담고 있다.
- (주된 일자리) : 취업자가 응답한 유형 설문의 내용 중 '주된 일자리'라고 응답한 일자리 관련 변수들이다.
- (모든응답자) : 취업자 개인과 미취업자 개인 설문 중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한 설문내용에 관한 변수로 각 변수에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의 응답내용이 들어 있다.
- (취업) : 취업자 설문 중 취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에 관한 변수이다.
- (미취업) : 미취업자 설문 중 미취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에 관한 변수이다.
- (신규조사자) : 1차년도 응답자 및 만 15세가 되어 처음 조사되거나 합가 등의 이유로 추가된 가구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에 관한 변수들이다.

□ 개인 자료에서 변수레이블 앞에 '(주된 일자리)'라고 입력된 변수들은 취업자설문과 유형설문을 토대로 별도로 가공된 자료이다. 이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KLIPS는 개인이 여러 가지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 유형 설문을 통해 모든 일자리에 관한 응답을 받고 있다. 단 취업자 개인 설문은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받는다.
- 주된 일자리는 현재의 일자리(유형1, 3, 5, 7 설문) 중에서 응답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로 정의된다.

□ 개인용 자료의 (주된 일자리)변수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사업)시작 시기
- 산업, 직업, 직위
- 기업의 형태 및 규모
- 고용형태와 근로계약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 근로시간, 임금
-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수급
- 노동조합
- 농업일자리(12차년도부터 추가)

2.2 개인자료의 내용

2.2.1 평소의 경제활동

□ 평소의 경제활동은 개인용 자료의 (모든응답자)변수로 지난주 주요 활동과 지난주 소득 활동, 지난주 직장유무, 지난주 일 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있다.

□ 평소 경제활동 관련 문항은 1차년도에는 가구용 설문지에 있었으나 자료상에는 개인용에서 제공된다. 3~15차년도에는 개인용 설문에서 묻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에서 제공된다.

〈표 Ⅴ-10〉 평소의 경제활동관련 변수

	변수명	1차~15차
평소 활동	p**0202	3차~15차
지난 1주 주요활동	p**0203	○
지난 1주간 소득활동	p**0204	
지난주 일자리 소유여부	p**0205	
지난주 일하지 않은 이유	p**0206	

2.2.2 구직활동

□ 구직활동은 취업자의 구직활동과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으로 구분된다.

- 1차년도 개인용 자료에서 취업자의 구직활동 관련해서는 희망 종사상 지위, 희망 근로시간, 희망하는 일의 종류, 구직방법, 구직시 어려움, 구직기간 등의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은 실업자의 구직활동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된다.
- 2차년도의 구직 관련 변수는 취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직장의 구직 과정 관련 사항과 취업 중 구직활동(on the job search)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다.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
- 3차년도에는 취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직장의 구직 과정 관련 사항과 취업 중 구직 활동(on the job search)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다.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
- 4, 5, 6, 7, 8, 9차년도의 구직활동 관련 변수구성은 3차와 동일하다. 단 4차년도부터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구직 방법 외에 성공한 구직방법과 구체적인 일자리 진입방법 변수가 추가되었고, 구직방법에 대한 세부 항목이 구체화되었다. 9차년도에는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변수 중 지난 조사이후 구직활동여부, 마지막 구직활동시기(년, 월), 지난주 일자리 제의 여부, 제의받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표 Ⅴ-11〉 1-15차년도 구직활동 관련 변수

	변수명	1차~15차
취업자의 구직활동	p**2901~p**3020	○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p**2801~p**2885	

2.2.3 고용형태(정규/비정규여부) 및 근로계약

□ KLIPS에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의미한다. 정규직 여부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자기 응답식으로 측정되었다. 그밖에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관련 항목은 Ⅳ. 변수 가이드의 1.key 변수의 이해와 활용에 제시되어 있다.

□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관련변수는 근로계약기간유무, 근로계약기간, 계속근로가능여부, 근로계약문서 수령여부, 근로계약갱신여부, 향후근무예상기간으로 구성된다. 근로계약관련변수의 연도별 변화사항은 다음과 같다.

- 1-11차년도 조사에서 근로계약기간 유무와 근로계약기간은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 계속 근로 가능 여부는 2차를 제외한 1, 3, 4, 5차년도에 조사되었다.
- 근로계약문서 수령여부는 3~10차년도에 조사되었다.
- 근로계약 갱신여부는 3차, 5~10차년도에 조사되었다.

〈표 Ⅴ-12〉 1-15차년도 근로계약 관련 변수

	변수명	1차~15차
근로 계약 기간 유무	p**0501	○
근로 계약 기간	p**0502~p**0504	
근로 계약 갱신 여부	p**0505	5차~15차
불규칙적인 일자리 여부	p**0508	5차~15차
근로 계약문서 수령	p**0509	3차~15차

□ 노동패널조사에서 '향후 이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가 가능한지 여부'는 3차년도 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유형설문에서 조사되었다. 동일한 문항에 대해 5차년도에

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2002년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를 통해 유사한 문항이 설문되었다. 노동패널 조사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5차년도 조사에서부터는 취업자 공통 설문에서 이를 조사하였다.

- 이중 향후 계속 근로가능기간에 대해서도 4차년도 조사에서 '1년이상'과 '1년미만'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즉, 기간제(단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5차년도 이전조사에서도 파악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 5차~11차년도에는 향후 근로가능 기간에 대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응답항목을 통일시켜 '(1) 1년이하(_개월), (2) 1년~3년 이하 (3) 3년 초과'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12차년도 이후에는 (1) 1년이하, (2) 1년초과~2년 이하, (3) 1년 초과~ 3년이하, (4) 3년 초과로 네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 그 외에 호출 근로나 시간제 근로와 같은 형태는 노동패널내의 기존 유형설문에서 판별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표 Ⅴ-13>과 같이 파견/용역근로여부, 독립도급여부, 가내 근로 여부 등에 대해서만 추가로 조사하였다.

〈표 Ⅴ-13〉 비정규직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

	변수명	3차	4차	5차~15차
계속 근로가능 여부	p**0601	○	-	○
향후 계속근로가능기간	p**0603~p**0604	○		
계속근로불가능이유	p**0605	-		
파견/용역여부	p**0611	○		
독립도급여부	p**0612	-		
가내(재택)근로 여부	p**0613	-		

□ 10차년도 부가조사에서 조사되었던 '고용형태' 문항들은 11차년도부터 개인용 취업자 설문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고용형태 자료 내용은 <표Ⅴ-14>와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임시적 고용 : 근로계약 기간이 임시적이거나 업무의 성격이 임시적이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고용형태이다. 여기에는 한시근로, 프로젝트베이스, 대체근로, 성과계약제, 임시직, 계절근로 등이 포함된다.
- 간접고용 : 일하는 곳과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다른 고용형태에는 파견/용역근로나 사내하청 등이 포함된다.
- 일일/호출근로 : 근로계약의 유무에 제약받지 않고 '필요할 때 연락을 받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고용'되거나 '인력시장, 직업소개소 등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용주나 고용할 업체 등에서 일할 사람을 선택하면 일일 단위로 일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특수고용 : 임금과 비임금의 경계선상에 있는 특수형태 고용은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과 같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가 모호한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 시간제 근로 :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로 정의된다.

〈표 Ⅴ-14〉 고용형태 자료의 변수

내 용	10차(부가조사)	11차~15차(취업자)
고용형태 판별	a105101-a105121	pa**5101-pa**5121
한시근로 및 임시적 계약형태	a105200-a105223	pa**5200-pa**5223
간접고용	a105300-a105369	pa**5300-pa**5369
일일호출근로	a105400-a105405	pa**5400-pa**5405
특수형태고용	a105500-a105535	pa**5500-pa**5535
시간제 근로	a105600-a105618	pa**5600-pa**5618
직장상황 및 적응	a105700-a105705	pa**5700-pa**5705

⊙User notes : 비정규직 근로자의 판별(FAQ Q22참조)

5차년도 조사부터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2002년)의 내용들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노동패널에서 측정가능한 비정규직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사상 지위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기준 p**0314을 참조할 것.
2. 주관적 판단에 의한 비정규직 여부 <표 Ⅴ-13>을 참조할 것.
3.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근로(단기계약, 호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도급근로, 가내근로, 시간제 근로)

※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근로(alternative work arrangements)'와 관련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변수명
단기계약	p**0501(=1) & p**0601(=2) & p**0603(=1)
호출근로	p**0508(=1)
파견근로	p**0611(=2)
용역근로	p**0611(=3)
독립도급근로	p**0612(=1)
가내근로	p**0613(=1)
시간제 근로	p**0315(=1)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 부가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안주엽 외, 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한국노동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2.2.4 근로시간

□ 정규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변수이다. 정규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정규근로시간유무여부, 주당정규근로시간 및 일수, 초과근로여부, 주당초과근로시간 및 일수 등을 묻고 있다.

□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1-15차년도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1차년도에는 주당정규근로시간과 주당초과근로시간, 주당정규근로일수에 관한 변수만 있고 주당초과근로일수에 관한 정보는 없다.

□ 근로시간관련 변수를 사용할 때의 유의사항과 근로시간관련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규근로시간의 유무에 따라 근로시간 응답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총근로시간을 구성할 때는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 1차년도에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일한 달'과 '가장 적게 일한 달'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 2차년도에는 지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평상시와 비교하여 어땠는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었다.
- 1-6차년도에는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각 요일별 근무시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3-4차년도에는 근로시간단축 견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8차년도에는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법, 주5일제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 변화여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여유시간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p**1151~p**1224).

〈표 V-15〉 1-15차 근로시간 관련 변수

	변수명	1차~15차
정규근로시간 유무	p**1003	○
주당정규근로시간 및 일수	p**1006~p**1007	
주당평균근로시간 및 일수(임금)	p**1004~p**1005	
주당평균근로시간 및 일수(비임금)	p**1031~p**1032	
초과근로여부 및 구분	p**1011, p**1019	
주당초과근로시간 및 일수	p**10121~p**1013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	p**1015	
초과근로수당 지급방법	p**1016~p**1017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p**1018	

⊙User notes :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의 유무에 따라 해당 문항이 달라진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할 때는 정규 근로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주당 정규근로시간을, 정규 근로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참조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한다. FAQ Q24 참조

2.2.5 임금 및 소득

□ 임금 및 소득과 관련된 정보는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연간매출액과 소득액을 측정하였으며,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임금지급주기, 임금결정방식, 임금 수준, 성과급적용여부, 임금내용 등의 자세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 임금근로자의 임금관련 변수는 <표Ⅴ-16>와 같으며, 임금관련 변수의 년도별 변동사항과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금수준은 해당하는 임금결정방식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의 구성과 자료의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 임금수준의 자료의 구성은 1차년도에는 연봉제, 일당제, 시간급제의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되었고 2차년도에는 도급제를 제외한 6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다. 3차년도에는 도급제와 기타를 제외한 5개의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4차년도에는 기타를 제외한 6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다.
- 임금 내용은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구분 여부와 각각의 액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1차년도에만 조사되었다.
- 월평균 임금은 임금유무의 임금 액수로 구성되었다. 7차년도부터 공제되는 세금액이 추가되었다.
- 9차년도부터 임금수준 변수 중 연봉액과 월급액 변수를 기존의 월평균 임금 변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삭제하였다.

〈표 Ⅴ-16〉 1-15차년도 임금근로자의 임금관련 변수

	변수명	1차~15차
임금지급방법	p**1601	○
임금결정방식	p**1602	
임금수준	p**1611~p**1617	
성과급 관련	p**1621~p**1624	
임금내용	p**1632~p**1634	
월평균임금	p**1641~p**1642	
임금에서 공제되는 세금	p**1643	

□ 1-15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관련 변수는 <표Ⅴ-17>과 같다.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연간매출액과 월평균 소득으로 조사되었다.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과 관련하여 1-9차년도 변화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차-3차년도 까지 연간 매출액은 개방형으로 측정하였고 모름일 경우 범주형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4차년도부터는 개방형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연간매출액의 범주형의 세부항목 중 2, 3차년도에는 '(14)모르겠다'가 추가되었다.
- 월평균 소득관련 변수는 1-9차년도가 동일하다.
- 8차년도부터 적자액 정보가 추가되었다.

〈표 Ⅴ-17〉 1-15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관련 변수

	변수명	1차~15차
연간매출액	p**1662	○
월평균소득	p**1671~p**1672	
월평균 적자액	p**1673	8차~15차

⦿User notes : 비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과 비교할 때 missing 값이 많다는 질문이 많다. 그러나,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 종사상 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응답대상이 아니다. 또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런 사례들을 통제하고 나면 비임금 근로자의 소득에도 missing값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AQ Q24참조

2.2.6 직업훈련 및 자격증

□ 직업훈련은 3차년도를 제외한 1, 2, 4, 5, 6, 7, 8, 9차년도에 조사되었으며 조사년도별로 내용의 구성상 많은 차이가 있다. 공통된 내용은 직업훈련여부, 직업훈련 시기 및 기간, 직업훈련 종류, 비용부담, 희망하는 직업 훈련 등이다.

□ 조사년도별 직업훈련 관련 사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1, 2차년도에는 가장 최근에 받은 직업훈련 한 가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 1차년도에는 직업훈련의 개수는 조사되지 않았다.
- 4~9차년도에는 가장 최근에 받은 직업훈련부터 총 세 가지 직업훈련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 응답 기간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1차년도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2차년도에는 지난 조사 이후 받은 직업훈련에 한하여 응답받았으며, 4차년도에는 3차년도에 조사가 누락되었던 관계로 1999년 1월 이후에 받은 직업훈련에 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5차년도부터는 다시 '지난 조사 이후'에 받은 직업훈련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 직업훈련의 비용부담관련해서 1, 2차년도에는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으나, 4, 5차년도에는 비용부담주체 뿐만 아니라, 본인이 교육훈련을 받는데 직접 지불한 비용까지 조사하였다.
- 직업훈련 관련 변수명은 p**4501～p**4644이다.

□ 자격증과 관련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격증 관련 내용은 자격증보유 여부, 자격증 보유개수, 자격증 유형, 자격증 종류, 취득시기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 2차와 4, 5차년도에 조사되었으며, 2차년도에는 최대 9개까지, 4, 5차년도에는 최대 6개까지 자격증의 종류와 급수, 취득시기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 2차년도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개인이 소지한 모든 자격증에 관하여 응답하게 하였고, 4차년도에는 1999년 1월 이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응답하게 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 5차년도 조사부터는 소지한 자격증의 유형이 국가 자격증인지, 민간 또는 외국자격증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였다.
- 7차년도부터 자격증 유형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다. 이는 기존에 있던 자격증의 급수 정보를 자격증 제도가 운영되는 현실에 맞춰 대체한 것이다.
- 자격증 관련 변수명은 p**4701～p**4796이다.

2.2.7 사회보험

□ 사회보험 관련 사항은 설문지상 가구용과 개인공통, 유형 설문지에 존재하며 자료상에는 가구자료와 개인자료에 있다.

- 가구용 설문지에서는 한 가구 당 최대 3명의 가구원에 한하여 사회보험수급자 유무, 사회보험 수급자 이름과 가구원 번호, 연간 총수급액을 묻고 있다.
- 개인공통 설문지에서는 사회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종류, 수급기간, 수급방식, 1회 수급액을 묻고 있다.
- 유형설문지에서는 직장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문항은 개인자료의 '주된 일자리'에 아래 표와 같은 변수형태로 입력되어 있다. 또한, 개인이 1개 이상의 임금 일자리를 갖고 있을 경우, 모든 임금 일자리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하므로 동일한 내용이 직업력 자료에도 입력되어 있다.

□ <표Ⅴ-18>은 1-15차 사회보험 관련 변수이다. 사회보험 관련 사항은 1차년도에는 가구용 자료에만 있으며 2-8차에는 가구용과 개인용 자료에 모두 존재한다.

〈표 Ⅴ-18〉 1-15차년도 사회보험 관련 변수

	변수명	1차~15차
가구자료	h**2131~h**2142	○
주된 일자리	p**2101~p**2105	2차~15차
취업자 개인	p**2141~p**2190	2차~15차
직업력 자료	j401-j405	○

2.2.8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의 측정

□ 한국노동패널의 직무만족도 측정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사항은 "이상호, 노동패널의 직무만족도 측정, 노동리뷰 2006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www.kli.re.kr/klips 테크니컬 리포트)을 참고하기 바란다.

① 요인별 직무만족도(facet measure)

□ 요인별 직무만족도의 측정은 1차년도 조사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직무만족도 측정문항이다.

- 설문의 개발은 미네소타대학교의 직업심리연구소(Vocational Psychology Research) 미네소타만족지수(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와 Smith, Kendall & Hulin(1969)등이 개발한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on Index: JDI) 등에 근거하여 이중 가장 사용되고 있는 항목들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축약형(reduced form)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 Ⅴ-19〉 1-15차년도 요인별 직무만족도(facet measure) 변수

응답항목	변수명	1차~15차
(1) 임금 또는 소득	p**4311	○
(2) 취업의 안정성	p**4312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p**4313	
(4) 근로환경	p**4314	
(5) 근로시간	p**4315	
(6) 개인의 발전가능성	p**4316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p**4317	
(8) 인사고과의 공정성(비임금제외)	p**4318	
(9) 복지후생(비임금제외)	p**4319	

- 이 중에서 ①~⑦까지의 항목은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⑧, ⑨번 항목은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조사되었다.
- 단, 1차년도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제외한 8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를 제외한 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② 전반적 직무만족도(global measure)

□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대한 측정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단일항목으로 이루어진 측정이며, 두 번째는 5개의 항목들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의 측정이다.

□ 우선 단일항목으로 측정되는 '전반적 직무만족도' 설문은 3차년도부터 조사되어 왔다. 측정항목은 '(1) 매우 만족스럽다'에서 '(5) 매우 불만족스럽다'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Ⅴ-20〉 단일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변수

설문 항목	변수명	3차~11차
_님께서는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p**4321	○

□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설문은 5차년도부터 조사되고 있다. 문항의 개발은 Brayfield & Rothe (1951)의 척도에서 5개 문항을 선별한 것으로, 질문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아주 그렇다'까지 역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Ⅴ-21〉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변수

응답 항목	변수명	5차~11차
①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p**4301	○
②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p**4302	
③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p**4303	
④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한다.	p**4304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p**4305	

2.2.9 조직몰입도(organizational commitment)의 측정

□ 조직몰입도에 대한 측정 역시 5차년도 조사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설문의 개발은 Porter et al. (1974)의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s)에 기초하여 우수한 문항들을 선별한 것이다. 응답항목은 '(1) 매우만족'부터 (5) 매우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Ⅴ-22〉 조직몰입도의 측정 변수

응답 항목	변수명	5차~15차
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다닐만한 좋은 직장이다.	p**4201	○
② 나는 이 직장에 들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p**4202	
③ 직장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p**4203	
④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p**4204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다.	p**4205	

2.2.10 기타 변수

□ 앞에서 언급된 변수 외에 매년 특별한 주제(건강상태, 생활만족도, 장애 및 장해, 영어학습 등)에 관한 여러 문항이 조사되었다.

□ <표Ⅴ-23>은 1-15차년도 기타 변수들이다. 이 변수들의 년도별 차이점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생활만족도는 1차-11차년도에 모두 조사되었다.
- 8차년도부터 건강유지를 위해 평소 하는 일, 운동, 흡연 및 음주습관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다.
- 장애관련 문항은 4차년도(2001년) 건강관련 부가조사에서 조사하였다. 이후 관련 문항들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9차년도에 장애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 8차년도 부가조사인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설문 중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에 관한 3개 문항을 9차년도 조사에 추가하였다.
- 10차년도에는 영어학습 및 영어능력 문항을 추가하였다.

- 11차년도에는 취업자(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및 국민연금 가입형태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고용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사업체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항도 추가하였다. 또한 임금근로자에게는 특수고용 직업 선택 문항도 추가로 조사되었다. 모든 응답자들에게는 금연일자 및 금주일자에 대한 문항도 추가되었다.

〈표 Ⅴ-23〉 1-15차년도 기타 변수

	변수명	1차~15차
장애또는장해여부	p**6201~p**6262	9차
생활만족도	p**6501~p**6506	1차~15차
차별	p**6301~p**6376	7차
위험인식	p**6401~p**6405	7차, 9차
건강유지와 운동, 흡연, 음주습관	p**6151~p**6163	8차~10차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p**6602~p**6604	9차~10차
영어학습 및 영어능력	p**4901~p**4977	10차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여부 및 가입형태	p**2107~p**2108	11차~15차
사업체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p**2106	11차~15차
금연일자, 금주일자	p**6166~p**6167 p**6164~p**6165	11차~15차
특수고용 직업 선택	p**0616	11차~15차

2.2.11 1차응답자 및 신규조사자 자료

□ 1차년도 응답자 및 신규조사자 자료는 조사시점 당시 처음으로 개인용 조사에 진입한 응답자에게 해당되는 설문임. 따라서 1차년도에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아래 문항이 조사되었으며, 2차년도 이후부터는 신규조사자만 응답함. 여기서 신규조사자란 아래의 경우가 해당된다.

① 만 15세가 된 원표본 및 비원표본 가구원
② 이전 조사에 누락되었던 원표본가구원(장기 해외 출장, 유학, 군입대 등)
③ 혼인 등으로 인해서 새롭게 조사에 포함된 비원표본가구원

〈표 Ⅴ-24〉 1-15차년도 신규조사자 관련 변수

	변수명	1차~15차
출생지 및 14세무렵 성장지	p**9001~p**9006	○
형제자매 수 및 학력	p**9021~p**9027	
종교	p**9031	
군복무 관련	p**9041~p**9045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	p**9051~p**9054	
부모-14세무렵 경활상태	p**9055~p**9059	
출산력	p**9071~p**9075	

3. 직업력 자료

3.1 직업력 자료의 구조

□ KLIPS의 직업력(work history) 자료는 1차 조사 시점에서 과거에 가졌던 직업을 기술한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와 1차 조사 이후로 조사된 개인의 모든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직업력 자료를 통해 개인이 최초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래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 가구용 자료가 한 가구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고 개인용 자료가 한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면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직업을 자료 구성의 기본 단위로 한다. 직업력 자료는 개인 조사의 유형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되며 개인 자료의 주된 일자리 정보 또한 직업력 자료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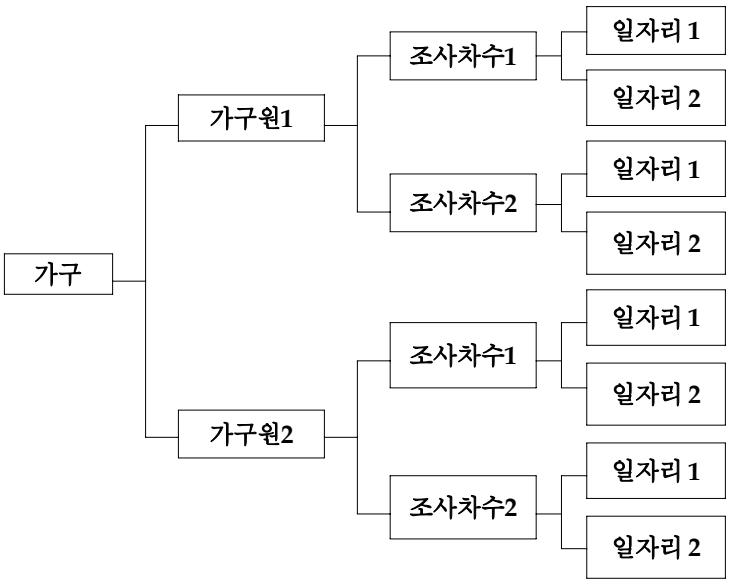
□ 직업력 자료에 포함되는 모든 자료는 조사된 개인의 모든 직업을 포함한다. 즉 원가구원은 물론 비원가구원의 모든 일자리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직업력 자료의 변수는 key 변수, 구성변수, 그 외의 주제별 변수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key 변수 : pid, hhid01~hhid15, hmem01~hmem15
- 구성변수 : jobwave, jobseq, jobnum, jubnumc, jobcens, jobtype, jobclass, mainjob
- 그 외의 주제별 변수 : key 변수와 구성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 직업력 자료의 구조를 [그림Ⅴ-1]을 통해 살펴보자. 한 가구에 속한 가구원1과 가구원2는 각각 조사차수 1, 2에 두 개씩의 일자리를 가지므로 직업력 자료에 이들의 일자리 정보는 8개의 행을 차지하게 된다.

〔그림 Ⅴ-1〕 직업력 자료의 구조



3.2 직업력 자료의 내용

□ 직업력 자료에서 key가 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jobwave
  - ‘일자리 발견 차수’를 의미하며 해당 직업이 조사된 차수를 나타낸다.
  - 1부터 15까지는 각 일자리가 조사된 차수를 의미한다.
- jobseq
  - ‘개인이 가진 일자리 순서’를 의미하며 동일한 일자리가 지속된다면 항상 동일한 jobseq를 갖는다.
- jobnum
  - ‘일자리 번호’를 의미한다.
  - 회고적 일자리는 처음으로 패널 조사에 응하기 전에 가졌던 일자리로, 순서대로

한자리의 값이 부여된다.

- 처음으로 패널 조사에 응하기 바로 직전에 그만둔 일자리에 대해서는 '100'값이 부여된다. 다만, 12차년도 조사에 추가된 표본의 경우에는 '1200'값이 부여 되었다.
- 회고적 일자리를 제외한 일자리는 세자리의 값을 가진다. 백단위는 조사 차수를 의미하며 십-일단위는 조사 시점에서 일자리가 발견된 순서대로의 일련번호이다.

- jubnumc
  - '지난 조사 당시의 일자리 번호(jobnum)'를 의미한다.
- jobcens
  - 이전 조사와 현 조사 시점의 일자리의 보유/미보유 여부를 의미한다.
  - '0'은 회고적 일자리에 관한 자료이다.

    '1'은 이전 조사시 보유했고, 현재도 보유된 일자리를 의미한다.

    '2'는 이전 조사시 보유했고, 현재 미보유된 일자리를 의미한다.

    '3'은 이전 조사시 미보유했고, 현재 보유된 일자리를 의미한다.

    '4'는 이전 조사시 미보유했고, 현재 미보유된 일자리를 의미한다.
- jobtype
  - '일자리의 형태(임금/비임금)'를 의미한다.
  - '1'은 임금근로자, '2'는 비임금근로자, '0'은 모름/무응답 혹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 jobclass
  - '일자리 유형'을 의미한다.
  - 해당 일자리가 유형 1 - 유형 8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의미한다. 유형 설문지는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으므로 1차년도에 조사된 일자리와 신규조사자에게서 추출된 일자리는 이 변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 mainjob
  - 해당 jobwave에서의 '주된 일자리 여부'를 의미한다.
  - '1'은 주된 일자리를 의미하며, '0'은 기타 일자리를 의미한다.

□ 앞에서 살펴본 주요 변수 외에 직업력 자료를 구성하는 변수들과 그 내용은 <표 Ⅴ-25>와 같으며 변수 사용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변수에 따라 임금근로자에게만 해당되거나 혹은 비임금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변수가 있는 반면 모든 취업자에게 해당되는 변수도 있다.
- '업종(2007코드; 9차개정)'(j631)와 '직종(2007코드; 6차개정)'(j633)은 12차부터 조사되었다.
- '초과근로시간 단위구분'(j804)은 2차부터 조사되었다.
- '월평균임금의 세금액'(j730)과 '취업당시 월평균임금의 세금액'(j731)은 7차년도부터 추가되었다.
- '비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j802) 및 '시작 당시 월평균 적자액'(j803)은 7차년도부터 추가되었다.
- 사회보험 세부 항목 중 '특수직역연금'(j402)과 산재보험(j405)은 3차년도부터 조사되고, '(비임금) 산재보험 가입여부'(j1103)은 11차부터 조사되었다.
- '일자리의 주된 장소'(j1101)와 '조직형태'(j1102)은 11차년도부터 조사되었다.
- '노조가입경로'(j510)와 '노조비가입 이유'(j511)는 3차년도부터 조사되었고, '노조탈퇴의향(j901)'은 9차년도부터 조사되었다.
- 실업급여 신청여부, 액수, 수령기간 등(j611-j616)은 5차년도부터 추가되었다.
- 교대제 유무, 형태, 근로시간 변경 주기(j621-j623)는 5차년도부터 추가되었다.
- 월평균 임금 및 처음월평균임금의 세금액(j730, j731)은 7차년도부터 추가되었다.

〈표 Ⅴ-25〉 직업력 자료의 변수

내 용	15차
취업시기 및 퇴직시기(임금)	J001-J006
구직활동 관련(임금/비임금)	J007-J022
업종, 직종(임금/비임금) 및 직위(임금)	J630-J631, J632-J633, J134-J139
고용형태(임금)	J141-J145
종사상 지위(임금/비임금)	J146-J150
근로시간 형태(임금)	J151-J155
근로계약기간(임금)	J156-J159
근로시간 및 초과수당 관련(임금)	J201-J212, J804
임금(임금) 및 소득(비임금) 관련 사항	J301-J318, J322-J327
(취업당시/시작당시)월평균임금의 세금액	J730-J731
비임금 근로자의 (처음)월평균 적자액	J802-J803
사회보험관련(임금)	J401-J405, J1101-J1102
기업 형태 및 규모(임금)	J501-J504
가족종사자의 수(비임금)	J505
노동조합 관련(임금)	J507-J511, J901
퇴직 및 퇴직금 관련(임금)	J601-J608
실업급여 관련(임금)	J611-J616
교대제 관련(임금)	J621-J623

⦿User notes : 취업시기 및 퇴직시기가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취업시기는 1999년 5월 3일인데 퇴직시기는 1999년 3월 1일로 퇴직 시기가 취업시기보다 앞서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실사과정에서 발생한 응답자 혹은 면접원 오류로 확인된다.

□ 이상에 언급된 내용은 토대로 다음의 <예시>를 통해 직업력 자료의 구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 <예시>의 11개의 행이 동일한 pid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동일인의 자료임을 알 수 있다.
- jobseq(일자리의 번호)를 보면 3까지의 값을 가지므로 이 사람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3개의 일자리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3번을 가지는 일자리들은 모두

동일한 일자리들이 다음 차수에도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jobwave(일자리 발견차수)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자리는 '1'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 일자리는 1차년도에 조사된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2, 3, 4, 5, 6, 7, 8, 9까지는 각각 2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 조사된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 jobnum(일자리 번호) 중 '1'과 '100'의 값을 갖는 두 일자리는 1차년도에 조사된 회고적 일자리이며, 특히 '100'은 1차년도 당시 가장 최근에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101'은 1차년도에 발견된 첫 번째 일자리, '201'은 2차년도에 발견된 첫 번째 일자리이다. 이런식으로 '301', '401', '501'까지 이 개인은 매년 한 개씩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jobnumc(지난 조사당시의 일자리번호)를 통해서 이 개인이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 매년 동일한 일자리를 계속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obnum '201'옆의 칼럼이 '101'이므로 이것은 현재 일자리 번호가 '201'번인 일자리가 지난조사 당시에는 '101'번이었던 일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jobseq가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 동일한 '3'값을 갖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 jobcens(일자리 지속 여부)는 위의 두 개의 일자리는 '0'의 값을 가지며, 세 번째 행에서는 '3'값을 가지며 이후부터는 '1'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의 두 개의 일자리는 회고적 자료임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일자리는 이전조사시 미보유했고 1차년도 조사당시 가진 일자리임을 의미한다. 2차년도에는 이전조사시 보유했고 2차년도 조사당시에도 보유하고 있는 일자리이므로 '1'값을 가지며, 이는 3-5차년도까지 반복된다.
- jobtype(일자리의 형태)는 모두 '2'의 값을 가진 것을 보아 세 일자리 모두 비임금형태의 일자리인 것을 알 수 있다.
- jobclass(일자리 유형)은 2차년도부터 '3'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 일자리는 유형3, 즉 비임금근로 중 이전조사시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보유하고 있는 일자리이다. 전년도까지의 값이 'missing'인 이유는 당연하게도 '유형설문지' 자체가 2차년도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mainjob(주된 일자리 여부)는 1차년도부터부터 시작된 jobseq '3'의 일자리가 모두 주된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예 시〉

pid	jobwave	jobseq	jobnum	jobnumc	jobcens	jobtype	jobclass	mainjob
13801	1	1	1	.	0	2	.	0
13801	1	2	100	.	0	2	.	0
13801	1	3	101	.	3	2	.	1
13801	2	3	201	101	1	2	3	1
13801	3	3	301	201	1	2	3	1
13801	4	3	401	301	1	2	3	1
13801	5	3	501	401	1	2	3	1
13801	6	3	601	501	1	2	3	1
13801	7	3	701	601	1	2	3	1
13801	8	3	801	701	1	2	3	1
13801	9	3	901	801	2	2	4	0

4. 부가조사자료

4.1 3차년도 부가조사 - 청년층 자료

4.1.1 청년층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3차년도(2000년) 조사
- 조사대상 : 만15세 이상 - 3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1970년 5월 1일 이후부터 1985년 4월 30일까지 출생한 개인
- 조사목적 : 청년 실업 문제와 청년 유휴인력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규명과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됨.
- 조사내용 및 자료의 구조 : 청년층 설문지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4.1.2 청년층 자료의 내용

□ 청년층 자료의 내용은 <표Ⅴ-26>와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학력관련 변수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4년제), 대학원(석사과정), 대학원(박사과정)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유형과 계열/전공, 학교 이름, 소재지, 졸업/그만둔 시기와 재학여부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
- 졸업 당시의 건강상태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자격증은 재학 중 혹은 졸업하면서 취득한 자격증 여부와 자격증 종류를 묻고 있다.
- 재학 중 직업훈련은 재학 중 취업을 위해 받은 훈련, 교육, 실습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다.
- 재학 중 취업(아르바이트)은 일한 내용과 일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직활동과 취업 경험은 졸업/중퇴/휴학 이후 구직활동방법과 기간, 취업제의 경험 유무와 취업 제의 거절 이유, 2개월 이상 취업 경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첫 일자리는 최종적인 학업 종료 이후 첫 일자리의 업종, 직종, 직위, 종사상 지위, 일자리 규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Ⅴ-26〉 3차년도 부가조사 - 청년용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3차
학력	A030101-A030173
자격증 및 훈련	A030201-A030274
구직활동	A030301-A030342
첫 일자리	A030401-A033344

⦿User notes : 청년용 자료에서 학력변수(A030101-A030105)는 최종학력을 응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고, 현재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 중인 학력을, 졸업이나 중퇴 한 경우 졸업이나 중퇴한 최종 학력을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응답자에 따라서 최종 학력 이전의 모든 학업 스토리 혹은 부분적 학업 스토리를 기재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응답자가 기재할 수 있는 최대치인 5개의 학력 변수가 생성되었다.
청년용 자료를 다른 개인 데이터와 연계하여 사용할 때는 pid를 key변수로 사용하면 된다.

4.2 4차년도 부가조사 - 건강과 은퇴 자료

4.2.1 건강과 은퇴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4차년도(2001) 조사
- 조사대상 : 건강 - 15세 이상 모든 개인 설문 조사 대상자
  은퇴·노후생활 - 만45세 이상 응답자
- 조사목적 :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은퇴 및 노후생활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함.
- 조사내용 및 자료의 구조 : 건강과 은퇴 설문지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4.2.2 건강과 은퇴 자료의 내용

□ 건강과 은퇴 자료의 내용은 <표Ⅴ-27>과 같다.

- 건강상태는 현재와 1년 전의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에 제한을 받았던 경험을 묻고 있다.
- 장애/장해는 장애/장해 여부와 종류, 장애/장해 판정 여부와 급수, 장애와 관련된 근로의 제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병은 지병의 유무와 종류, 지병 시작 시기 등을 묻고 있다.
- 입원 경험과 건강진단은 입원 경험 및 입원 이유와 정기적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다.
- 의료기관 이용은 의료기관 이용경험과 이용 의료기관 형태 및 이용 의료 서비스 종류를 묻고 있다.
-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다.
- 건강관련 사항은 흡연과 음주, 운동 관련 사항을 묻고 있다.
- 피부양과 부양은 피부양 여부와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
- 건강상의 문제와 근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일하는데 제약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출산휴가 사용 여부 등을 묻고 있다.

- 은퇴와 노후 생활은 은퇴 상태와 은퇴 계획, 은퇴 시기, 은퇴자의 생활비 조달 방법 등을 묻고 있다.

〈표 Ⅴ-27〉 4차년도 부가조사 -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4차
건강과 생활습관	A041101-A041104
장애	A041201-A041264
질병	A041301-A041356
국민건강보험	A041401-A041428
건강 및 생활습관	A041111-A041142
건강상 문제로 인한 부양 및 피부양	A041501-A041524
근로	A041601-A041644
은퇴	A041701-A041772

4.3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

4.3.1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6차년도(2003) 조사
- 조사대상 : 만 50세 이상(1953년 4월 30일 이전에 출생) 모든 개인
- 조사목적 :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고령자들의 노후 대책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설계되었다.
- 조사내용 및 자료의 구조 : 가구정보와 중고령자 부가조사 설문지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4.3.2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

□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은 <표Ⅴ-28>과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은퇴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은퇴자'를 정의하고 은퇴 연령 및 은퇴이유, 그리고 은퇴 계획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은퇴할 당시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의 특성은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가 은퇴한 후에 다시 재취업한 일자리인지 아니면 여전히 주된 일자리인지를 판별한다. 그 다음으로는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의 산업, 직업, 재직기간, 종사상지위, 근로시간 형태, 사업체의 규모, 근로시간, 임금 등을 조사하였다.
- 개인의 생애주기 전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를 45세 전후로 보고 이 당시의 취업활동을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종사상 지위와 산업, 직업에 대해 간략하게 조사하였다.
- 고령자들의 소득원에 대해서도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자산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수급, 공적이전, 사적이전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미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가구자료에서 가구단위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자료에서도 개인단위의 근로소득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중고령자 자료의 소득자료까지 분석에 적용할 경우 고령자의 소득원천에 대해 보다 상세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자의 경제생활은 가족내의 경제적 교류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므로 이를 파악하였다. 자녀의 수 및 가족내 어떤 구성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혹은 반대로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 부모님에 대한 부양을 누가 담당하는지, 혹은 했는지도 조사하였다. 친구 및 친지와의 교류 정도, 친목모임, 종교모임 등 노후 활동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난 2주 동안의 건강상태와 질병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표 Ⅴ-28〉 6차년도 부가조사 -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6차
은퇴	A061702-A061704
중고령자 주된 일자리	A061801-A061836
소득	A061901-A061952
경제적 교류 및 사회관계 등	A062001-A062084

4.4 7차년도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4.4.1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7차년도(2004) 조사
- 조사대상 : 모든 개인
- 조사목적 : 2004년부터 7월부터 실시되는 '법정근로시간단축'이 경제생활 및 여가 생활의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위해 설계되었다.
- 조사내용 및 자료의 구조 : 근로시간과 여가 설문지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4.4.2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

□ 근로시간과 여가 자료의 내용은 <표Ⅴ-29>과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임금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 : 직장에서의 근무시간, 정기휴일, 휴무
  (법정공휴일, 명절, 기타 휴가)에 대해 직장에서의 제공여부와 실제로 응답자가 쉰날. 연월차 휴가 및 수당 여부, 하계휴가 및 생리휴가 사용 여부 및 회수
-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 : 근무시간의 규칙성 여부, 평일 근무 중 시간배분, 주5일제의 효과, 휴일(법정공휴일 및 명절, 기타 휴무, 하계휴가)관련 사항
-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의견(임금/비임금) : 근로소득, 휴가일수, 실근로시간, 취업기회 등의 증감 여부, 근무시간과 노동강도 증감 여부, 2002년 1월 이후 정규근로시간 단축 여부
- 여성의 출산휴가 : 출산 경험여부, 출산 당시 취업형태, 출산휴가 여부
- 일상의 시간배분 : 평소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시간배분을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조사함.
- 여가관련 사항 : 지난 주 여가활동여부/소요시간/경비 등, 여가 활동의 순위, 지난 1년간의 독서량, 신문 구독량, TV시청시간, 종교활동 참여수준

〈표 Ⅴ-29〉 7차년도 부가조사 -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7차
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	A072501-A072658
비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	A072701-A072851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휴가	A072901-A072936
시간배분	A073001-A073051
여가활동	A073101-A073182

4.5 8차년도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부가조사

4.5.1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부가조사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8차년도(2005) 조사
- 조사대상 : 모든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일부
- 조사목적 :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제, 다양한 형태의 노사의사소통체계 등의 실태와 의식을 사업체 단위가 아닌 근로자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연구의 발전에 기여한다.
- 조사내용 및 자료의 구조 :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설문지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4.5.2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

□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자료의 내용은 <표Ⅴ-30>와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노동조합 가입과 참여 : 직장의 노조 존재여부, 노동조합 가입여부, 노조 가입과 탈퇴 의사 여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참여수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협력수준, 단체협상의 적용 수준, 노조 비가입 이유, 이전 일자리에서의 노조가입 경험, 자발적 이직 여부
- 노사협의회 운영 : 노사협의회 운영여부,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관심수준 및

의식,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대한 의식

- 인적자원관리와 근로자 대표제도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을 제외한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소통제도의 존재여부,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 직무상의 의사결정 참여와 영향력 수준, 임금, 근로시간, 노동강도 등에 대한 불만 및 의사소통경로, 고용주와의 신뢰관계 수준
- 우리나라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 노동조합의 근로조건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견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견해, 노동조합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견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에 대한 응답자의 판단
- 응답자의 정치·경제·사회적 가치관 : 우리나라 고용주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견해, 응답자 개인의 사회적 가치관

〈표 Ⅴ-30〉 8차년도 부가조사 -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8차
노동조합	A083501-A083554
노사협의회	A083601-A083624
인적자원관리 및 근로자대표제도	A083701-A083824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및 정치·경제·사회 가치관	A083901-A083964

4.6 9차년도 청년용 부가조사

4.6.1 청년용 부가조사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9차년도(2006) 조사
- 조사대상 : 만 15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층(1971-1991년 출생자)
- 조사목적 : 청년층의 성장당시 가족 및 학교생활과 현재의 구직활동, 취업, 임금 등과 같은 노동시장 행태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함.
- 조사내용 : 취학전, 취학이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사교육, 성적, 일자리 경험, 첫 일자리의 특성, 가족들과의 일상적 관계, 청년층 무업자(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행태 등.

4.6.2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

□ 청년층 자료 내용은 <표Ⅴ-31>과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유소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학교생활 및 교육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당시의 사교육 경험, 사교육 종류, 어학연수 경험, 성적, 학업력(Educational history)
- 대학교 및 대학원 진학 : 대학교 입학여부, 전공, 편입여부, 학점, 졸업여부 대학원 입학여부, 전공, 진학 이유 등
- 졸업 후 첫 일자리 경험 : 졸업 후 구직활동, 졸업후 첫 일자리 종사상지위, 근무형태, 고용형태, 기업형태, 소득, 근로시간, 전공 및 교육수준 일치도, 그만둔 시기 및 이유
- 성장기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 성장기 당시 부모와의 동거여부, 모친의 직업유무, 14세 당시의 집안형편, 문화활동 참여, 가족관계
- 무직자의 행태 및 청소년기의 일탈행위 : 무직자의 행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절의 휴학, 지각, 결석, 폭행, 술, 담배 등의 일탈행위

〈표 Ⅴ-31〉 9차년도 부가조사 -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9차
유소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학교생활 및 교육	A09001-A09048
대학교 진학	A09049-A094i3
대학원 진학	A09051-A095F2
졸업 후 첫 일자리 경험	A09061-A09096
성장기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A09098-A09163
무직자의 행태 및 청소년기의 일탈행위	A09164-A09193

4.7 10차년도 고용형태 부가조사

4.7.1 고용형태 부가조사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10차년도(2007) 조사
- 조사대상 : 임금근로자 4,327명과 고용주/자영자 432명
- 조사목적 : 고용형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 조사내용 : 임시적 고용, 간접고용, 일일/호출근로, 특수고용, 시간제 근로 등

〈표 Ⅴ-32〉 고용형태 자료의 변수

내 용	10차
고용형태 판별	A105101-A105121
한시근로 및 임시적 계약형태	A105200-A105223
간접고용	A105300-A105369
일일호출근로	A105400-A105405
특수형태고용	A105500-A105535
시간제 근로	A105600-A105618
직장상황 및 적응	A105700-A105705

4.8 11차년도 교육 부가조사

4.8.1 교육 부가조사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11차년도(2008) 조사
- 조사대상 : 만 15세 이상 65세 응답자(만15세로 중학교 3학년 재학중인 응답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목적 : 개인의 사교육 및 교육과 관련된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회고적 정보, 본인 및 자녀의 현재 사교육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함.
- 조사내용 : 중·고등·대학교 다녔는지 여부, 다니지 않았다면 그 이유, 검정고시 여부, 학교 생활 만족도, 학교 활동, 성적 성취도, 사교육, 공부시간 등과 자녀교육 관련 문항, 군복무 관련 등.

4.8.2 교육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

□ 교육 부가조사 자료 내용은 <표Ⅴ-33>과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 및 중학교 생활 : 중학교에 다녔는지 여부, 검정고시 여부, 입학년도, 졸업년도, 중학교 이름, 위치, 학교형태, 남녀공학 여부, 중학교 생활 만족도, 사교육 경험 여부, 공부 시간, 성적 성취도, 중퇴한 이유
-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생활 : 고등학교에 다녔는지 여부, 검정고시 여부, 입학년도, 졸업년도, 중학교 이름, 위치, 학교형태, 남녀공학 여부, 인문계/실업계 여부, 고등학교 생활 만족도, 자율학습 여부, 사교육 경험 여부, 공부 시간, 성적 성취도, 중퇴한 이유
- 고등학교 재학 생활 : 학습시간 및 수면시간, 컴퓨터 사용시간, 사교육 경험 여부 및 사교육 종류, 학교 성적
- 대학교 및 대학 생활 : 대학교에 다녔는지 여부, 대학과 전공 선택 여부, 성적, 대학교 생활 만족도, 등록금 충당 방법 및 장학금 수혜 여부, 학습시간 및 수면시간, 국가시험 준비 여부, 해외체류 경험 여부
- 대학생 생활: 학교생활 만족도, 등록금 충당 방법, 장학금 수혜 여부 등
- 자녀 교육 : 자녀들과의 대화 정도, 이민 및 해외유학 고려 여부, 자녀들의 학교 만족도, 자녀의 현재 성적, 자녀의 기대 성적
- 군복무 : 군복무 여부, 군복무 하지 않은 이유, 군복무 시기

〈표 Ⅴ-33〉 11차년도 부가조사 - 교육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11차
중학교 및 중학교 생활	A116101-A116178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생활	A116201-A116298
고등학교 재학생 관련	A116301-A116344
대학교 및 대학교 생활 관련	A1164011-A116456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관련	A116501-A116552
자녀교육 관련	A116601-A116661
군복무 관련	A116711-A116719

<부록 1> KLIPS 자료를 이용한 문헌 목록

※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활용목록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패널 홈페이지: http://www.kli.re.kr/klips/ko/main/main.jsp

<2011년>

○강성호, 최석봉, 2011, 공적(국민)연금제도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 사회후생함수활용에 의한 접근 A Study on Distributional Effects of Public Pension Scheme : An Empirical Analysis, 금융지식연구 9권1호,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고은미 (Eun-Mi Ko), 2011, 1999～2008년 한국에서 대졸자 간 임금격차의 변화 Changes in Wage Differentials among College Graduates in South Korea : 1999-2008, 노동경제논집, Vol.34 No.1 [2011], pp.103-138, 한국노동경제학회

○고이시노리미지, 2011, 일본의 생활보호와 생활보장 Livelihood Protection and Security in Japan, 會法硏究(Studies of Socisl Security law) Vol.17, pp.93-111, 한국사회법학회

○권혁진, 2011, 패널자료 활용 연구 2 : 노동과 은퇴 : 기대연금자산이 중,고령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2011권1호,pp.127-148, 한국사회보장학회

○금재호, 2011, 성별임금격차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gnation of the Gender Wage Differences in Korea, 국제경제연구 Vol.17 No.3, pp.161-184, 한국국제경제학회

○금재호, 2011,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월간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pp.61~75,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이인실, 2011, 자영업매출과 소득의 결정요인분석An Analysis on Sales and Income of Self-employment,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4호,103-140(38pages), 한국경제연구학회

○김준형(Jun-hyung Kim), 김경환(Kyung-hwan Kim), 2011, 고령화와 주택시장 : 은퇴전후 주택소비변화를 중심으로 Aging and Housing Market : Evidence from Changes in

Housing Consumption Before and After Retirement, 부동산학연구 제17집 제4호 pp.59~71, 부동산학회

○ 김경아(Kyoung-Ah Kim), 2011, 국내가계의 부채증가추세 및 요인에 관한연구 - 미시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Study on Trend and Determinants of Domestic Households' Debt - Analysis of Micro - Level Data-, 응용경제, Vol.13 No.1 [2011], pp.209-237, 한국응용경제학회

○ 김계숙, 민인식, 2011, 기대효용접근법에 근거한 도시가구의 빈곤에 대한 취약성분석 An Analysis of Vulnerability to Poverty for Urban Households in Korea : Vulnerability as Expected Utility Approach, 노동정책연구 2011년 제11권 제1호, 167-193 (27pages),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승(Gi-Seung Kim), 2011, 연령세대별 고용형태변화연구 The Determinants of Shifts of Employment Structure by Age Groups in Korea, 경제연구 Vol.29 No.2 [2011], pp.95-110, 한국경제통상학회

○ 김기헌(Ki-Hun Kim), 신인철(In-Chol Shin), 2011, 생애 초기교육기회와 불평등 : 취학전 교육 및 보육경험의 사회계층간 격차 Opportunity and inequality at the starting gate: Social class difference in early care and education in Korea , 교육사회학연구, Vol.21 No.4 pp.29-55, 한국교육사회학회

○ 김대호, 강동묵, 김종은, 김영기, 설진곤, 최순, 2011, 성별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소득지표별 자가평가건강수준 비교 - 제11차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소득지표에 따른 성별 건강수준 비교 Comparison of the Self-rated Health Status of Wage Workers in Korea according to Income Index by Gender,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제23권 제4호 360-370(11pages),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김병수(Byung-Soo Kim), 박병진(Byoung-Jin Park), 2011,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on Regimes and Workers' Commit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45 No.3 pages171-193,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 김성숙, 2011, 저소득층 일인가구 및 非일인가구의 가계재무상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Vol.29No.4[2011],pp.125-145, 한국가정관리학회

○ 김성훈, 2011, 간접고용결정요인 : 거래비용이론과 비용우위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권 1호 pages1-28,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옥연, 문영기, 2011, 가계자산구조와 주택소유결정요인분석 - 보통가구와 1인가구의 비교 Asset Portfolio of Households and Home-Ownership Determinants - A comparison between the normal and one person households, 주거환경통권 제9권 제1호 (통권 제15호) 25-38(14pages), 한국주거환경학회
○ 김준형(Jun-Hyung Kim), 최명섭(Myoung-Sub Choi), 2011, 부동산자산의 지역 불균형 Regional Decomposition of Household's Real Estate Asset, 응용경제, Vol.13 No.2, pp.99-129, 한국응용경제학회
○ 김준형, 루이스 알렉산더, 2011, 주택시장의 손실회피행태와 기준점설정에 관한 연구 Loss Aversion and its Reference Point in the Housing Market, 국토연구통권 제 69권, 141-155(15pages), 국토연구원
○ 김진영, 2011, 교육집단별 건강추세에 대한 분석 Trends in Health across Educational Groups, 한국인구학 제34권 제1호, 99-127(29pages), 한국인구학회
○ 김혜원, 2011, 여성의 경력단절과 임금 손실 Women's Career Interruptions and Wage Losses, 경제발전연구 Vol.17 No.2 [2011], pp.181-210, 한국경제발전학회
○ 김환준(Hwan-Joon Kim), 2011, 누가 왜 빈곤에 빠지는가? 빈곤진입자의 특성 및 요인 Why Do Some People Become Poor?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Poverty Entry, 사회복지연구(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2 No.4 [2011], pp.365-388,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남기곤(Ki-Gon Nam), 2011, 고등학교단계 학업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The Economic Effect of High School Dropout in Korea, 서강경제논집 Vol.40 No.3 [2011], pp.63-94,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 남상호, 2011, 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방법론,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1 3-52, 한국사회보장학회
○ 남춘호, 2011, 고용의 질 지수를 이용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추세 분석An Analysis of the Trend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the Korean Labor Market : Centering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경제와사회 통권 제92호, 305-350(46pages), 비판사회학회
○ 류정진, 전영환, 남용현, 박창수, 2011, 장애인고용정책20년, 성과와과제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in Korea : Its outcomes and problems, 직업재활연구 제20집 제3

호 35-53(19pages), 한국직업재활학회
○ 민현주, 김은지, 2011, 출산 순위 별 출산결정요인분석 The Timing of Births among Korean Women : Parity Differences in Childbirths, 한국사회학 제45집 4호, 198-222(26pages), 한국사회학회
○ 박경하, 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유형화연구 - 다양성과 불평등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권3호 pages291-327,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박은하, 2011, 성별에 따른 '양질의일자리' 결정요인연구Determinant Factors of Having a Good Quality Job by Gender, 한국여성학제27권3호, 1-38 (38 pages), 한국여성학회
○ 방하남, 신인철, 2011, 강요된 선택 : 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재취업의 동학 분석A Forced Choice : the dynamics of retirement and reemployment of old-aged workers in Korean, 한국사회학 제45집 1호 73-108(37pages), 한국사회학회
○ 배영목(Young-Mok Bae), 2011, 가계부채상환부담의 분포와 추이 The Distribution and Trend of Korean Household's Debt Burden, 경제발전연구, Vol.17 No.1 [2011], pp.87-120, 한국경제발전학회
○ 백화종(Hwa-Jong Baek), 강성호(Sung-Ho Kang), 2011, 연금제도 성숙시점에서의 노인빈곤율 추정과 국민연금의 빈곤개선효과 A study on improvement in poverty rate of National Pension in Korea, 사회보장연구 Vol.27 No.4 pp.247-272, 한국사회보장학회
○ 성문주, 2011, 젠더와 교육기회 불평등 - 고등교육 이수기회에 나타난 젠더와 가족배경효과 Gender and Educational Inequality : The Effect of Gender and Family Economic Class on Higher Education, 젠더와 문화 제4권 제1호 7-42(36pages),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성재민(Jae-Min Seong), 2011, 저소득자 노동시장 지위변화에 대한 동태적분석 Study on The Labor Market Dynamics of Low Income Earners, 사회보장연구, Vol.27 No.4 [2011], pp.165-189, 한국사회보장학회
○ 성지미, 2011, 자영업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 경력초기자 영업선택의 장기효과 Choice and Performance of Self-employment : the Earnings Effect of Self-employment during Early Work Life, 노동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53-80(28pages), 한국노동연구원
○ 송영남(Yong-Nam Song, 2011, "좋은 일자리"분포의 지역별 변화와 이행과정의 결정 요인 The change in Regional Distribution and transition of "good jobs" and its

Determining Factors, 지방행정연구 Vol.25 No.3 pp.313-34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신동훈, 장희순, 2011, 주택가격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on Bi-polarization in Housing Price, 주거환경통권 제9권 제2호 (통권 제16호), 103-115(13pages), 한국주거환경학회
○ 우해봉, 2011, 한국인의 성별 및 교육수준별 이혼패턴에 관한 연구 Gender and Educational Differences in Divorce in South Korea, 사회복지정책, Vol.38 No.4 [2011], pp.139-16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유완식, 20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분석, 고용개발원정책연구 2011-0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유주희, 문춘걸, 2011,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평탄화 Consumption Smoothing over the Life Cycle, 경제연구제32권제1호 1-25(25pages),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 윤재호, 김현정, 2011, 은퇴와 가계 소비 간 관계분석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and Household Consumption, 한국은행 경제분석 Vol.17 No.1 pp.1-44,
○ 이건수, 2011, 가구부동산 포트폴리오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Real Estate management report Vol.07, 미래에셋부동산연구소
○ 이병희, 2011,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 청년고용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산업노동연구 17권 1호 pages71-95, 한국산업노동학회
○ 이상은, 이은혜, 정찬미, 2011, 한국에서 자산빈곤의 변화추이와 요인 분해 Trend and Decomposition of Asset Poverty in Korea,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3호 3-37(35page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협, 박찬용, 정성석, 최혜미, 2011, 한국노동패널탈락분석 Panel attrition factors in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22 no.1 pp.1-8,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 이영민(Young-Min Lee), 이호섭(Ho-Sub Lee), 2011, 중소기업재직자의 자격보유 실태 및 자격의 효과분석 Analyzing The Impacts Of Employees' Acquisition And Retention Of Vocational Certification On Employment, Wag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edium-Sized Corporations, 인적자원관리연구 Vol.18 No.2 pp.27-45,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 이용우, 2011, 주택가격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시적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of Effect of House Price on Household Saving Behavior using Micro Data, 사회경제평론, Vol.37 No.1 [2011], pp.169-197, 한국사회경제학회
○ 이원진, 2011, 개인화(individualization)인가 계층화(stratification)인가? 생애사건과 사회계층이 빈곤진입에 미치는 영향 Individualization or Stratification? The Effect of Life Course Event and Social Stratification Determinants on Poverty Transition, 한국사회학 제45집 5호 25-60(37pages), 한국사회학회
○ 이주재, 2011, 노인장기요양인력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영향, 한국노년학 31권 2호 pages277-290, 한국노년학회
○ 이철인, 유경준, 2011, 재직자 직업훈련관련 공적재정의 구조와 성과 - 효과 분석 Training Incentives in the Korean Levy - Grant System and the Performance : Evidences from the KLIPS Data, 한국개발연구 2011년 Ⅲ호, 87-120, 한국개발연구원
○ 이현기(Hyun-Kee Lee), 2011, 일반노인 시간자원봉사의 특징 : 평균시간과 개인자원을 중심으로 Time Volunteering Characteristics of Older Persons in the National Population: Focused on Mean Time and Individual Resources, 노인복지연구, Vol.54 pp.387-411, 한국노인복지학회
○ 임미화(Mi-Hwa Lim),정의철(Eui-Chul Chung),2011,주택가격변화가가구의저축및자산축적에미치는영향 The Effect of Housing Price on Saving and Wealth Accumulation of Homeowners,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Vol.17 No.1 [2011], pp.83-94
○ 임병인(Byung In- Lim),윤재형(Jai-Hyung Yoon), 2011, The Analysis on the Credit Card Bubble in Korea with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and the Liquidity Constraint, 한국사회과학저널(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 38 No. 2, December 2011, pp. 53~79
○ 장연주, 이민환, 황한식, 2011, 한국의 지역별 가구소득불평등 분해분석 Decomposing Income Inequality by Regions in Korea, 지역사회연구19권3호1-20, 한국지역사회학회
○ 장은진, 석재은, 2011, 결혼해체이후 중장년여성가구주의 적응유형에 관한 종단사례 연구 :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중심으로 A Longitudinal Case Study on the Patterns of Adaptation of Non-Old Aged Female-Headed Households after Marital Dissolution: Focusing on the Changes in Socio-Economic Status, 사회복지정책 Vol.38 No.3 pp.159-19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정한나, 이태, 2011, 한국에는 Glass Ceiling 효과가 존재하는가? - 노동조합과 분위별 성별 임금격차분석을 중심으로 Is there a Glass Ceiling in Korea? : Focused on Labor Union and Gender Wage Gap using Quantile Regression, 산업관계연구 제21권 제1호 153-183(31pages), 한국노사관계학회
○ 조인숙, 2011, 여성의 사회경제적지위와 건강 : 역할 간 대립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Socioeconomic Status and Women's Health : The Impact of Role Conflicts on Women's Health, 여성경제연구 8권1호 pages1-26, 한국여성경제학회
○ 최옥금, 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에 관한 연구 : 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ransition to Retirement of the Middle-Aged in Korea : Focused on the Career Job and the Bridge Job, 한국노년학 31권 1호 page15-31, 한국노년학회
○ 최은선, 남진, 2011, 자가가구와 전세가구의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비교분석A Study on Comparing Effect Factors on the Residential Duration of Homeowner and Rental Household,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4호 123-136(14pages), 서울연구원
○ 최지은(Ji-Eun Choi), 홍기석(Ki-Seok Hong), 2011,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분석 -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Earnings Mobility in Korea: Father-Son Correlations in Labor Earnings, 사회보장연구, Vol.27 No.3 [2011], pp.143-163, 한국사회보장학회
○ 허수연, 유태임, 2011, 취업여성의 "자녀유무별 임금격차(Family gap)"에 관한 연구 Children and Women's Income : The Family Gap in Korea,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권 단일호 page139-164,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홍정림(Jeong-lim Hong), 2011,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 변동 분해 : 1998-2007 Decomposition of Change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1998-2007, 여성연구 Vol.80 pp.143-18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인창, 2011, 취업장애인의 일자리 탐색방법과 취업성과 비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연구자료 2011-01, 1-17 (17 pages)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Chang-hui Kang, 2011, Family Size and Educational Investments in Children : Evidence from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in South Korea,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ume73 Issue1 pages59 – 78

○ DanielleVenn, 2011, Earnings Volatility and its Consequences for Household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125, OECD Publishing
○ Glenda Quintini, 2011, Over-qualified or Under-skilled : Are View of Existing Literatur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1, OECD Publishing
○ John C. Ham, Heon-jae Song, 2011, Estimating the Determinants of Bargaining Power Within the Family using Semiprivate Consumption : Transfers to Parents from Their Adult Children and Vice-versa in South Korea, The University of Maryland Saturday seminar
○ Joon mo Cho, Dong hun Cho, 2011, Gender difference of the informal sector wage gap : a longitudinal analysis for the Korean Labor market, 국제여성경제학협회(IAFFE) IAFFE conference
○ OECD, 2011, Chapter A. The outpu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impact of learning, OECD publishing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1 [Annex 3 : Sources, methods and technical notes]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 Robert Rudolf, Sung-Jin Kang, 2011, Adaptation under Traditional Gender Roles : Testing the Baseline Hypothesis in South Korea, Discussion Papers, No. 101, Nov. 2011
○ Thomas Åstebro, Jing Chen, Peter Thompson, 2011, Stars and Misfits : Self-Employment and Labor Market Frictions, INFORMS Management Science Vol.57 No.11 November 2011 pp.1999-2017

<2012년>

○ 강성진, 김수정, 2012, 한국의 대기오염과 생활만족도 Air Pollu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 ,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1 No.4 pp.893-920,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강영주, 정광호, 201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권 4호 pp.265-291, 한국행정학회

○ 강은택, 마강래, 2012,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Migration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국토계획 제47권 1호,33-43(11pages),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권오규, 마강래, 2012, 대학진학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The effect of college on inter-regional migration between SMA and non-SMA, 지역연구 28권 4호 pages65-77, 한국지역학회
○ 김경아, 2012, 자영자와 국민연금,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 논문집, 2012권 1호, pages165-190,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기승, 2012, 파트타임과 풀타임고용형태전환의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Part-Time and Full-Time Employment Transitions, 경제연구 제33권 제1호 23-43(21pages),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
○ 김기승, 오유, 2012, 자영업부문에 있어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The Effects of the Education on Earnings in the Self-employment Sector, 한국경제연구 제30권 제4호 31-61(31pages), 한국경제연구학회
○ 김동현(Dong-Hyun Kim), 최예술(Ye-Seul Choi), 임업(Up-Lim), 2012, 일반화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한 지역 간 노동이동요인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Labor Mobility using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 Individual and Regional Factors, 지역연구 28권 3호 pages3-24, 한국지역학회
○ 김봉근, 석재은, 현은주, 2012,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추세, 노동경제논집 35권 2호 pages25-41,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성숙, 2012, 여성가구주가계 유형별 빈곤가구특성 연구 Study of Characteristics on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s, 젠더와문화 제5권 제1호 71-103(33pages),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김성숙, 2012, 한국 저소득층 가계의 유형과 재무상태 분석 Analysis on Financial Statuses of Single and Non-single Low-income Households, 회계정보리뷰(특별호) 149-173(25pages), 계명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 김성태, 임병인, 이서현, 김명규, 2012, 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 61-87, 한국재정학회
○ 김성태(Sung-Tai Kim), 천용준(Young-Jun Chun), 임병인(Byung In Lim), 2012, An

Analysis on the Income Mobility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경제학연구 2012년 60집4호, 한국경제학회
○ 김영철, 2012, '연줄'인가, '연결'인가? - 인적네트워크의 노동시장 효과분석 Nepotism or Networking? : The Effectiveness of Social Networks in the Labor Market, 한국개발연구 2012년 3호,133-186, 한국개발연구원
○ 김우영, 2012, 한국의 지역 간 임금 격차 -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중심으로 Regional Wage Differentials in Korea : Estimates Based on the Regional Employment Survey, 노동정책연구 2012년 제12권 제1호 1-28(28pages), 한국노동연구원
○ 김은태, 이영민, 2012, 기혼여성의 자격보유와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의 효과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19권1호 pages131-150,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 김종성, 이병훈, 신재열, 2012,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 Job Seeking Method and Over education of Young People, 노동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51-73, 한국노동연구원
○ 김종숙, 이지은, 2012, PSM방식을 이용한 경력단절여성의 임금손실추정 Estimating Korean Women's Income Loss of Career Disruption, 여성연구 Vol.82 pp.75-10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영(Ji-Young Kim), 김재광(Jae-Kwang Kim), 2012, Parametric fractional imputation for non ignorable missing data, Korean Statistical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Volume41,Issue3,September2012,Pages291 – 303, 한국통계학회
○ 김지원, 김형렬, 2012, 교대제 근로의 변동이 자가평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 노동패널조사(2009-2011)를 중심으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12년 제49차 추계학술대회, 440-441(2pages),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김현식, 김지연, 2012, 부모동거가 첫째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residence with Parents on First Childbirth,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경, 이순미, 2012, '개인화'와'위험' -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성인기이행'의 불확실성과 여성내부의 계층화 Individualization and Risk : Uncertainty in the 'Adulthood' Transition and Stratification among Women's Lives in Korea at the End of 20th Century, 페미니즘연구제12권제1호,35-72(38pages), 한국여성연구소
○ 남기성(Ki-Seong Nam), 천영민(Young-Min Chun), 2012, An Analysis of Response

Pattern and Panel Attrition in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응용통계연구(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v.25 no.6 pp.933-945, 한국통계학회
○ 마강래, 안아림, 2012, 지역 간 PIR편차의 시간적 변화에 관한 연구 A Longitudinal Perspective of the Regional Disparities of the PIR, 부동산학보, Vol.49, pp.290-304, 한국부동산학회
○ 민현주(Hyun-joo Min), 2012, Jobs for Women? - Labor Market Exits and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46 No.6 75-93(19pages), 한국사회학회
○ 박기성, 2012, 임금에 대한 맏이 효과 First-Born Effects on Wage, 노동경제논집, Vol.35 No.1, pp.1-19, 한국노동경제학회
○ 박찬웅, 2012, 국민연금가입요인에 관한 성별격차 : 다수준분석기법을 중심으로 Gender Gap in Factors on Joining National Pension : A Multi-Level Analysis, 사회보장연구 28권 4호 pages1-24, 한국사회보장학회
○ 박현정, 정익중, 2012, 이혼, 별거 전후의 소득변화와 영향 요인 The factors influencing change in income before and after divorce, separation, 사회과학연구논총 28권 단일호, pages203-232, 이화여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배지영, 홍백의, 201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입자지위전환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8권 3호 pages213-233, 한국사회보장학회
○ 변금선, 2012, 아동기 빈곤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 The Effect of Childhood Poverty on Adult Attainment, 어린이재단연구논문모음집 2012권 단일호 pages1-53, 초록우산어린이재단(구한국복지재단)
○ 석재은, 김봉근, 노혜진, 2012, 한국의 유배우여성의 경제활동유형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28권 3호 pages87-120, 한국사회보장학회
○ 성은영, 최창규, 2012,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이 전·월세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Analysis of Choosing Chonsei or Monthly Rent under Tenant's Asset Constraint and Income - With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국토계획 제47권 제1호 69-83(15pages),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송준택, 왕종호, 이고은, 권종호, 최현림, 임신예, 2012, 근로시간이 자가평가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12년 제49차 추계학술대회 267-268(2pages), 대한

직업환경의학회
○ 송헌재, 2012,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가구의 출산결정요인분석 Study on Trend and Determinants of Domestic Households' Debt - Analysis of Micro-Level Data, 응용경제 14권 3호,pp.51-78, 한국응용경제학회
○ 안기선, 김윤정, 2012, 중고령취업자의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단기·종단적 영향 Longitudinal and short term effects of senior life plans of the middle aged employee on life satisfaction,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3 No.7, pp.3007-3015, 한국산학기술학회
○ 양정호, 2012,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분석 Effects of Private Tutoring on College Entrance, 교육재정 경제연구 Vol.21 No.2, pp.27-5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어수봉, 2012, 임금연공성과정년제도 - KLIPS 패널분석을 중심으로, 노동경제학회월례발표회, 노동경제학회
○ 어수봉, 유길상, 최기성, 2012, 산업노동연구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개발 ; 위험태도가 자영업선택에 미치는 효과 An Empirical Study on Effects of Risk Attitude on Choices of Self-Employment, 산업노동연구 Vol.18 No.1, pp.35-83, 한국산업노동학회
○ 오신휘, 정창률, 2012, 국민연금개혁에 따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수준변화에 관한 연구 : 중기적 관점에서 A Study on Changes in the Old Age Income Level since the National Pension Reform: In the Mid-term Perspective, 사회복지정책, Vol.39 No.1, pp.1-2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오창섭, 최성혁, 2012, 저출산원인의 실증 분석 - 혼인율 하락과 초혼연령상승의 경제적 요인 The Empirical Study on the Cause of Low Fertility - Factors to Impact on Falling of Nuptiality and Rising of Ageat First Marriage, 복지행정논총 제22집 제1권 91-125(35pages), 한국복지행정학회
○ 우해봉, 2012, 건강기대여명추정에서 건강측정치의 효과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Health Measures on Healthy Life Expectancy Estimates for Middle-Aged and Older Koreans, 사회복지정책 Vol.39 No.4 pp.83-1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우해봉, 2012, 한국인의 재혼 패턴에서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 Gender Differences in Remarriage Formation in Korea,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2호 273-303(31page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경원, 변혜원, 2012, 가계부채의 확대와 대출 제약 The Increase in Household Debt and Borrowing Constraints, 경제분석 Vol.18 No.1 pp.61-83, 한국은행
○ 윤자영, 2012, 노동시장 통합과 결혼 이행 Labor Market Integration and Transition to Marriage, 한국인구학 제35권 제2호159-184(26pages), 한국인구학회
○ 윤정열, 홍기석, 2012, 우리나라의 세대 내 소득이동성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Intra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Korea, 노동경제논집 Vol.35 No.2 pp.43-77,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만우, 김시광, 김란영, 2012, 부모에 대한 경제적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Economic Dependence on Parents and Late Marriage, 한국경제학회 연구보고서 2012-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호, 2012, 한국노동패널(KLIPS)의 표본 이탈분석 -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2005권11월호,pp.66-80, 한국노동연구원
○ 이소라, 홍기석, 2012, 주관적 만족도를 이용한 습관형성이론과 상대소득가설의 검정 Testing for Habit Formation Theory and Relative Income Hypothesis by Using Subjective Well-being, 사회과학연구 Vol.38 No.3 pp.1-27,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이순미, 2012, 일-가족 분담 패턴에 내재한 젠더질서의 지속성 : 첫째 자녀 출산 전후 부부의 경제활동 시퀀스를 중심으로 Consistency of Gender Order in Work-Family Division Patterns: Analysis on Career Sequence of Marital Couples before and after First-Childbirth, 가족과 문화 Vol.24 No.2 pp.182-209, 한국가족학회
○ 이원진, 2012,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불평등 변화와 소득 이동성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Mobility Associated with a Transition to Old Age ,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2호 185-212(28pages),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원진, 2012, 노인 소득불평등추이의 영향요인 Accounting for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4호 163-188(26pages),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윤호, 2012, 개인연금수요의 구조분석 A Study on the Demand Structure of Private Pension, 대한경영학회지 제25권 제1호 195-210 (16pages), 대한경영학회
○ 임현준, 박강우, 2012, 교육비 지출이 가계저축률에 미치는 영향 Expenditures on Education and Household Saving Ratio, 경제분석 Vol.18 No.3 pp.115-155, 한국은행

○ 장용재(Young-Jae Chang), 2012, Wage Determinants Analysis by Quantile Regression Tree,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Vol.19 No.2, pp.293-301, 한국통계학회
○ 정순둘, 이현희,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 1998년과 2008년의 비교 Life Satisfaction for Baby-boomers : Compare 1998 with 2008, 노인복지연구,55권 단일호, pages105-131, 한국노인복지학회
○ 정의철, 2012,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Housing Costs and Household Formation of Young Adults in Korea, 부동산학연구 Vol.18 No.2 pp.19-31,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조막래, 이순아, 2012, 가구생계부양형태에 따른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출 확률결정 요인 The determinant of dual-earner families poverty duration and exit possibility, 지역발전연구, Vol.11 No.2 pp.181-214, 한국지역발전학회
○ 조상미, 박은주, 2012, 산업복지부 가급여수혜의 남녀 간 차이에 관한연구 : 사회보험, 국가 규제적 급여,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The Study of Gender Difference in Fringe Benefits by Classification of Industrial Welfare : Focusing on Social Insurance, National Regulatory Pay, Corporate Welfare, 사회복지연구 43권 4호pages121-149,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지은정, 2012, 경기변동이자 영업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집단별 차이 - 구축가설과 유인가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권 2호 pages141-178,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천영민, 최형아, 권순범, 이상희, 2012,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3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최막중, 강민욱, 2012, 주택소유와 거주의 불일치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auses of Mismatch between Home ownership and Residence, 주택연구 Vol.20 No.2 pp.33-48, 한국주택학회
○ 최열, 김형준, 2012,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주거이동 결정요인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Mobility in Metropolitan Regions and Non-Metropolitan Regions, 국토계획 제47권 제4호 219-231(13pages),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최현자, 김민정A, 이지영, 김민정B, 2012, 경제수명의 산정을 통한 한국가계의 은퇴준비

도 측정 A Study on the Retirement Life Span of Korean Households,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5권 제4호 47-71(25pages), 한국FP학회
○ 최효미, 성재민, 이상호, 배기준, 2012,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CAPI이행 효과 : 실험 설계 및 차수 간 정합성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3권 3호 pp.105-135, 한국조사연구학회
○ 하석철, 2012, 부모-자녀 간 소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수혜자인 부모와 제공자인 자녀를 중심으로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f Income Transfer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Focusing on Parents as Beneficiaries and Children as Providers, 가족과 문화 Vol.24 No.2 pp.101-136, 한국가족학회
○ 한동숙(Dong-sook Han), 배광빈(Kwang-bin Bae), 손호성(Ho-sung Sohn), 2012, Estimating the university prestige effect in South Korea's labor market,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KJEP 9:2 pp.383-396, 한국교육개발원KEDI
○ 허수연, 2012, 자녀유무 별 여성임금격차(Family gap) : 소득분위에 따른 비교연구, 사회복지연구 43권 2호 pages 345-366,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한국고용정보원 KEIS(Koreaemploymentinformationservice), 2012,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Research report-Panel survey for Employment Studies, pp.14-42,
○ 홍백의(Baeg-Eui Hong), 배지영(Ji-Young Bae), 박미희(Mi-Hee Park), 강준모(Joon-Mo Kang), 201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형평성 분석 Equ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between the self-employed and employees, 한국사회정책 19권 1호 pages199-231, 한국사회정책학회
○ 황덕순(Deok-Soon Hwang), 이병희(Byung-Hee Lee), 2012, Low wages and policy op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 Are policies working?, International Labour Review Special Issue : Low-Paid Work in Emerging Economies Volume 151, Issue3, pages243 – 259,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 2012, 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 정책연구시리즈2012-15,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Robert Rudolf, 2012, The Gender - Specific Effect of Working Hours Reductions on Family Happiness in South Korea, 한국경제연구학회

○ Austin Nichols, Philipp Rehm, 2012, Trends in Income Inequality, Inter-temporal variability, and Mobility Risk in Thirty Countries, EUI working Papers MAX WEBER PROGRAMME, EUI(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 Dong-gyun Shin, 2012, Cyclicality of Real Wages in Korea,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Volume 12, Issue 1, ISSN (Online) 1935-1682,

○ Hak-kil Pyo, 2012, The Political Economy of South Korea Under the New International Order, KEIA(한미경제연구소;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Overview and Macro Economic Issue.

○ In-sook Cho, 2012, The Retirement Consumption in Korea : Evidence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Global Economic Review: Perspectives on East Asian Economies and Industries Volume 41, Issue 2

○ In-yong Shin,Eiji Yamamura, Hyun-ho KIM, 2012, The Cubic From Hypothesis and The Flying Geese Pattern Hypothesis of Income Distribution : The case of Korea, TERUM(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es in Urban Management), Vol. 7 Issue 3

○ Isabell Koske, Jean-Marc Fournier, Isabelle Wanner, 2012, Less Income Inequality and More Growth – Are They Compatible? Part 2. The Distribution of Labour Income,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925, OECD publishing

○ Jean-Marc Fournier, Isabell Koske, 2012, The Determinants of Earnings Inequality - Evidence from Quantile Regressions, OECD Journal: Economic Studies Pages 7-36. OECD publishing

○ LiMa, 2012, Employment, Social Policy and Motherhood Entry : The Evidence from South Korea, Stockholm University Linnaeus Center on Social Policy and Family Dynamics in Europe, Working Paper 2012:7,

○ OECD, 2012,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 Final Report to the MCM 2012, OECD Week2002, MCM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OECD publishing

○ OECD, 2012, Reducing income inequality while boosting economic growth : Can it be done?, Economic Policy Reforms 2012 Going for Growth , OECD publishing

○ Seung-Sup Kim, David R. Williams, 2012,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elf-Rated

Health in South Korea :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Seung-Sup Kim, Yeon-seung Chung, S.V.Subramanian, David R.Williams, 2012, Measuring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 Under estimating the Prevalence of Discriminatory Experiences among Female and Less Educated Workers?, University of Arkansas PLoSONE7(3):e32872.doi:10.1371/journal.pone.0032872,
○Sung-il Kwak, 2012, The Impact of Taxes on Charitable Giving : Empirical Evidence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om Schuller, Michael Wadsworth, John Bynner, Harvey Goldstein, 2012, The Measurement of Well-being : the Contribution of Longitudinal Studies,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Longview, July2012
○Yoon-kyung Yuh, Jae-hwan Yang, 2012, Is Life Annuity an Effective Tool for Managing Longevity Risk in Korea?, Asian Economic Journal Volume26 Issue1, pages 1 – 23

<2013년>

○ 김계숙, 민인식, 2013, 무조건분위 회귀를 이용한 도시지역 임금 불평등 변화 분해 Decomposition of Wage Inequality Change for Urban Workers Using'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國土計劃, Vol.48 No.3, pp.53-74 ,
○ 김수정, 김영, 2013, 한국과 일본청년층의 빈곤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A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Youth Poverty in Japan and Korea, 한국사회정책 20권1호 pages223-247, 한국사회정책학회
○ 김준형, 천현숙, 김민철, 2013, 주택수요의 규모별 분포예측 - 맨큐-와일모형에서 추계가구자료의 활용, 국도계획 제48권 제2호 263-279(17pages),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김진영, 송예리아, 백은정, 2013, 학력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 - 노동시장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통한 연결 Education and Self-Rated Health : The Links through Labor-Market Status and Economic Status, 한국사회학 제47집 2호 211-239(30pages), 한국사회학회
○ 박소현, 유종순, 2013, 교육투자수익률 :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Return to Schooling: Panel Data Analysis, 국제경제연구 Vol.19 No.1 pp.135-160, 한국국제경제학회

○ 유승호 외 다수, 2013, 게임이용자 패널연구 예비조사, KOCCA 연구보고서13-01, 한국콘텐츠진흥원
○ 장연주, 이민환, 2013,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실태와 요인분석 Estimating the condition and determinants of wage workers" job instability by regions, 지역사회연구 21권 1호 121-145(25pages), 한국지역사회학회
○ 정의철, 임미화, 2013, 패널자료를 이용한 청년가구원의 가구형성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Household Formation of Young Adults in Korea: A Panel Data Analysis, 주택연구 Vol.21 No.2 119-139(21쪽), 주택연구
○ 정의철, 2013,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형태변화결정요인분석 - 55세이상 자가점유가구를 중심으로 Housing Tenure Transition Decisions of Older Home owners in Korea, 국토연구통권 제77권 119-136(18pages), 국토연구원
○ Bo M. Kim, 2013, Estimating returns to vocational education at high schools in Korea,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13
○ Garance Genicot, DebrajRay, 2013, Measuring Upward Mobility,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Economic Inequality(ECINEQ) Fifth meeting of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Economic Inequality(ECINEQ) working paper
○ Ji-Man Kim, Nak-Hoon Son, Eun-Cheol Park, Chung-Mo Nam, Tae-Hyun Kim, Woo-Hyun Cho,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and Mortality Risk Based on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2003-2008), Asia-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 Kyeong-won Yoo, Jin-tae Hwang, 2013, Why Has the Household Debt Ever Increased in Korea? Empirical Analysis of the Persistence in Household Debt, MBRI
○ Mee-Kyung Jung, 2013, University or job training : Korea and Germany compared, Educational Research (ISSN: 2141-5161) Vol.3(11) pp. 879-897
○ MikiKohara, Sun-Youn Lee, 2013, Mother's Employment in Early Childhood and Child's Educational Outcome, Center for Intergenerational Studies Conference 3/3
○ Myoung-Hee Kim, Young Kyung Do, 2013, Effect of Husbands' Employment Status on Their Wives'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ume 75, Issue 2, pages288 – 299

○ OECD, 2013, Back to Work KOREA : Improving the Re-employment Prospects of Displaced Workers, OECD Publishing

○ OECD, 2013,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OECD publishing [data sources, ANNEX 4.A1]

○ OECD, 2013, Policies to Tackle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OECD Publishing

○ Yen, Meng-Feng, 2013, The Wage Premium and Market Structure : The Case of South Korea and Taiwan, AAEA & CAES Joint Annual Meeting, August 4-6,

○ Youn Jung, Juhwan Oh, Soonim Huh, Ichiro Kawachi, 2013, The Effects of Employment Conditions on Smoking Status and Smoking Intensity: The Analysis of Korean Labor & Income Panel 8th – 10th Wave, The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PLoS(Peer-Reviewed, Open Access Journal) ONE 8(2): e57109.

FAQ	노동패널 잘 쓰는 방법?

노동패널자료의 조사차수가 늘어나면서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할 수 없었던 많은 실증연구들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패널자료 분석에 뛰어들었던 많은 연구자들이 이내 분석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변수가 워낙 많고 자료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15차 조사자료에만 총 2천여개의 변수들이 개인용・가구용・부가조사용・직업력 자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변수들 중에서 분석모형에 사용할 변수들을 일일이 찾아내야 한다. 고생끝에 필요한 변수들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적절한지 난감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패널자료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느긋하게 자료를 이리저리 만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코드북과 데이터만 갖고서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 어렵다. **동일한 변수라도 각 연도별로 항목값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각각의 변수에 대해 설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노동패널을 처음 사용하는 연구자라면 자료를 만지기 전에 아래의 절차를 밟기를 추천한다.

1. 먼저 유저가이드 1장 한국노동패널소개와 3장 자료의 주요 특성 부분을 읽어본다.
2. 자료를 열어보기 전에 먼저 설문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본다. 특히 관련 문항들의 전후구조에 유의한다.
3. 다음으로 설문지에 분석주제와 관련된 문항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한다.
4. 설문지에서 체크한 문항들이 실제로 코드북의 변수값과 일치하는지를 체크한다.
   - 이때 해당 주제와 관련한 내용이 유저가이드에 언급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유저가이드의 변수가이드와 주제별 가이드에는 연구자들이 놓치기 쉬운 데이터의 핵심 내용을 최소한으로 요약한 것이므로 참조가 될 것이다.
5. 데이터 기초분석을 통해 관련 변수들의 빈도값이 코드북에 나와있는 빈도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missing값의 처리에 주의한다.

◎ FAQ에 사용된 예제 프로그램에 대해

1. 아래의 예제 프로그램들은 노동패널 15 차년도 Release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주의할 점은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경로를 지정해 주어야 된다는 점이다. 아래의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다.

   ※ SAS library명은 다음과 같다: a-data 폴더, new-새폴더.

   ```
   libname a 'D:\15차\data\[SAS] 1-15th 자료'
   libname new 'D:\15차\data\[SAS] 1-15th 자료\new'
   ```

   ※STATA 는 cd로 파일경로를 지정하고, klips 데이터는 용량이 크므로 충분한 메모리를 할당 시켰다.

   ```
   cd "D:\15차\data\[STATA10] 1-15th 자료"
   clear
   set memory 700m, permanently //klips
   ```

2. 아래의 예제 프로그램들은 단지 '예제'일 뿐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즉, 해당주제와 분석목적에 따라 노동패널팀 필자들과는 얼마든지 다른 정의와 구분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효율성 면에서도 얼마든지 훨씬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Q 1 노동패널자료를 좀 더 빨리 사용할 수 없을까?

연구자라면 누구나 자료에 대한 욕심을 갖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료를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는 정보들에 더욱 접근하고 싶어한다. 노동패널도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왜 17차년도 자료가 아직까지 안나오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노동패널팀에서는 이제 겨우 15차년도 자료를 release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우선 하루라도 빨리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연구자들을 위해 우선 노동패널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래는 15차년도 자료가 release되기까지의 과정이다.

① 조사설계 : 2012년 1~5월
② 현장실사 : 2012년 6~11월
③ 원자료 생성 및 1차 클리닝(실사업체) : 2012년 12월 ~2013년 4월
④ 원자료 가공 및 2차 클리닝(연구팀) : 2013년 5~12월
⑤ 학술대회용 자료 공개 : 2014년 1월
⑥ 자료 업로드 준비, 유저가이드, 코드북 제작 : 2014년 2~5월
⑦ release버젼 자료 공개 : 2014년 6월

이상과 같이 약 2년 6개월의 과정을 거쳐야 올바른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년도의 조사 및 데이터 발간 작업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준비 과정을 앞당기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한 양해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학술대회에 연구계획서를 신청하는 것 뿐이다.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접수는 매년 6월 경에 공고가 나가서 8월 초까지 접수를 받으며, 일정한 통과절차를 거치면 학술대회용 데이타를 제공받게 된다.

Q 2 SAS, SPSS, Stata 패키지간 파일변환

노동패널 자료는 SAS 9.1, SPSS 13.0, Stata 9.0 이상의 버전에서 만들어졌다. 만일 SPSS나 Stata 사용자라면 낮은 버전의 패키지를 사용하더라도 자료를 불러오거나 다른 패키지로 전환할 때 별도의 주의가 필요없다. 그러나, SAS의 경우 각 버전마다 데이터파일의 확장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후에 변환해야 한다. 만일 이런 문제가 없는데도 자료를 불러올 수 없다면 자료에 에러가 발생한 것이므로 다시 자료를 수령해야 한다.

SAS, SPSS나 Stata이외에 다른 통계패키지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우선 데이터를 ASCII 파일이나 data파일로 바꾼 후, 다시 해당 패키지 파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요즘에는 많은 통계패키지들이 SAS, SPSS, Stata간에 파일을 변환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Q 3 98표본과 통합표본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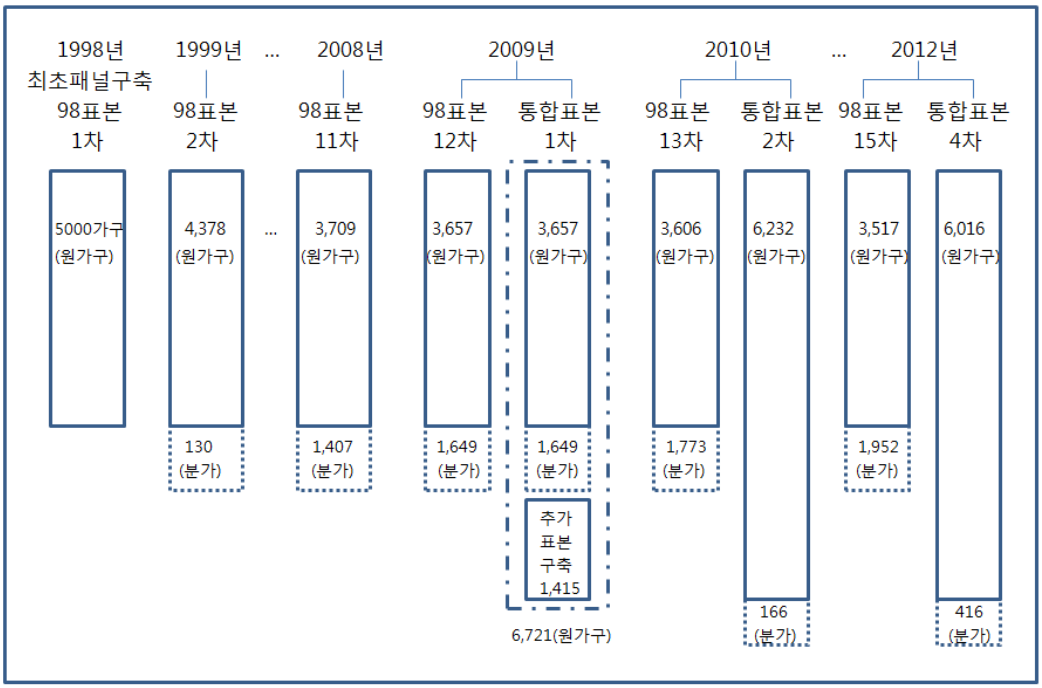
노동패널은 현재 한 개의 데이터 안에 두 개의 패널이 함께 존재한다. 98표본은 1998년 1차년도 당시에 조사된 5,000가구를 원가구로 해서 15차년도(2012년)까지 이어진 조사이다. 통합표본은 2009년 패널 가구의 마모 및 도시지역 표집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패널데이타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표집된 가구를 포함하여, 2009년 1차 자료를 시작으로 2012년(98표본기준 15차 자료) 4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다[3]. 2009년(12차 조사당시) 당시 응답한 모든 가구를 원표본으로 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통합표본은 2009년 추가 표집된 1,415가구 뿐 아니라, 기존 조사 대상가구(98원표본+분가가구) 중 12차년도에 응답한 5,306개구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표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98표본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년동안 원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가 실시된 패널로, 15차년도에 원가구 3,517,분가가구 1,952, 총 5,469가구가 조사되었다. 통합표본은 2009년 당시 98표본 원가구 5,000가구 중 조사를 성공한 3,657가구와 그에 따른 분가가구 1,649가구, 추가 표본 1,415가구를 모두 합한 6,721가구가 통합표본 1차 원가구로 형성되어 2012년까지 4년동안 조사가 실시되었다. 통합표본 4차년도에는 원가구 6,016, 분가가구 416, 총 6432가구가 조사되었다.

3) 이상호외, 『한국노동패널 15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2장 제6절 통합표본 개요 참조.

[KLIPS 표본 구조 개요]

(단위 : 당해연도 조사성공 가구)



주: 98표본 원가구 중, 2009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원가구가 다음해인 2010년에 조사된다면, 98표본에는 포함되지만, 통합표본의 원가구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통합표본에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통합표본은 2009년도에 조사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임에 유의해야 함.

출처: 이상호외, 『한국노동패널 15차 기초분석보고서』, 2014. 7,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자는 연구목적에 따라 조사 기간이 긴 98표본을 사용할 것인지, 차수는 짧지만 상대적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대하여 표본의 숫자가 많은 통합표본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98표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sample98변수의 값이 '1'(98표본 원가구)과 '2'(98표본 분가가구)인 케이스를 선택하고, 통합표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sample09 변수의 값이 '1'(통합표본 원가구)과 '2'(통합표본 분가가구)인 케이스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구분 없이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98표본과 통합표본 사용시 유의점>

		98표본	통합표본
구분변수		sample98 = 1 or 2	sample09 = 1 or 2
기준변수(원가구번호)		orghid98	orghid09
가중치	개인용	w__p_l(종단면가중치) w__p_c(횡단면가중치) ※1차 98표본에는 w01p라는 하나의 가중치만 있음에 주의	sw__p_l(종단면가중치) sw__p_c(횡단면가중치) ※1차 통합표본(2009년)에는 sw12p라는 하나의 가중치만 있음에 주의
	가구용	w__h	sw__h

Q 4 원가구와 분가가구의 차이

노동패널조사는 가구패널조사로 1차년도 당시에 조사된 가구를 원가구로 해서 매 해 추적 조사한다. 이후 원가구에서 분가한 가구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가구에서 분가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노동패널의 모든 가구에 「원가구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98표본의 「원가구번호」는 orghid98 변수이고, 98년도에 최초로 조사된 가구인 1번부터 5000번 가구까지의 번호를 갖고 있다. 통합표본의 「원가구 번호」는 orghid09 변수이다. orghid09변수는 2009년도 당시 통합표본의 원가구 번호를 의미하며, 1~101415번까지의 값을 갖는다.

98표본을 중심으로 분가와 소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원가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가・합가・소멸 등의 이유로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결혼이나 분가 등의 이유로 원가구에서 분가한 가구에 대해서는 5001번부터 새로운 가구번호가 부여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분가가구라 하더라도, 1차년도 당시에 조사된 가구(즉 원가구)에 있던 가구원(즉 원가구원)이 분가하였을 경우에만 분가가구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분가가구 내에 다른 가구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가구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에는, 가구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원가구일 경우에는 원가구번호인 orghid98과 당해연도 가구번호인 hhid15(15차)는 같은 번호를 갖게 되지만, 분가가구의 경우에는 orghid98와 hhid15는 다른 가구번호를 갖게 된다.

참고로 98표본의 각 년도별 분가가구번호를 살펴보면, 5000번 이내는 1차(1998) 원가구의 번호이며, 5001~5258번은 2차(1999)에 분가한 가구, 5259~5444번은 3차(2000)에 분가한 가구, 5445~5742번은 4차(2001), 5743~5982번은 5차(2002), 5983~6261번은 6차(2003), 6262~6525번은 7차(2004), 6526~6818번은 8차(2005), 6819~7132번은 9차(2006), 7133~7421번은 10차(2007), 7422~7780번은 11차(2008), 7781～8020번은 12차(2009), 8021～8294번은 13차(2010), 8295～8499번은 14차(2011), 8500～8588번은 15차(2012) 분가가구 번호이다.

한편, 2009년 추가 표집 된 1,415가구는 원가구 번호가 100011부터 시작하여 101415번까지를 부여하였으며, 이들 가구 중 다음 차수(2010년)에 분가가구가 발생한 경우 110001번부터 순차적으로 가구번호가 부여되었다.

Q 5 개인자료와 부가자료 합치기
기준 변수 PID를 이용한 Merge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있는 핵심 변수들을 붙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어떤 연구자가 11차년도 교육 부가조사 중 "고2 때 수면시간" 변수를 개인자료에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① 11차년도 교육 부가조사에서 가져올 변수들을 keep 한다. (본 예시에서는 "고2때 수면시간" 변수인 A116257 와 merge 에 필요한 pid를 남긴다)

② 15차년도 개인자료와 11차년도 부가조사 자료를 각각 pid 를 기준으로 정렬("sort")한다.

③ 정렬시킨 두 자료를 merge 한다.

```
*=======================;
*     SAS - Merge문의 사용  ;
*=======================;

data a11; set a.klips11a;
keep pid a116257;
proc sort by pid;run
data p15; set a.klips15p;
proc sort by pid; run
data new.pa1511; merge p15 a11; by pid;
proc freq table a116257;
run;


*=======================.
*     SPSS  Merge문의 사용  .
*=======================.

GET FILE='D:₩15차₩users guide₩11차년도₩klips11a.sav'/keep pid a116257.
DATASET NAME a10.
```

```
SORT CASES BY PID.

GET FILE='D:₩15차₩users guide₩15차년도₩klips15p.sav'.
SORT CASES BY PID.

MATCH FILES /FILE=*
  /FILE=a10
  /BY PID.
EXE.
fre a116257.

SAVE OUTFILE='D:₩15차₩users guide₩15차년도₩k15p10a.sav'.

/*=================================*/
/* stata - merge                   */
/*=================================*/

/* data가 c:₩data₩klips₩에 있다고 가정
메뉴바 이용법도 가능하다
1. 아래의 "use~" 줄까지 수행해서 자료를 불러놓은 다음
2. 메뉴바의 "data -> combine datasets
-> merge two datasets -> one-to-one on key variables
-> 파일 선택에서 C:₩data₩klips₩klips10a.dta로 경로지정하고
-> key variables에는 pid 지정
-> sort key variables when necessary에 체크표시 한 후 ok
위와 같이 하면 아래의 "merge~ " 부분이 실행됨
아래와 같이 명령문을 실행하면 _merge라는 변수가 생성됨
1=원데이터에는 값이 없고 머지하고자 하는 데이터에는 값이 있는 경우
2=원데이터에는 값이 있으나 머지하고자하는 데이터에는 값이 없는 경우
3=양쪽에 값이 있어 제대로 붙은 경우 */

clear
use klips11a, clear
sort pid
merge pid using klips15p, unique sort
tab _merge //머지 결과의 확인
tab a116257
```

위의 프로그램은 SAS, Stata의 merge문과 SPSS의 match문을 이용하여 variable merge를 한 결과이다.

Q 6 가구자료와 개인자료 합치기
기준 변수 HHID**를 이용한 Merge

노동패널자료에서는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병합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다. 예컨대, 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총소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구성한다고 하자. 그리고 설명변수를 가구총소득, 자산, 부채, 총가구원수, 가구주의 성별, 연령,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등의 변수들로 구성한다.

이 때 다른 모든 변수들은 가구자료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는 개인자료에서 별도로 구성한 다음 가구자료로 붙여야 한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된다.

① FAQ 21에서와 같이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변수를 구성한다.
②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만을 "keep"한다. 개인자료의 경우 'p150102 = 10'인 경우가 가구주에 해당한다.
③ 15차년도 개인자료와 15차년도 가구자료를 각각 hhid15를 기준으로 정렬("sort")한다.
④ 가구자료와 개인자료의 병합은 앞서 FAQ Q3에서 다룬 '기준변수'를 이용한 variable merge를 이용하면 된다.

만일 15차년도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merge한다면 -> hhid15
만일 14차년도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merge한다면 -> hhid14

이와 같이 기준변수를 정하여 merge하면 된다.

Q 7 직업력자료에 개인의 성별, 연령 붙이기

개인단위의 일자리 정보를 모두 수록한 자료가 바로 직업력 자료이다. 그런데, 이 자료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직업력 자료에는 개인의 성별, 연령, 학력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정보가 자료에 붙어있지 않은지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직업력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단위로 케이스가 만들어진 데이터 셋이다. 즉 한 개인이 1차 조사부터 지금까지 총 20개의 일자리를 가졌었거나 가졌다면 20개의 '행'이 생성된다. 더구나, 그 개인이 15세이후부터 1차조사 시점 직전까지 5개의 일자리를 가졌었다면, 20개의 일자리에 5개를 더하여 총 25개의 일자리 '행'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직업력 자료의 크기가 이미 방대하기 때문에 직업력 자료에는 가급적 변수를 최소화하였다. 즉, 개인의 인적정보는 연구자가 개인(신규)자료에서 붙여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직업력 자료에 개인의 인적정보를 붙이는 작업은 앞서 Q3에서 다룬 '기준변수를 이용한 데이터 merge'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

```
*=========================;
*     SAS - Merge문의 사용  ;
*=========================;

data p15; set a.klips15p(keep= pid p150101 p150107);
rename p150101=sex p150107=age;
proc sort by pid;

data w15; set a.klips15w;
if jobwave=15 /*15차에 응답한 가구 추출*/
proc sort by pid;

data new.work;merge p15 w15; by pid; if jobwave=15
run
```

```
*=========================.
*     SPSS                .
*=========================.

GET FILE='D:₩15차₩users guide₩15차년도₩klips15p.sav'/KEEP pid p150101
p150107/RENAME(p150101=sex)(p150107=age).
DATASET NAME p15.
SORT CASES BY PID.

GET FILE='D:₩15차₩users guide₩15차년도₩klips15w.sav'.
select if(jobwave=15). /*15차에 조사된 사람만 남기기*/
SORT CASES BY PID.

MATCH FILES /FILE=*
  /table=p15
  /BY PID.

select if (jobwave=15).
fre sex.

SAVE OUTFILE='D:₩15차₩users guide₩15차년도₩k15wp.sav'.


/*=================================*/
/* stata - merge
/*=================================*/

/* 직업력과 개인자료를 머지할 때는 직업력에는 같은 사람이 여러번 나타날 수 있고
 개인자료에는 같은 사람이 단한번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위한 머지는 메뉴바에서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FAQ 4번에서 one-to-one on key variables 대신
 many-to-one on key variables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똑같이 하면 된다. */

clear
use klips15p, clear
keep pid p150101 p150107
rename p150101 sex
rename p150107 age
sort pid
save k15p, replace
use klips15w, clear
keep if jobwave==15 /* 15차에 조사된 일자리에만 성별 연령 머지하기 */
sort pid
```

```
merge pid using k15p, uniqusing
keep if jobwave==15
table _merge //merge 결과의 확인
```

Q 8 hhidwon~hhid15 중에서 어떤 것을 가구 id로 사용해야 할까?

SAS, SPSS, Stata문 활용 예 : 가구데이터의 연도간 merge

위의 Q6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패널의 가구번호는 크게 당해연도 가구번호와 원가구번호로 구성된다. 노동패널 가구용 데이터에는 가구번호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 이는 노동패널 조사에 "한번이라도 응답한 적이 있는 모든 가구"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11차년도 가구용 데이터에는 hhidwon, hid2009, hhid02 ~ hhid15 과 같이 16개의 가구번호가 있다. 이들은 각각 1998년 원가구번호(hhidwon), 2009년 추가표본 패널고유가구번호(hid2009), 2차가구번호(hhid02) ~ 15차가구번호(hhid15) 를 의미한다. 원가구번호는 Q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년도 조사당시의 가구번호를 의미하며, 2~15차 가구번호는 각 해마다 조사된 가구번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가구일 경우 해당년도의 가구번호가 missing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1차년도에 892번이었던 가구가 3차년도에 5150번 가구로 분가한 후, 5차년도에는 조사에 실패했다면, 이 가구의 가구번호는 hhidwon-892, hhid02-missing, hhid03-5150, hhid04-5150, hhid05-missing, hhid03부터 hhid05 까지 5150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만일 연구자가 동일한 가구끼리 연도간 merge를 할 경우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가구번호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가구의 변동과 같은 특정상황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원가구번호가 아닌 당해연도 가구번호를 기준으로 merge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예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   SAS - 가구용 데이터의 년도간 merge    ;
*=====================================;

data h14; set a.klips14h;
hid=hhid14;
proc sort by hid;

data h15; set a.klips15h;
hid=hhid15;
proc sort by hid;

data new.h14h15; merge h14 h15;by hid;
if hwave15=1  /*15차에 응답한 가구 추출*/
run


*=====================================.
*   SPSS - 가구용 데이터의 년도간 merge   .
*=====================================.

GET FILE='D:₩15차₩users guide₩14차년도₩klips14h.sav'.
dataset name h14.
compute hid=hhid14.
sort cases by hid.

GET FILE='D:₩15차₩users guide₩15차년도₩klips15h.sav'.
compute hid=hhid15.
sort cases by hid.

MATCH FILES /FILE=*
  /FILE=h14
  /BY hid.
select if (hwave15=1).  /*15차에 조사된 사람만 남기기*/
fre  hwave15.

SAVE OUTFILE='D:₩15차₩users guide₩15차년도₩k14h15h.sav'.
```

```
/*==================================*/
/* stata - 가구용 데이터의 연도간 merge */
/*==================================*/

clear
use klips14h, clear
drop if hhid14==.
gen hid=hhid14
sort hid
save k14h, replace
use klips15h, clear
keep if hwave15==1
gen hid=hhid15 //15차에 조사된 가구만 남기기
sort hid
merge hid using k14h, unique sort
table _merge
table hwave15
```

Q 9 15세 이상 가구원 수, 15세 미만 가구원수 구하기

가구자료를 이용한 분석모형을 구성할 때 가구원수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된다. 예컨대, 소득불평등 지표를 구성할 때 가구원수는 '조정계수'로 사용된다. 총가구원수는 가구자료에 변수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경제활동가능인구인 15세 이상 가구원수 같은 변수들이 중요할 수 있다. 여성노동시장 참가여부 모형을 구성할 때 5세미만 자녀수, 혹은 3세미만 자녀수 등이 중요한 도구변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원 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구성해야 한다. 15차년도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15세 이상/미만 가구원수를 구해보자.

```
*=========================================;
*   SAS - 가구원수 만들기 (Array 문의 활용)    ;
*=========================================;

data h15; set a.klips15h;
if hwave15=1                        /*15차에 응답한 가구 추출*/
array p[15] lonum1-lonum15;          /*15×1 dummy array 생성(15세 미만)*/
array q[15] hinum1-hinum15;          /*15×1 dummy array 생성(15세 이상)*/
array y[15] h150361-h150375;        /*첫가구원의 만나이-15번째 가구원의 만나이*/
array c[15] h150421-h150435;        /*가구원 개인의 추가탈락여부*/

do i=1 to 15
if y[i]<15 and 1<=c[i]<=2 then p[i]=1 else p[i]=0
if y[i]=>15 and 1<=c[i]<=2 then q[i]=1else q[i]=0
end

lonum=sum(of lonum1-lonum15);
hinum=sum(of hinum1-hinum15);
```

```
label  lonum='15세미만 가구원수' hinum='15세 이상 기구원수'
proc means var h150150 lonum hinum ;
proc freq table lonum hinum ;
run


*========================.
*    SPSS- Count 문의 활용  .
*========================.

*추가탈락여부=change*

GET FILE='D:₩15차₩users guide₩15차년도₩klips15h.sav'.
select if (hwave15=1).

compute lonum=0.
compute hinum=0.

do repeat
change=h150421 to h150435/
age=h150361 to h150375.
if((change=1 or change=2) and (age<15)) lonum=lonum+1.
if((change=1 or change=2) and (age>=15)) hinum=hinum+1.
end repeat.

var lab lonum '15세 미만 가구원수' hinum '15세 이상 가구원수'.
des h150150 lonum hinum/stat=mean std min max.


/*==================================*/
/* stata - 가구원수 만들기              */
/*==================================*/

/* 15세 미만 가구원수 = lonum */
/* 15세 이상 가구원수 = hinum */

clear
use klips15h, clear
keep if hwave15==1 /* 15차에 조사된 가구만 남기기 */
```

```
forvalue i=1/15 {

        local a=`i'+60
        local b=`i'+20

        gen ppp`i'=(h1503`a'<15 & (h1504`b'==1|h1504`b'==2))
        gen qqq`i'=(h1503`a'>=15 & (h1504`b'==1|h1504`b'==2))
}

egen lonum=rowtotal(ppp*)
egen hinum=rowtotal(qqq*)

sum h150150 lonum hinum
tab1 lonum hinum
```

위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총 15차년도 응답가구인 총 6753 케이스의 평균값이 아래와 같이 나올 것이다. 15차년도 노동패널조사에서 평균 가구원 수는 2.76명이며, 15세 이상 가구원수는 2.6명이다. 또한, 15세미만 가구원수는 0.5명으로 나타난다.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총가구원수	2.76	1.3	1	10
15세이상가구원수	2.31	1.1	1	10
15세미만가구원수	0.5	0.8	0	5

Q 10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변수 추출하기
SAS Array 문, SPSS Repeat 문, Stata Foreach문 이용

가구자료를 이용하는 분석모형에서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특성은 핵심적인 변수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가구자료는 이들 정보에 대해 1가구 내 최대 15명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째 가구원의 정보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경우, SAS 사용자는 array문을, SPSS 사용자는 repeat문을 사용하여 쉽게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들을 구성할 수 있다.

```
*=======================;
*     SAS- Array문의 사용   ;
*=======================;

data h15; set a.klips15h;
if hwave15=1
array h[15] h150261-h150275; /*가구주와의 관계-값이 10이면 본인(가구주)*/
array s[15] h150241-h150255; /*가구원의 성별*/
array a[15] h150361-h150375; /*가구원의 나이*/

do i=1 to 15
if h[i]=10 then hsex=s[i];          /*가구구주의 성별*/
if h[i]=10 then hage=a[i];          /*가구주의 나이*/
end

proc freqtable hsex;
proc means var hage;
run


*=======================.
*    SPSS- Repeat문의 사용  .
*=======================.
GET FILE='D:₩15차₩users guide₩15차년도₩klips15h.sav'.

do repeat
head=h150261 to h150275/
sex=h150241 to h150255/
```

```
age=h150361 to h150375.
if(head=10) hsex=sex.
if(head=10) hage=age.
end repeat.

fre hsex.
des hage/stat=mean std min max.


/*==================================*/
/* stata - foreach문의 사용            */
/*==================================*/

clear
use klips15h, clear
keep if hwave15==1
local i=1
foreach head of varlist h150261-h150275 {
rename `head' head`i'
local i=`i'+1
}
local j=1
foreach sex of varlist h150241-h150255 {
rename `sex' sex`j'
local j=`j'+1
}
local k=1
foreach age of varlist h150361-h150375 {
rename `age' age`k'
local k=`k'+1
}
gen hsex=.
gen hage=.
foreach n of num 1/15 {
replace hsex=sex`n' if head`n'==10
replace hage=age`n' if head`n'==10
}
tab hsex
sum hage
```

Q 11

가구자료에서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추출
SAS Transpose 문, SPSS Restructure , Stata Reshape 기능 이용

가구자료에 수록된 가구원의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학력 등의 정보들은 노동패널팀에서 자체 가공하여 개인자료에 “(가구정보)”라는 라벨이 붙은 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자료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가구자료에서 가구원의 인적특성 정보들을 별도로 추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연구상황에 따라 개인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 특성 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범용 통계패키지들은 행단위의 연단보다는 열단위(변수단위)의 연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료의 적절한 조작이 필요하다.

가구자료의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1가구에 소속된 가구원일 경우 1개 case내에 붙어 있다. 예컨대, 1가구에 소속된 가구원이 10명이라면 1부터 15번째 가구원의 성별변수들 사이에 흩어져서 각각의 값이 들어가 있다.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가로형태로 붙어있는 성별변수를 개인 케이스별로 잘라내어 다시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케이스는 조사된 개인수에 따라 늘어나겠지만, 성별변수는 원래 15개에서 1개로 줄일 수 있다.

〈가구자료의 가구원 정보〉

가구원의 인적정보(최대 15명)					
h150241	h150242	…	h150361	h150362	…
1번째 가구원의 성별	2번째 가구원의 성별	…	1번째 가구원의 만나이	2번째 가구원의 만나이	…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
1번째 가구원			
2번째 가구원			
…			
1번째 가구원			
2번째 가구원			
…			

아래 프로그램들은 가로로 15개씩 나열되어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로 세로 형태로 전치(transpose) 시켜 묶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① 15차년도 가구자료로부터 1부터 15번째 가구원들의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변수를 추출하여 4개의 취합된 data set로 묶는다.
② 이렇게 생성된 4개의 데이터를 case merge하여, hhid15 기준으로 붙인다.

SAS는 이를 위해 transpose 문을, SPSS는 restructure 기능을, Stata는 reshape문을 사용한다. 세 코드를 비교해보면, 결국 동일한 변환과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
*     SAS - Transpose 문의 사용      ;
*==============================;

data h15; set a. klips15h;
keep hhid15 hwave15 h150221-h150235 /*pid*/  h150241-h150255 /*sex*/
h150261-h150275 /*relation*/
h150361-h150375 /*age*/ h150421-h150435/*추가탈락여부*/

if hwave15=1

proc sort by hhid15;
run

data h15; set h15;
proc transpose data=h15 out=trans1(rename=(col1=pid)); by hhid15;
        var h150221-h150235;
proc transpose data=h15 out=trans2(rename=(col1=sex)); by hhid15;
        var h150241-h150255;
proc transpose data=h15 out=trans3(rename=(col1=rel)); by hhid15;
        var h150261-h150275;
```

```
proc transpose data=h15 out=trans4(rename=(col1=age)); by hhid15;
          var h150361-h150375;
proc transpose data=h15 out=trans5(rename=(col1=change)); by hhid15;
           var h150421-h150435;

data fnl; merge trans1 trans2 trans3 trans4 trans5; by hhid15;
if 1<=change<=2  /*이번 차수에서 조사된 가구와 가구원만 남기기(기존+신규)*/
drop _name_ _label_; /*불필요한 변수 탈락*/

proc means var sex rel age;
proc freq table sex rel age change;
run


*================================.
*   SPSS - Restructure 기능의 사용   .
*================================.

GET FILE='D:₩15차₩users guide₩15차년도₩klips15h.sav'
/keep hhid15 hwave15 h150221 to h150235 h150241 to h150255 h150261 to h150275 h150361
to h150375 h150421 to h150435.

*변수설명: h150221-h150235 /*pid*/ h150241-h150255 /*sex*/ h150261-h150275 /*가구주와
의 관계*/
h150361-h150375;/*만나이*/ h150421-h150435/*추가탈력여부*/*
/* data restructure (variables into cases) 메뉴에서 실행하는 법*/
/* data -> restructure -> variables into cases -> more than one (5) : pid, sex, rel,
age, change */
/* 각각의 1~15가구원 변수들을 pid, sex, rel, age, change 로 묶어 지정, */
/* hhid15을 fixed variable 로 지정한다 */

VARSTOCASES /ID = id
/MAKE pid FROM h150221 to h150235
/MAKE sex FROM h150241 to h150255
/MAKE rel FROM h150261 to h150275
/MAKE age FROM h150361 to h150375
/MAKE change FROM h150421 to h150435
/INDEX = Index1(15) /KEEP = hhid15 hwave15 /NULL = KEEP.
```

```
/* 이번 차수 조사된 가구와 가구원만 남기기 */

select if (change=1 or change=2).

fre sex rel.
des age/stat=mean std min max.



/*==================================*/
/* stata - reshape 기능의 사용          */
/*==================================*/

clear
use klips15h, clear
keep if hwave15==1
keep hhid15 h150221-h150235 h150241-h150255 h150261-h150275 h150361-h150375
h150421-h150435
local i=1
foreach rel of varlist h150261-h150275 {
rename `rel' rel`i'
local ++i
}
local j=1
foreach sex of varlist h150241-h150255 {
rename `sex' sex`j'
local ++j
}
local k=1
foreach age of varlist h150361-h150375 {
rename `age' age`k'
local ++k
}
local l=1
foreach pid of varlist h150221-h150235 {
rename `pid' pid`l'
local ++l
}
local m=1
foreach change of varlist h150421-h150435 {
rename `change' change`m'
local ++m
}
```

```
reshape long pid sex rel age change, i(hhid15) j(orderInHH)
keep if change==1|change==2 /* 15차에 조사된 개인만 남기기*/

tab1 sex rel
sum age
```

Q 12 사교육 자녀번호와 엄마번호 사용하기
- 가구원정보와 자녀(엄마)번호 연결하기

노동패널 가구용 자료는 사교육에 관한 변수들을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변수를 가구원 정보와 연결하여 사용하면, 보다 풍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가구원 정보와 사교육에 응답한 자녀번호(혹은 엄마번호)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는 자녀번호와 엄마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갖춰지면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자녀번호와 엄마번호는 각각 한 가구당 5쌍씩 있다. 15차의 경우, 자녀번호-1 (h151511)은 첫 번째 자녀가 그 가구의 몇 번째 가구원인지를 기록하며, 엄마번호-1 (h151512)은 자녀-1 의 엄마가 그 가구의 몇 번째 가구원인지를 기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노동패널 15차년도 가구자료(KLIPS15H)를 열어서 15차년도 가구번호(hhid15가 5150인 가구를 살펴보자. FAQ Q6 에서도 보았듯이, 이 가구는 원가구번호가 892이며, 3차년도에 분가한 가구이다. 그런데, 3차년도 분가 당시 원가구 892번 가구에서 총 4명의 각원이 함께 분가하였다. 이때 분가한 가구원들의 pid는 순서대로 89201, 89203, 89204, 89205 였다 (한 개인의 pid는 절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자). 이 가구의 첫 자녀번호(h151511)를 살펴보면 3이다. 즉, 5150 가구의 3번째 가구원임을 알 수 있다. 한 가구의 pid는 h150221부터 h150235 까지 15개의 값이 옆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아이의 pid는 3번째 가구원의 pid (h150223)에서 찾으면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아이의 엄마에 대해 알아보자. 첫 아이의 엄마의 번호(h151512) 는 2이므로, 엄마의 pid 는 두 번째 가구원의 pid (h150222)에서 찾으면 된다. 5150 가구에는 아이가 둘이고, 각각의 pid가 89204 와 89205임을 직접 확인 해 보자.

이와 같이, 자녀번호와 엄마번호를 이용하면 5쌍의 자녀/엄마 각각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여러 변수에 대해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에는 array (SAS) 혹은 vector (SPSS)를 이용해서 작업할 변수들을 묶은 뒤 do 문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아래 예제들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필요한 가구원 정보를 추출 한 뒤, Q10에서와 마찬가지로 transpose (SAS) 혹은 restructure (SPSS)를 사용하여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두 예제는 구현방식만 다를 뿐 논리적 구성은 똑같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래 두 예제는 각 case(아이) 별로 아

이의 성별, 나이, 엄마 정보, 그리고 사교육정보를 가로로 추출한다. 엄마의 pid 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엄마의 개인설문 정보와의 merge 도 손쉽게 할 수 있다.

```
*=================================================================
*   SAS - 자녀별 성별, 나이, 엄마정보, 사교육정보 추출하기: Array 문, Transpose 문 사용  ;
*=================================================================;

data h15; set a.klips15h;
if h151501=1
run

data h15_1; set h15;
array ppid[15] h150221-h150235;
array ssex[15] h150241-h150255;
array aage[15] h150361-h150375;

/*예) i=4일때: h151611=4 즉 두번째 자녀 번호가 4(두번째 아이가 4번째 가구원)인 경우, 그 아이의 pid(chpid2)는 4번째 가구원의 pid,
그 아이의 성별(sex)은 4번째 가구원의 성별, 그 아이의 나이(chage2)는 4번째 가구원의 만나이로 기록*/

do i=1 to 15
if h151511=i then do chpid1=ppid[i]; sex1=ssex[i]; chage1=aage[i]; end
if h151611=i then do chpid2=ppid[i]; sex2=ssex[i]; chage2=aage[i]; end
if h151711=i then do chpid3=ppid[i]; sex3=ssex[i]; chage3=aage[i]; end
if h151811=i then do chpid4=ppid[i]; sex4=ssex[i]; chage4=aage[i]; end
if h151911=i then do chpid5=ppid[i]; sex5=ssex[i]; chage5=aage[i]; end

if h151512=i then do mompid1=ppid[i]; momage1=aage[i]; end
if h151612=i then do mompid2=ppid[i]; momage2=aage[i]; end
if h151712=i then do mompid3=ppid[i]; momage3=aage[i]; end
if h151812=i then do mompid4=ppid[i]; momage4=aage[i]; end
```

```
if h151912=i then do mompid5=ppid[i]; momage5=aage[i]; end
end
run

data h15_1; set h15_1;
proc sort by hhid15;
/*transpose 문의 활용. 5개씩 데이타를 하나로 묶되, hhid15기준으로 정렬한다*/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1(rename=(col1=chpid));by hhid15;
        var chpid1-chpid5;      /*자녀 pid*/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2(rename=(col1=sex));by hhid15;
        var sex1-sex5;      /*자녀 성별*/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3(rename=(col1=age));by hhid15;
        var chage1-chage5;      /*자녀 만나이*/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4(rename=(col1=mompid));by hhid15;
        var mompid1-mompid5;      /*엄마 pid*/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5(rename=(col1=momage));by hhid15;
        var momage1-momage5;      /*엄마 만나이 */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6(rename=(col1=type1)); by hhid15;
        var h151516 h151616 h151716 h151816 h151916;   /* 사교육 종류 (1번째) */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7(rename=(col1=cost1)); by hhid15;
        var h151519 h151619 h151719 h151819 h151919; /* 사교육 비용 (1번째) */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8(rename=(col1=type2)); by hhid15;
        var h151520 h151620 h151720 h151820 h151920;  /* 사교육 종류 (2번째) */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9(rename=(col1=cost2)); by hhid15;
        var h151523 h151623 h151723 h151823 h151923;  /* 사교육 비용 (2번째) */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10(rename=(col1=type3)); by hhid15;
        var h151524 h151624 h151724 h151824 h151924;  /* 사교육 종류 (3번째) */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11(rename=(col1=cost3)); by hhid15;
        var h151527 h151627 h151727 h151827 h151927;  /* 사교육 비용 (3번째) */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12(rename=(col1=type4)); by hhid15;
        var h151528 h151628 h151728 h151828 h151928;  /* 사교육 종류 (4번째) */
```

```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13(rename=(col1=cost4)); by hhid15;
        var h151531 h151631 h151731 h151831 h151931;  /* 사교육 비용 (4번째) */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14(rename=(col1=type5)); by hhid15;
        var h151532 h151632 h151732 h151832 h151932;  /* 사교육 종류 (5번째) */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15(rename=(col1=cost5)); by hhid15;
        var h151535 h151635 h151735 h151835 h151935;  /* 사교육 비용 (5번째) */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16(rename=(col1=type6)); by hhid15;
        var h151536 h151636 h151736;  /* 사교육 종류 (6번째) */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17(rename=(col1=cost6)); by hhid15;
        var h151537 h151637 h151737;/* 사교육 비용 (6번째) */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18(rename=(col1=type7)); by hhid15;
        var h151538 h151638 h151738;/* 사교육 종류 (7번째) */
proc transpose data=h15_1 out=trans19(rename=(col1=cost7)); by hhid15;
        var h151539 h151639 h151739;/* 사교육 비용(7번째)*/

data edu;merge trans1 trans2 trans3 trans4 trans5 trans6 trans7 trans8 trans9 trans10
trans11 trans12  trans13 trans14 trans15 trans16 trans17 trans18 trans19; by hhid15;
drop _name_ _label_;

if chpid^=.   /*chpid결측치 처리*/
array c[7] cost1-cost7;   /*사교육 비용 결측 처리*/
do i=1 to 7
if c[i]=-1 then c[i]=.
end

totcost =sum(of cost1-cost7); /*한아이당 총 사교육 비용*/

array t[7] t1-t7;                    /*사교육이용 여부*/
array ty[7] type1-type7;
do i=1 to 7
```

```
if ty[i]=. then t[i]=0
if ty[i]>0 then t[i]=1
end

numb=sum(of t1-t7);                /*한아이당 총 사교육기관 이용 갯수*/

proc univariate var totcost;
proc freq table numb;
run
```

```
*=========================================.
*   SPSS - Vector 문, Restructure 기능의 사용   .
*=========================================.

get file = 'D:\15차\users guide\15차년도\klips15h.sav'.

select if(h151501=1).

/*15차 데이타에서는 자녀 1-3명까지는 최대 7개까지 사교육을 응답하였고, 자녀 4,5는 최대 5개까
지 사교육을 응답하였으므로, 변수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사교육기관종류, 비용 변수를 만듬.*/

compute k46=0. /*4번째 자녀의 6번째사교육 종류*/
compute c46=0. /*4번째 자녀의 6번째 사교육 비용*/
compute k47=0. /*4번째 자녀의 7번째 사교육 종류*/
compute c47=0. /*4번째 자녀의 7번째 사교육 비용 */
compute k56=0. /*5번째 자녀의 6번째 사교육 종류*/
compute c56=0. /*5번째 자녀의 6번째 사교육 비용*/
compute k57=0. /*5번째 자녀의 7번째 사교육 종류*/
compute c57=0. /*5번째 자녀의 7번째 사교육 비용*/
recode k46 to c57(0=sysmis). /*결측처리*/
exe.

fre k46 to c57.
/* pid, sex, age 를 1~5 아이까지 기록할 공벡터 생성 및 V1,V2,V3 벡터로 묶기 */

VECTOR pid (5) sex (5) age (5)
/V1=h150221 to h150235
/V2=h150241 to h150255
```

```
/V3=h150361 to h150375 .
LOOP #i=1 to 15.
if (h151511=#i) chpid1 = V1(#i). /*1511 자녀번호1*/
if (h151511=#i) sex1 = V2(#i).
if (h151511=#i) chage1 = V3(#i).
if (h151611=#i) chpid2 = V1(#i)./*1611 자녀번호3*/
if (h151611=#i) sex2 = V2(#i).
if (h151611=#i) chage2 = V3(#i).
if (h151711=#i) chpid3 = V1(#i)./*1711 자녀번호3*/
if (h151711=#i) sex3 = V2(#i).
if (h151711=#i) chage3 = V3(#i).
if (h151811=#i) chpid4 = V1(#i)./*1811 자녀번호4*/
if (h151811=#i) sex4 = V2(#i).
if (h151811=#i) chage4 = V3(#i).
if (h151911=#i) chpid5 = V1(#i)./*1911 자녀번호5*/
if (h151911=#i) sex5 = V2(#i).
if (h151911=#i) chage5 = V3(#i).
if (h151512=#i) mompid1 = V1(#i)./*1512 엄마번호1*/
if (h151512=#i) momage1 = V3(#i).
if (h151612=#i) mompid2 = V1(#i)./*1612 엄마번호2*/
if (h151612=#i) momage2 = V3(#i).
if (h151712=#i) mompid3 = V1(#i)./*1712 엄마번호3*/
if (h151712=#i) momage3 = V3(#i).
if (h151812=#i) mompid4 = V1(#i)./*1812 엄마번호4*/
if (h151812=#i) momage4 = V3(#i).
if (h151912=#i) mompid5 = V1(#i)./*1912 엄마번호5*/
if (h151912=#i) momage5 = V3(#i).
END LOOP.
EXECUTE.

VARSTOCASES /ID = id
/MAKE chpid FROM chpid1 chpid2 chpid3 chpid4 chpid5 /* 자녀 pid */
/MAKE mompid FROM mompid1 mompid2 mompid3 mompid4 mompid5 /* 엄마 pid */
/MAKE sex FROM sex1 sex2 sex3 sex4 sex5 /* 자녀 성별 */
/MAKE chage FROM chage1 chage2 chage3 chage4 chage5 /* 자녀 나이 */
/MAKE momage FROM momage1 momage2 momage3 momage4 momage5 /* 엄마 나이 */
/MAKE type1 FROM h151516 h151616 h151716 h151816 h151916 /* 사교육 종류 (1번째) */
/MAKE type2 FROM h151520 h151620 h151720 h151820 h151920 /* 사교육 종류 (2번째) */
/MAKE type3 FROM h151524 h151624 h151724 h151824 h151924 /* 사교육 종류 (3번째) */
/MAKE type4 FROM h151528 h151628 h151728 h151828 h151928 /* 사교육 종류 (4번째) */
/MAKE type5 FROM h151532 h151632 h151732 h151832 h151932 /* 사교육 종류 (5번째) */
/MAKE type6 FROM h151536 h151636 h151736 k46 k47 /* 사교육 종류 (6번째) */
/MAKE type7 FROM h151538 h151638 h151738 k56 k57/* 사교육 종류 (7번째) */
```

```
/MAKE cost1 FROM h151519 h151619 h151719 h151819 h151919 /* 사교육 비용 (1번째) */
/MAKE cost2 FROM h151523 h151623 h151723 h151823 h151923 /* 사교육 비용 (2번째) */
/MAKE cost3 FROM h151527 h151627 h151727 h151827 h151927 /* 사교육 비용 (3번째) */
/MAKE cost4 FROM h151531 h151631 h151731 h151831 h151931 /* 사교육 비용 (4번째) */
/MAKE cost5 FROM h151535 h151635 h151735 h151835 h151935 /* 사교육 비용 (5번째) */
/MAKE cost6 FROM h151537 h151637 h151737 c46 c47/* 사교육 비용 (6번째) */
/MAKE cost7 FROM h151539 h151639 h151739 c56 c57/* 사교육 비용 (7번째) */
/INDEX = Index1(5)
/KEEP = hhid15
/NULL = KEEP.
execute.

recode cost1 to cost7(-1=sysmis). /*비용 결측처리*/
count numb=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type7(1 thru high). /*한아이당 이용 사교육기
관 갯수*/
compute totcost=sum(cost1 to cost7). /* 한 아이당 총 사교육비용 */

select if (chpid>0). /* 결측치 처리 */

des totcost/stat=mean std min max.
fre numb.

save outfiel= 'D:\15차\users guide\15차년도\klips15h_ch.sav'.


/*==================================*/
/* stata - 사교육 자녀번호와 엄마번호   */
/*==================================*/

clear
use klips15h, clear
keep if hwave15==1

local j=1
foreach sex of varlist h150241-h150255 {
rename 'sex' sex'j'
local ++j
}
local k=1
foreach age of varlist h150361-h150375 {
rename 'age' age'k'
local ++k
}
```

```
local l=1
foreach pid of varlist h150221-h150235 {
rename ‘pid’ pid‘l’
local ++l
}
foreach n of numlist 1/5 {
gen chpid‘n’=.
gen chsex‘n’=.
gen chage‘n’=.
gen mompid‘n’=.
}
foreach n of numlist 1/15 {
replace chpid1=pid‘n’ if h151511==‘n’
replace chsex1=sex‘n’ if h151511==‘n’
replace chage1=age‘n’ if h151511==‘n’
replace mompid1=pid‘n’ if h151512==‘n’
}
foreach n of numlist 1/15 {
replace chpid2=pid‘n’ if h151611==‘n’
replace chsex2=sex‘n’ if h151611==‘n’
replace chage2=age‘n’ if h151611==‘n’
replace mompid2=pid‘n’ if h151612==‘n’
}
foreach n of numlist 1/15 {
replace chpid3=pid‘n’ if h151711==‘n’
replace chsex3=sex‘n’ if h151711==‘n’
replace chage3=age‘n’ if h151711==‘n’
replace mompid3=pid‘n’ if h151712==‘n’
}
foreach n of numlist 1/15 {
replace chpid4=pid‘n’ if h151811==‘n’
replace chsex4=sex‘n’ if h151811==‘n’
replace chage4=age‘n’ if h151811==‘n’
replace mompid4=pid‘n’ if h151812==‘n’
}
foreach n of numlist 1/15 {
replace chpid5=pid‘n’ if h151911==‘n’
replace chsex5=sex‘n’ if h151911==‘n’
replace chage5=age‘n’ if h151911==‘n’
replace mompid5=pid‘n’ if h151912==‘n’
}
local i=1
foreach type1 of varlist h151516 h151616 h151716 h151816 h151916 {
```

```
rename ‘type1’ type1‘i’
local ++i
}
local i=1
foreach type2 of varlist h151520 h151620 h151720 h151820 h151920 {
rename ‘type2’ type2‘i’
local ++i
}
local i=1
foreach type3 of varlist h151524 h151624 h151724 h151824 h151924 {
rename ‘type3’ type3‘i’
local ++i
}
local i=1
foreach type4 of varlist h151528 h151628 h151728 h151828 h151928 {
rename ‘type4’ type4‘i’
local ++i
}
local i=1
foreach type5 of varlist h151532 h151632 h151732 h151832 h151932 {
rename ‘type5’ type5‘i’
local ++i
}
local i=1
foreach type6 of varlist h151536 h151636 h151736 {
rename ‘type6’ type6‘i’
local ++i
}
local i=1
foreach type7 of varlist h151538 h151638 h151738 {
rename ‘type7’ type7‘i’
local ++i
}
local i=1
foreach cost1 of varlist h151519 h151619 h151719 h151819 h151919 {
rename ‘cost1’ cost1‘i’
local ++i
}
local i=1
foreach cost2 of varlist h151523 h151623 h151723 h151823 h151923 {
rename ‘cost2’ cost2‘i’
local ++i
}
```

```
local i=1
foreach cost3 of varlist h151527 h151627 h151727 h151827 h151927 {
rename ‘cost3’ cost3‘i’
local ++i
}
local i=1
foreach cost4 of varlist h151531 h151631 h151731 h151831 h151931 {
rename ‘cost4’ cost4‘i’
local ++i
}
local i=1
foreach cost5 of varlist h151535 h151635 h151735 h151835 h151935 {
rename ‘cost5’ cost5‘i’
local ++i
}
local i=1
foreach cost6 of varlist h151537 h151637 h151737 {
rename ‘cost6’ cost6‘i’
local ++i
}
local i=1
foreach cost7 of varlist h151539 h151639 h151739 {
rename ‘cost7’ cost7‘i’
local ++i
}
#delimit;
keep hhid15 chpid1-mompid5
type11 type12 type13 type14 type15
type21 type22 type23 type24 type25
type31 type32 type33 type34 type35
type41 type42 type43 type44 type45
type51 type52 type53 type54 type55
type61 type62 type63
type71 type72 type73
cost11 cost12 cost13 cost14 cost15
cost21 cost22 cost23 cost24 cost25
cost31 cost32 cost33 cost34 cost35
cost41 cost42 cost43 cost44 cost45
cost51 cost52 cost53 cost54 cost55
cost61 cost62 cost63
cost71 cost72 cost73;
#delimit cr
```

```
gen type64=.
gen type65=.
gen type74=.
gen type75=.
gen cost64=.
gen cost65=.
gen cost74=.
gen cost75=.

#delimit;
reshape long chpid chsex chage mompid
type1 cost1 type2 cost2 type3 cost3 type4 cost4 type5 cost5 type6 cost6 type7 cost7, i(hhid15) ;
#delimit cr


recode cost*(-1=.)
egen totcost=rowtotal(cost*), missing /*사교육 비용*/
egen numb=anycount(type*), values(0/21) /*사교육 종류*/
drop if chpid==.
sum totcost
tab numb

save k15ch, replace
```

Q 13 사교육 이용기관의 변동사항 : 연도별 차이

노동패널 가구용 자료의 사교육에 관한 변수들을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특히 사교육 이용기관은 해마다 사회적 변화를 적당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항목이 변경・추가되어 왔으므로,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 사교육 이용기관과 관련된 변수의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다. 사교육기관의 항목은 그 숫자도 많은데다가 연도별로 계속 항목변동이 이루어져 왔다. 또 어린이방(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놀이방과 사설놀이방, 5차부터 사라진 탁아소와 유아원 등의 항목간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아래의 항목들을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관련항목 : Ⅴ. 주제별 가이드, <표 5-9> 참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이후
주요 특징	사교육관련 문항의 유무		○	×	○	○	○	○	○	○
	'탁아모' 관련 문항의 유무		○	×	○	○	×	×	×	×
이용 기관	탁아소		○	×	○	○	×	×	×	×
	어린이방 (어린이집)	국공립(국립・사립・구립등) 어린이집	○	×	○	○	○	○	○	○
		민간 어린이집					○	○	○	○
	놀이방 (혹은 사설놀이방)		○	×	○	○	○	○	○	○
	유아원		○	×	○	○	×	×	×	×
	직장보육시설		○	×	○	○	○	○	○	○
	시간제유치원(:정규시간이외에보육을 맡아주는 경우1)		○	×	○	○	○	○	○	○
	종일제유치원(:정규시간이외에보육을 맡아주는 경우1)								○	○
	정규유치원(: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경우)		○	×	○	○	○	○	○	○
	(보육/교육기관) 기타		×	×	○	○	○	○	○	○
	학원	보습학원	○	×	○	○	○	○	○	○
		예체능학원	○							
	개인・그룹과외		×	×	○	○	○	○	○	○
	학습지		×	×	○	○	○	○	○	○
	방과후교내보충학습		×	×	○	○	○	○	○	○
	방과후교실		×	×	○	○	○	○	○	○
	동거하고있는 가족/친지		○	×	○	○	×	×	○	○
	비동거하고있는 가족/친지		○	×	○	○	×	×	○	○
	동거하는 타인		○	×	○	○	×	×	○	○
	비동거하는 타인		○	×	○	○	×	×	○	○
	(탁아모 관련) 기타		○	×	○	○	×	×	×	○
	어학연수		×	×	×	×	×	×	○	○
	인터넷(온라인 교육)유료강좌		×	×	×	×	×	×	○	○
	문화센터		×	×	×	×	×	×	×	○
항목수			14	0	18	18	12	12	19	20

주: 1차에는 놀이방으로 조사되었으나, 5차부터는 놀이방이 삭제되고 사설놀이방으로 변경

Q 14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방법
SAS Array 문 활용 예 : 가구 총소득 구성하기

노동패널 가구용 자료에서 조사되는 가구소득 항목은 ① 근로소득 ② 금융소득 ③ 부동산소득 ④ 사회보험 수혜금 ⑤ 이전소득 ⑥ 기타소득 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구용 자료에 있는 소득들은 이미 가구 단위로 합산이 되어 있는 값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구용 자료의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한 값을 의미한다. 만일 연구자가 가구원 각각의 소득을 알고 싶다면, 개인용 자료에서 가구원 각각의 근로소득을 추출하여야 한다.

만일 가구의 총소득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6가지 항목별 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된다. 다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들은 다시 세분하여 질문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예컨대 금융소득의 경우 ㉠ 은행등 금융기관 이자/투자소득 ㉡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수입 ㉢ 주식/채권 매매차익 ㉣ 배당금 ㉤ 기타 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가구의 금융소득은 이들을 모두 합한 값이 된다.

```
*═══════════════════════════════════════*
*     SAS 가구 총소득 구성하기 : Array 문 활용하기      *
*═══════════════════════════════════════*

/*13차부터 제도변화에 따라 근로장려세제를 추가로 질문하였음. 총가구소득시에는 이전소득으로 포함하여
계산함*/

data h115; set a.klips15h;

/*결측치 처리*/
array h[*] h152102    /*작년 한해 총 근로소득*/
           h152112-h152116    /*작년 한해 총 금융소득*/
           h152122-h152126   /*작년 한해 총 부동산소득*/
           h152134 h152136 h152138 h152140 h152142 /*작년 한해  사회보험소득*/
           h152152-h152160    /*작년 한해 총 이전소득*/
           h152183-h152191   /*작년 한해 총 기타소득*/
```

```
        h154002;        /* 작년 한해 총 근로장려세제*/
do i=1 to dim(h);
if h[i]=-1 then h[i]=.
end

/*항목별 소득총계*/
inc_e=h152102;                      /*earned income*/
inc_m=sum(of h152112-h152116); /*financial income*/
inc_p=sum(of h152122-h152126);  /*real estate income*/
inc_i=sum(of h152134, h152136, h152138, h152140, h152142); /*social insurance*/
inc_t=sum(of h152152-h152160, h154002); /*transfer income*/
inc_o=sum(of h152183-h152191);     /*other income*/

/*소득유무*/
inc_ey=h152101;
inc_my=h152111;
inc_py=h152121;
inc_iy=h152131;
inc_ty=0
        if h152151=1 or h154001=1 then inc_ty=1
        if h152151=2 and h154001=2 then inc_ty=2
        if inc_ty=0 then inc_ty=.
inc_oy=h152181;

/*annual total income*/
inc=sum(of inc_e, inc_m, inc_p, inc_i, inc_t, inc_o);

proc freq table inc_ey inc_my inc_py inc_iy inc_ty inc_oy;
proc univariate var inc;
run
```

```
*==============================.
*     SPSS - 가구 총소득 구성하기   .
*==============================.

get file='D:₩15차₩users guide₩15차년도₩klips15h.sav'.

/*13차부터 제도변화에 따라 근로장려세제를 추가로 질문하였음. 총가구소득시에는 이전소득으로 포함하여
계산함*/
/* 결측치 처리 (transform -> recode into same variables 메뉴 사용) */

RECODE
h152102 h152112 to h152116 h152122 to h152126 h152134 h152136 h152138 h152140 h152142 h152152 to
h152160
h152183 to h152191 h154002(-1=SYSMIS) .
EXECUTE.

/*항목별 소득총계*/
compute inc_e=h152102.                          /*earned income*/
compute inc_m=sum(h152112 to h152116). /*financial income*/
compute inc_p=sum(h152122 to h152126).  /*real estate income*/
compute inc_i=sum(h152134, h152136, h152138, h152140, h152142). /*social insurance*/
compute inc_t=sum(h152152 to h152160, h154002). /*transfer income*/
compute inc_o=sum(h152183 to h152191).     /*other income*/

/*소득유무*/
compute inc_ey=h152101.
compute inc_my=h152111.
compute inc_py=h152121.
compute inc_iy=h152131.
compute inc_ty=0.
if(h152151=1 or h154001=1) inc_ty=1.
if(h152151=2 and h154001=2) inc_ty=2.
recode inc_ty (0=sysmis).
compute inc_oy=h152181.

/*annual total income*/
compute inc=sum(inc_e, inc_m, inc_p, inc_i, inc_t, inc_o).
execute.

fre inc_ey inc_my inc_py inc_iy inc_ty inc_oy.
des inc/stat=mean std min max.
```

```
/*==================================*/
/* stata - 가구 총소득 구성하기          */
/*==================================*/

/*13차부터 제도변화에 따라 근로장려세제를 추가로 질문하였음. 총가구소득시에는 이전소득으로 포함하여
계산함*/

/*결측치 처리*/
clear
use klips15h, clear
keep if hwave15==1
#delimit;
recode h152102 h152112-h152116 h152122-h152126
h152134 h152136 h152138 h152140 h152142
h152152-h152160 h152183-h152191 h154002 (-1=.);
#delimit cr

/*항목별 소득총계*/
gen inc_e=h152102                        /*earned income*/
egen inc_m=rowtotal(h152112-h152116),missing /*financial income*/
egen inc_p=rowtotal(h152122-h152126),missing  /*real estate income*/
egen inc_i=rowtotal(h152134 h152136 h152138 h152140 h152142),missing /*social insurance*/
egen inc_t=rowtotal(h152152-h152160 h154002),missing /*transfer income*/
egen inc_o=rowtotal(h152183-h152191),missing     /*other income*/

/*소득유무*/
gen inc_ey=h152101
gen inc_my=h152111
gen inc_py=h152121
gen inc_iy=h152131
gen inc_ty=1 if h152151==1|h154001==1
replace inc_ty=2 if h152151==2&h154001==2
gen inc_oy=h152181

/*annual total income*/
egen inc=rowtotal(inc_e inc_m inc_p inc_i inc_t inc_o),mis

tab1 inc_ey inc_my inc_py inc_iy inc_ty inc_oy
sum inc
```

Q 15 연평균가구소득과 지난 한달간 소득의 차이점

노동패널 가구용 조사에서는 지난해 연평균 가구소득과 지난 한달간 소득을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다. '연평균가구소득'과 '지난한달간 소득'은 말 그대로 가구 전체의 소득을 의미하며 단지 시점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소득항목을 두 가지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일까. 예컨대 어떤 가구가 2007년에 분가하였다고 하자. 혹은 지난해 가구내 모든 구성원들이 실직상태였다가 올해부터 일을 시작한 가구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가구들은 지난 해에는 소득이 없었으나, 지난 한달 간 소득은 존재하는 가구들이다. 반대로 지난해에는 정상적인 가구소득이 관찰되었지만 두 달 전에 실직한 가구원이 있다면, 지난해 연평균가구소득을 월평균으로 바꾼 값이 지난 한 달간 소득에 비해 클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분석상의 시의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노동패널조사는 연단위로 행해지는 조사이며,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연구자들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난해 연평균가구소득만'을 질문할 경우,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한다하더라도 2년 전의 연평균가구소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 2014년도 release data 이용시 → 15차년도 가구용 자료 이용 가능(2012년에 조사한 데이터) → 2011년도 한해 동안의 연평균 가구의 근로소득이 파악됨). 그러나, '지난한달간 소득'은 소득 추정기간이 짧아, 지난한달 동안만 가구소득이 유난히 높았을(혹은 낮았을) 경우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연평균가구소득이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보다 세부적 항목 단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반면, 지난 한달간 소득의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 총액만이 파악 가능하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지난한해 연평균 가구소득]이나 [지난한달간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1~15차년도 가구소득 관련변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문 **Ⅴ. 주제별 가이드, 1.2.2 가구소득**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Q 16 생활비 항목에 대한 설명

생활비는 지난 한해 동안의 가구전체가 지출한 생활비 총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가구자료에서 생활비란 식비, 주거비, 의류비와 같이 생활하는데 드는 돈만을 의미하므로, 가구 전체의 소비수준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기 바란다. 즉, 혼수 장만이나 교통사고 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의 액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저축과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액 등은 별도의 문항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관련 설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생활비 항목은 1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고, 매해 항목이 수정되어 왔으며 15차년도에는 총 20개 항목에 대해 조사되었다(본문 Ⅴ. 주제별 가이드; 1.2.3 가구소비; <표 Ⅴ-4> 1~15차년도 가구소비 관련 변수 참조).

또한 생활비의 항목별 액수 뿐 아니라 전체 월평균 생활비 액수 또한 묻고 있으므로, 생활비 총액만 필요할 경우 '생활비 총액' 변수(15차년도 : h152301)만을 사용해도 된다. 다만 '생활비 항목별 액수의 총합'과 '생활비 총액'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실사과정에서 면접원들에게 두 항목이 대략적인 일치는 권고하지만 이를 강제적 지침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편향된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Q 17 금융자산과 부채 변수 구성하는 방법
- 자산과 부채액 구성하기

1. 금융 자산

금융자산과 금융소득을 혼동하는 연구자들이 종종 있다. 우선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이란 금융기관 혹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과 같이 가지고 있는 돈의 총액을 의미하는 저량(stock) 변수인 반면, '금융소득'은 이러한 자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예: 이자소득, 배당금)을 의미하는 유량(flow) 변수이다.

특히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가구용 설문에서는 금융자산의 소유여부를 각 항목별로 질문하여 [예]라고 응답한 경우 총액을 질문한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가구의 '금융자산' 전체 액수를 필요로 한다면 각 항목에 대한 총액을 모두 합산해서 사용해야 한다(※ 주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시세).

2. 가구 부채

'가구부채'는 '금융자산'과 유사한 구조로 조사되고 있다. 즉 항목별로 부채유무를 질문한 후, [예]라고 응답한 경우 현재 상환해야할 잔액을 묻는다. 따라서, 현재 가구에 남아있는 부채의 총액은 각 항목의 잔액을 모두 합산하면 된다. 다만, 부채항목에는 이외에도 '현재까지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액수를 각각의 항목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잔액'및 '원금과 이자상환금'을 합산할 경우 처음 돈을 빌릴 당시의 부채액도 구할 수 있다.

```
*==================================;
*   SAS - 가구 자산과 부채 구성하기      ;
*==================================;

data h15; set a.klips15h;

/*금융자산*/
/*결측치 처리*/
array h[6]  h152562 h152564 h152566 h152568 h152570 h152572;
do i=1 to 6
if h[i]=-1 then h[i]= .
end

if h152561=1 or h152563=1 or h152565=1 or h152567=1 or h152569=1 or h152571=1then
fin_y=1/*금융자산 여부*/
fin1 = h152562; /* 은행예금 액수*/
fin2 = h152564; /* 주식, 채권, 신탁 액수*/
fin3 = h152566; /* 저축성보험 액수*/
fin4 = h152568; /* 아직 타지 않은 계 액수*/
fin5 = h152570; /*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액수*/
fin6 = h152572; /* 기타 금융자산 액수*/
fin = sum(of fin1-fin6); /* 금융자산 총액*/

/*부채*/
/*결측치 처리*/
array d[6] h152602 h152605 h152608 h152611 h152614 h152617;
do i=1 to 6
if d[i]=-1 then d[i]= .
end

if h152601=1 or h152604=1 or h152607=1 or h152610=1 or h152613=1 or h152616=1 then
deb_y=1/*부채여부*/
```

```
deb1 = h152602; /*금융기관부채*/
deb2 = h152605; /*비금융기관 부채*/
deb3 = h152608; /*개인적으로 빌린 돈*/
deb4 = h152611;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deb5 = h152614; /*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deb6 = h152617; /*기타 부채*/
deb= sum(of deb1-deb6);/*부채 총액*/

proc freq table fin_y deb_y;
proc univariate ; var fin deb;
run


*================================.
*   SPSS - 가구 자산과 부채 구성하기     .
*================================.

get file='D:₩15차₩users guide₩15차년도₩klips15h.sav'.

*금융자산*

RECODE h152562 h152564 h152566 h152568 h152570 h152572 (-1=SYSMIS) ./*결측치 처리*/
if (h152561=1 or h152563=1 or h152565=1 or h152567=1 or h152569=1 or h152571=1) fin_y=1./*금융자
산 여부*/
compute fin1 = h152562. /* 은행예금 액수*/
compute fin2 = h152564. /* 주식, 채권, 신탁 액수*/
compute fin3 = h152566. /* 저축성보험 액수*/
compute fin4 = h152568. /* 아직 타지 않은 계 액수*/
compute fin5 = h152570. /*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액수*/
compute fin6 = h152572. /* 기타 금융자산 액수*/
compute fin = sum(fin1 to fin6). /* 금융자산 총액*/

/*부채*/
RECODE h152602 h152605 h152608 h152611 h152614 h152617 (-1=SYSMIS) ./*결측치 처리*/
if (h152601=1 or h152604=1 or h152607=1 or h152610=1 or h152613=1 or h152616=1) deb_y=1./*부채 여
부*/
compute deb1 = h152602. /*금융기관부채*/
compute deb2 = h152605. /*비금융기관 부채*/
```

```
compute deb3 = h152608. /*개인적으로 빌린 돈*/
compute deb4 = h152611.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compute deb5 = h152614.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compute deb6 = h152617. /*기타 부채*/
compute deb=sum(deb1 to deb6)./*부채액*/
execute.

fre fin_y deb_y.
des fin deb/stat=mean std min max.


/*=================================*/
/* stata - 가구 자산과 부채 구성하기    */
/*=================================*/

clear
use klips15h, clear

/*금융자산*/

recode h152562 h152564 h152566 h152568 h152570 h152572 (-1=.)/*결측치 처리*/
gen fin_y=1 if h152561=1|h152563=1|h152565=1|h152567=1|h152569=1|h152571=1 /*금융자산 여부*/
gen fin1 = h152562 /* 은행예금 액수*/
gen fin2 = h152564 /* 주식, 채권, 신탁 액수*/
gen fin3 = h152566 /* 저축성보험 액수*/
gen fin4 = h152568 /* 아직 타지 않은 계 액수*/
gen fin5 = h152570 /*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액수*/
gen fin6 = h152572 /* 기타 금융자산 액수*/
egen fin = rowtotal(fin1-fin6), m /* 금융자산 총액*/

/*부채*/
recode h152602 h152605 h152608 h152611 h152614 h152617(-1=.) /*결측치 처리*/
gen deb_y=1 if h152601=1|h152604=1|h152607=1|h152610=1|h152613=1|h152616=1 /*부채 여부*/
gen deb1 = h152602 /*금융기관부채*/
gen deb2 = h152605 /*비금융기관 부채*/
gen deb3 = h152608 /*개인적으로 빌린 돈*/
gen deb4 = h152611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gen deb5 = h152614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gen deb6 = h152617 /*기타 부채*/
egen deb=rowtotal(deb1-deb6), m/*부채액*/

tab1 fin_y deb_y
sum fin deb
```

Q 18 부동산 자산의 시가 관련 문항의 구조

‘부동산자산’에 대해서는 ① ‘현재 집을 제외한 부동산’ ②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 ③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의 부동산 임차’에 대해서 묻고 있다(※ 현재 ‘본인의 가족만 살고 있는 집’이나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의 보증금’은 주거관련 문항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설문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각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후 자산이 있을 경우 그 종류와 시가 총액을 질문한다. 그런데, 응답자가 부동산의 시가총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범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범주화 된 문항에 응답하는 응답자가 많으므로, 시가총액을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분석에서 모두 제외시키면, 실제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속형 부동산 시가총액을 범주화하거나, 범주형 부동산 시가를 연속형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Q 19 2, 3차년도 가구자료의 주택종류와 평수

2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에서 입주형태,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거주시기는 전년도 조사이후에 이사하였거나 이사하지는 않았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1차년도 조사 이후에 주거사항이 변화가 없는 가구라면, 2차~3차 가구자료에서 주택종류와 평수가 missing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2차~3차 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관한 분석을 할 때에는 전년도 자료에서 해당 변수를 연결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8차년도 release 자료부터는 해당 변수를 가공하여 해당차수의 데이터에 붙여두었으므로, 별도의 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해당변수를 사용하면 된다.

Q 20 개인의 인적특성(성별, 연령, 학력) 변수들이 필요할 때

개인의 학력,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등 인적특성 정보는 가구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구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이와 같은 인적특성 항목들은 개인, 신규, 부가자료에도 붙여서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때에는 개인의 인적특성 변수를 가구자료로부터 추출하여 붙이기 위해 고생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개인 및 신규 설문지는 15세 이상인 가구원들에게만 배포되므로, 15세 미만 학령기 아동의 인적 특성과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가구자료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추출하여야 한다(FAQ Q11을 이용). 가구자료의 개인정보 관련변수는 15차년도 가구자료 기준으로 h150201부터 h150775까지이다.

Q 21 종사상 지위, 임금/비임금 근로 구분의 기준

1. 종사상 지위의 구분

노동패널자료에서 종사상 지위 즉, 상용・임시・일용・자영업자/고용주・가족종사자를 구분하는 조사항목은 유형설문에 있다. 유형마다 문항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다.

유형 1, 2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여부가 바뀌었는지를 묻는다.
유형 3, 4도 지난 조사와 비교해 종사상 지위가 바뀌었는지를 묻는다.
유형 5, 6은 현재 종사상 지위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유형 7, 8도 현재 종사상 지위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유형 1~4는 지난 조사로부터 이어져온 일자리이므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변했는지"만을 질문하면 충분하다. 유형 5~8은 새로 시작한 일자리이므로 현재 종사상 지위를 질문해야 한다. 분석을 위해 종사상 지위 변수가 필요할 때에는 "p150314 : (주된일자리)종사상지위-현재(또는 최종)" 변수를 이용하면 된다. 직업력을 이용할 경우 "j150 : 종사상의 지위-현재(또는 최종)"을 이용하면 된다. 유형 1~4에 응답한 경우 이전년도로부터 관련 자료를 가져와 채워 놓았다.

2. 임금/비임금의 구분

임금/비임금 근로를 구분할 경우 유형설문을 통해 조사된 종사상 지위 변수 외에도 취업자 개인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는 "p150211 : (공통)취업형태" 변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변수는 "문4 그렇다면 ____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데, 취업자 개인 설문을 통해 조사되는 취업형태 변수와 유형설문을 통해 조사되는 종사상 지위 변수가 일치하는 응답을 주어야 하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같은 미시자료를 다룰 때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응답의 비일관

성” 문제이다.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경계가 불분명한 일자리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런 현실이 그대로 설문조사에 투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클리닝 과정에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패널팀에서는 임금/비임금 근로를 구별할 때에는 취업형태(p150211) 변수 보다는 종사상지위(p150314) 변수를 이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자리 관련 변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여 결측치(missing value)를 줄이는 방법이다.

Q 22 경제활동상태 변수 만들기

경제활동상태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Ⅳ. 변수 가이드 페이지 45 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예제를 통해 경제활동상태를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아래 예제는 15차년도 개인자료를 이용한 경제활동상태의 구성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개인의 종사상지위와 경제활동상태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종사상 지위는 유형설문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취업/미취업 여부, 그리고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공통과 미취업자공통 설문을 통해 구성된다(FAQ Q20 참조).

이 경우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는 기본적으로 취업자 및 미취업자 공통 설문변수를 기준으로 만들것을 권고한다.

```
*================================;
*    SAS를 이용한 경제활동상태의 구성;
*================================;

data p15; set a.klips15p;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
/* 임금근로자 1=상용, 2=임시, 3=일용 , 4=고용주/자영업자, 5=무급가족종사자*/
empst=p150314;

/*현재 경제활동 상태 */
econst=3 /* 비경제활동인구*/
if p150201=1then econst =1 /* 취업자 */
if p152801=1 and p152806=1then econst=2 /* ILO 기준 실업자*/
proc freq table empst econst;
run
```

```
*================================.
*  SPSS를 이용한 경제활동상태의 구성 .
*================================.

get file='D:₩15차₩users guide₩15차년도₩klips15p.sav'.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
/* 임금근로자 1=상용, 2=임시, 3=일용 , 4=고용주/자영업자, 5=무급가족종사자*/
compute empst=p150314.

/*현재 경제활동 상태 */
compute econst=3. /* 비경제활동인구*/
if (p150201=1) econst =1. /* 취업자 */
if (p152801=1 and p152806=1) econst=2. /* ILO 기준 실업자*/

fre empst econst.


/*==================================*/
/* stata를 이용한 경제활동상태의 구성   */
/*==================================*/

clear
use klips15p, clear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
/* 임금근로자 1=상용, 2=임시, 3=일용 , 4=고용주/자영업자, 5=무급가족종사자*/
gen empst=p150314

/*현재 경제활동 상태 */
gen econst=3 /* 비경제활동인구*/
replace econst =1 if p150201==1  /* 취업자 */
replace econst=2 if p152801==1&p152806==1  /* ILO 기준 실업자*/

tab1 empst econst
```

Q 23 노동패널자료의 정규/비정규직 비중은 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보다 낮을까?

노동패널자료의 신뢰성을 문제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패널자료의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한다. 사실 이런 지적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 임시일용직 비율을 보면 1999년 이후 50%를 넘어섰다가 2008년에는 44%대에 이른 반면, 노동패널자료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고작해야 21~22%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패널조사에서는 다른 조사와는 달리 주관적 판단에 의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도 측정하고 있다. 즉,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 해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역시 21~22% 정도만이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아무리 조사표본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경활조사」보다 절반이상 낮은 수준의 수치가 나타난다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동패널조사의 표본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 실업률, 산업별 및 직종별 취업자 비율,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 거의 대부분의 핵심변수들은 기준통계자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유독 비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노동패널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단정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패널팀에서 제시하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상 지위

노동패널의 종사상 지위 구분은 순수하게 근로계약만을 기준으로 (임시직은 1년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반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종사상 지위를 정하고 있다. 우선, 노동패널과 같이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1차적으로 상용직, 임시・일용직 여부를 구분한다. 그러나, 상용직이라고 응답했다 하더라도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 직장의 규범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지 여부, 퇴직금 및 상여금 수령여부, 부가급여의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 중 차별적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임시・일용직으로 다시 재분류한다.

이러한 조사상의 차이로 인해 노동패널과 경활조사는 동일한 이름의 '종사상 지위'를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표본의 차이, 조사원의 전문성 등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2.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측정

종사상 지위 이외에도 3차년도를 제외한 모든 조사연도에는 이른바 '자기 선언적 규정'에 의해 비정규직 측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선언적 규정이란 앞서 종사상 지위 기준과 마찬가지로 설문지 상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를 '단기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취업한 근로자'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만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응답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 문항에도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 문항에서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80%이상이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으로 나타났다(노동패널 홈페이지 : 리서치브리프 No1.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조사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참조).

3.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측정.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패널은 5차년도 조사부터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비교가능한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설문을 도입하였다. 즉, 통계청의 비정규직 측정을 위한 부가조사문항을 반영하여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시근로자(contingent work)뿐만 아니라, 파견, 용역, 독립도급, 가내근로 등 대안적 고용형태(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 등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문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통계청의 부가조사 분석결과와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10차년도 조사부터는 고용형태 설문 Set이 도입되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정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형태 부가설문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상호, 『노동패널 10차년도 고용형태 부가조사의 개요 및 주요 결과』, 노동리뷰 2008년 7월호를 참고.)

4. 노동패널 비정규직 측정의 특징

따라서, 종사상 지위가 통계청 조사와 그 비중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하나 이는 조사 설계상의 오류라기보다는 용어 기준에 의한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노동패널에서는 퇴직금, 부가급여 등 일자리 특성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한다. 따라서, 이들 요인을 통제할 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통계청 조사와 거의 비슷한 종사상 지위 비중이 산출될 수 있다. 더구나,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양하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보다 풍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새로운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해보았다. 아래 표를 보면 우선, 종사상 지위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비정규직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두 번째 기준으로 일용대기 + 파견 + 용역 + 독립도급 + 가내 + 시간제 + 단기계약의 경우 20.9%로 나타났다. 세 번째, 앞의 두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31.2%로 나타났고, 네 번째, 기준2에 장기임시직을 포함하였을 경우 38.0%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비율이 통계청의 경활조사 결과와 완전히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대략적인 수준에서의 비교는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기준		비율
기준1	종사상 지위가 임시 혹은 일용직인 경우	25.9
기준2	일용대기+파견+용역+독립도급+가내+시간제+단기계약	20.9
기준3	기준1 혹은 기준2에 속함	31.2
기준4	기준2 + 장기임시직	38.0
전체		100.0

주 : 장기임시직 여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로 통제함.

Q 24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변수에 결측치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이는 노동패널의 근로시간 변수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실수이다. 주로 "p151004 : (주된일자리)주당 평균 근무시간(임금)" 변수만을 이용하였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노동패널에서는 **유형설문**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조사한다. 유형설문에서의 근로시간 관련 항목은 임금근로자일 경우와 비임금근로자일 경우 각각 질문 형태가 다르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①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②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했는지
③ 정해져 있을 경우 정규근로시간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근로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일주일 평균 몇 시간이나 되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임금근로자일 경우 한 문항으로 간단하게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하는지 질문한다. 아래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변수 생성방법 예제이다.

```
*=========================;
*    SAS 근로시간 변수 생성 ;
*=========================;

data p15; set a.klips15p;

/*변수설명
p151003 : 주된일자리 정규근로시간 여부 y/n = 1/2
p151004 : 주된일자리 주당 평균 근로시간
```

p151006 : 주된일자리 주당 정규 근로시간

p151011 : 주된일자리 초과근로여부 y/n = 2/1
p151012 : 주된일자리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

```
array w[3] p151004 p151006 p151012; /*결측치 처리*/
do i=1 to 3
if w[i] =-1 then w[i]=.
end

if p151003=2 then worktime=p151004;/*평균근로시간*/
if p151003=1 and p151011=1  then worktime=p151006;
if p151003=1 and p151011=2 then worktime=sum(of p151006, p151012);
/*정규+초과근로시간*/

/*불가능한 초과근로시간 확인*/
proc freq table p151004 p151006 p151012;
proc print where p151012>168 var pid p151012;
run

data hours; set p15(keep=worktime); /*근로시간 변수 그래프*/
proc chart data=hours; vbar worktime; title 'Hours worked per week'
run
```

```
*=========================.
*    SPSS 근로시간 변수 생성 .
*=========================.

get file='D:₩15차₩users guide₩15차년도₩klips15p.sav'.

recode p151004 p151006 p151012(-1=sysmis).
if (p151003=2) worktime=p151004.
if (p151003=1 and p151011=1) worktime=p151006.
if (p151003=1 and p151011=2) worktime=sum(p151006, p151012).

GRAPH /HISTOGRAM=worktime.

/*불가능한 초과근로시간 확인*/
select if (p151012>168).
list pid p151012.


/*==================================*/
/* stata 근로시간변수 생성              */
/*==================================*/

clear
use klips15p, clear

recode p151004 p151006 p151012(-1=.)
egen worktime=rowtotal(p151006 p151012) if p151003==1 & p151011==2
replace worktime=p151004 if p151003==2
replace worktime=p151006 if p151003==1 & p151011==1

histogram worktime

/*불가능한 초과근로시간 확인*/
```

```
keep if p151012>168
tab pid p151012
```

Q 25 임금 및 소득 변수의 평균값 추이가 들락날락하고, 너무 큰 값이 나올 때

임금, 소득 변수의 평균값을 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무응답의 처리이다. 노동패널의 임금 및 소득 변수는 모두 6자리로 top-coding을 하며, 무응답일 경우 '-1'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무응답을 결측치로 바꿔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값이 커지거나 추이가 안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노동패널팀에서 일괄적으로 무응답을 결측치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자의 입장에서 편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무응답과 결측값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문제이므로 -1을 결측치로 재처리해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100억에 달하는 월평균임금을 보고한 사람들은 없었으므로, top-coding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다.

임금, 소득 관련 변수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기초통계량을 구하여 코드북에 기재된 빈곤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무응답 값을 처리하기를 권장한다.

Q 26 개인자료에 부업 관련 정보를 붙이고자 할 때

개인자료에는 주업과 관련된 정보만 들어 있다. 따라서 부업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직업력을 이용해 부업 관련 정보를 찾아낸 후 이를 개인자료에 다시 붙여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5차년도에 조사된 개인의 부업을 찾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직업력에서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일자리가 이들 개인의 부업이 된다.

① 조사년도를 의미하는 jobwave변수가 15,
② 주업을 의미하는 mainjob이 0,
③ 일자리의 현재 지속여부를 알 수 있는 jobclass가 1, 3, 5, 7.(1, 3, 5, 7만 남기는 이유는 이들 일자리가 조사시점 현재 지속 중인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걸러진 데이터를 개인자료와 pid를 기준으로 붙이면 된다.

찾 아 보 기

(ㄱ)

가구소득 55
가구소비 58
가구용 설문 25
가구원 기본정보 54
가구자료 29
가구주와의 관계 39
가중치 15
개인용 설문 25
개인자료 29
개인효과(individual effects) 3
건강과 은퇴 자료 89
경제활동상태 43
경제활동인구 43
계속응답 가구 9
교육년수 42
군부 14
근로시간 형태 46
금융자산 60

(ㄷ)

대리응답 5
대체가구접촉수 15
대체성공가구비율 15
대체성공가구수 15
동부 14
동시생태효과(cohort effect) 3

(ㅁ)

만나이 40
면접원 교육 7
면접원 오류 85
면접타계식 6
모집단 12
목표표본가구 14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12
미취업자 43

(ㅂ)

보육기관 63
보정 19
보정(imputation) 19
부가조사자료 29
부동산 60
부채 61
분가가구 10

비경제활동인구 44

(ㅅ)
사교육 63
사회보험 56, 76
사회적 연결망 80
상태간 변이과정
(transition between states) 3
생활만족도 79
세후소득 57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 2, 7, 16
신규조사자 11
실업자 44

(ㅇ)
연령 40
예비조사(pilot survey) 3
오픈 코드(open code) 46, 49
요인별 직무만족도 77
원표본가구 8
유치조사 6
유형설문 27
읍면부 13
이수여부 41
입주형태 62

(ㅈ)
자격증 48, 75
자녀교육 63
자산 60
전반적 직무만족도 77
전화조사 5
정규/비정규 여부 45
조사 기간 7
조사구 12
조사내용 31
조사대상 4
조사방법 4
조사설계(survey design) 3
조사추적 원칙 4
조직몰입도 78
종사상 지위 44
주거지 62
주택종류 62
중고령자 부가조사 90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 76
직업력(work history) 81
직업력자료 29
직업훈련 코드 48
직접조사 5

(ㅊ)
청년층 자료 87
총접촉가구수 15
최초성공가구비율 15
최초성공가구수 15
최초접촉가구수 15
취업/미취업 상태 43

취업자 43

(ㅋ)
키(key)변수 35

(ㅌ)
통합표본 4
특정기간효과 3
특정기간효과(period specific effect) 3
특정연령효과 3
특정연령효과(age effect) 3

(ㅍ)
표본설계방법 12
표본추출과정 12
표본탈락(panel attrition) 18
표본틀 12

(ㅎ)
학과 코드 48, 49
학교 41
학년 41
학력 41
한국리서치 7
한국표준산업분류 50
한국표준직업분류 50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 18
혼인상태 40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 81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 2

(1)
1차 원가구원 여부 42

(2)
2단층화집락계통추출법 12

(I)
imputation 19

(J)
jobcens 83
jobclass 83
jobnum 82
jobseq 82
jobtype 83
jobwave 82
jubnumc 83

(K)
key 변수 53

(M)
mainjob 83

(P)
PID 38

◈ 執筆陣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
- 이지은(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신선옥(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혜정(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노동패널 User's Guide

• 발행연월일	2014년 10월 20일 인쇄 2014년 10월 24일 발행
• 발 행 인	이 인 재
• 발 행 처	**한국노동연구원**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대표 (02) 785-0141 Fax (02) 782-0141
• 조판 · 인쇄	(주)이환디앤비 (02) 2254-4301
• 등 록 일 자	1988년 9월 13일
• 등 록 번 호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KLI
한국노동연구원